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이성주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7호

57

##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유권의 수호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과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지역의 각종 인간활동과 역사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 재단은 울릉도의 고대유적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는 우리 재단이 2009년도에 지원한 울릉도 고고학 관련 공동연구의 성과를 묶은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때 이찬 이사부(伊飡 異斯夫)가 울릉도를 정벌했다는 기사가 있듯이, 고대 신라인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동해상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울릉도에 남아 있는 고고학 자료를 보면 6~9세기의 물질문화가 가장 밀도 있게 남아 있어 이 기간 동안 인간집단의 거주가 가장 밀집되었고 본토와의 교류도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고고학적 연구의 축적이 충분하지 못해 울릉도지역과 신라본토의 고고학 자료를 연결지어서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울릉도의 고대문화는 6세기 이후 신라계통의 유적과 유물이며, 그를 대표할 만한 것은 고분과 토기입니다. 최근 들어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존을 위한 노력이 실행되고

는 있지만, 울릉도의 신라고분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많은 부분이 도굴되고 훼손된 상태입니다.

고분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는 토기인데 현재 울릉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활문화의 유산은 신라토기입니다. 신라토기는 신라 중앙이나 지방의 토기 제작소에서 생산되어 바다를 건너 온 것이 상당수이지만, 이 책의 연구를 통해 분명한 사실은 울릉도에 자체적인 토기 생산분배 체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서는 이처럼 귀중한 고고학 자료인 울릉도의 신라토기를 소재로 하여 문헌자료가 미처 말해주지 못하는 한반도 고대사 속의 울릉도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신라의 울릉도 복속과 경영의 배경 및 과정을 타당한 논거 위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진전된 고찰을 요하기는 하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연구논문은 신라의 울릉도 지배와 관련하여 그 요인과 배경,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대문화, 그리고 독도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차례

책머리에 10

### 울릉도의 고분문화와 신라토기 | 이성주

- 고대국가 신라의 한 지방으로서 울릉도 지역문화의 특수성

- I. 머리말 ... 20
- II. 신라 고분문화가 제기하는 문제 ... 25
- III. 고분의 분포와 구조 ... 32
- IV. 향토사료관 소장품으로 본 울릉도 고분문화 ... 39
- V. 출토 토기에 대한 검토 ... 46
- VI. 맺음말 ... 64

### 울릉도 토기의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 | 조대연

- 토기암석학(ceramic petrography) 분석을 중심으로

- I. 머리말 ... 73
- II. 울릉도의 지질배경 ... 76
- III. 분석방법 ... 78
- IV. 토기시료의 선정 ... 83
- V. 분석결과 ... 92
- VI. 고찰 ... 97
- VII. 맺음말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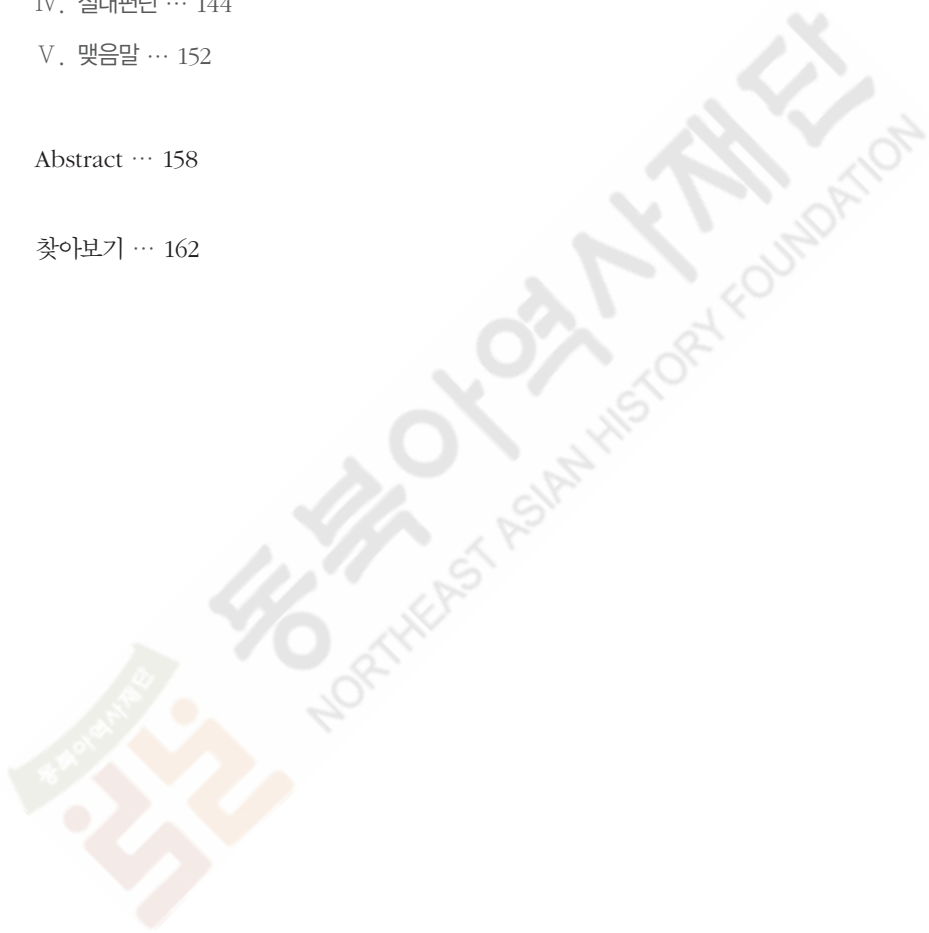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 윤상덕

- I. 머리말 ... 104
- II. 시기구분 ... 108
- III. 상대편년 ... 111
- IV. 절대편년 ... 144
- V. 맺음말 ... 152

Abstract ... 158

찾아보기 ... 1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책머리에

독도와 울릉도는 동해상 거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물론 서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이지만 동해를 가로지르는 정치, 군사, 경제 등 어떠한 성격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 두 섬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울릉도와 독도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동해는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열도로 둘러싸인 지중해와 같은 바다이며 이를 무대로 오늘날에도 4개국의 호혜적인 교류와 전략적 가치의 충돌이 교대되고 있다.

역사기록을 통해 보면 이 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동해상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대 신라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울릉도를 정벌한 기사가 전한다. AD 512년 이전에 우산국(于山國)이 있었던 것을 신라(新羅)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때 이찬 이사부(伊滄異斯夫)가 항복을 받아내어 신라의 영토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무척이나 설화적인 요소를 품고 있어서 무언가 되짚어볼 필요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간 울릉도에서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 이 무렵의 고분(古墳)과 신라토기(新羅土器)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6세기의 신라는 지증마립간과 법흥왕을 거치면서 동해안을 따라 영토의 확장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진흥왕 때 이르러서는 마침내 함경도 해안까지 진출하게 되어 동해의 해상지배에 관심을 가질 여건은 조성되어 있었던 셈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하는 첫 단계에서 신라가 주목하였던 사업이 동해의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울릉도 복속이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국사기』에서는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 복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 두 섬에 대한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울릉도에 남아 있는 고고학 자료

를 보면 고신라 후기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물질문화가 매우 밀도 있게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울릉도의 역사를 통해, 바로 6세기부터 9세기까지의 기간이 인간집단의 거주가 가장 밀집되었고 본토와 교류도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신라인들이 동해에 진출한 것이나 울릉도를 복속시킨 일, 그리고 신라가 존속했던 기간 동안 울릉도에 집중 거주하면서 본토와의 교류를 빈번히 해왔던 것은 전략적인 이유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적인 요인이나 배경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물질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울릉도지역과 신라본토의 고고학 자료를 연결지어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는 고대국가 신라 영토 내의 다른 지역처럼 울릉도지역도 신라에 복속되어 지방으로 편제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울릉도지역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고고학 자료상으로 보면 6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에서 신라고분과 신라토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양상이 신라의 다른 복속지역이나 혹은 지방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된 적이 없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만 지방고분이 거의 소멸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6세기 전·중엽 이후부터 약 350여 년 동안에 오히려 고분의 축조가 집중된 울릉도의 고고학적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신라 본토와 울릉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에 주목하여 울릉도지역의 물질적인 자료를 해석해 보려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울릉도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유적이나 거점지역의 대형 건물지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어서 고분에서 출

토되는 자료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지역의 고분에서는 그간 다량의 토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그중에는 당시 상당히 높은 신분의 소유자가 주로 소비했던 인화문병류(印花文瓶類)와 같은 것이 많이 출토되었고 상대적으로 조악한 태토(胎土)와 기술로 제작된 실생활용 적갈색 연질토기(赤褐色 軟質土器)가 회청색 경질토기(灰青色 硬質土器)와 함께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토기 생산분배의 관계망을 통해 신라 본토와 울릉지역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바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셋째로는 신라의 수도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토기를 비롯한 통일신라의 물질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편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신라 고고학 전반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울릉도지역의 물질자료 해석에서도 시기적인 변화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통일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장기간 존속되었던 생활유적이 많고 퇴적의 동시성 확보가 어려운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통일신라토기편년이 이른 시일 안에 완성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울릉도지역의 물질자료의 변천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과제인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는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연구의 문제점, 혹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에 의한 울릉도 복속과 경영의 배경과 과정을 타당한 논거 위에서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과제는 세 가지 소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울릉도의 고분문화와 신라토기 - 고대국가 신라의 한 지방으로서 울릉도 지역문화의 특수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라의 울릉도 복속의 역사적 계기와 배경을 문헌자료와 동해안 일대의 고분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울릉도지역의 고분과 그로부터 출토되는 유물, 그 중에도 토기자료를

분석하여 신라의 여러 지역문화 가운데 특수한 양상들을 추출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답해 보려 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신라 지증마립간 때 이사부의 울릉도 복속이 문헌상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공물 수취를 위한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거리도 멀고 가용자원도 빈약한 동해상의 고도에 애써 진출하여 그 지배를 지속하려 했던 배경에는 당시까지 동북아의 어느 세력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동해상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글의 필자는 섬의 생태지리적 여건과 울릉도 경영의 문제를 검토하여 육지와외 거리가 무척 멀고 면적이 좁을 뿐 아니라 평지가 거의 없는 울릉도의 생태지리적 여건에서 삼국시대 후기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약 350년 동안, 규모도 상당한 고분이 꽤 많은 수로 축조되었던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고립되어 있다면 100명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섬에서의 방대한 고분축조 양상을 섬 생태학의 관점에서도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양의 토기가 공급되고 동관이나 마구류가 유입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울릉도라는 신라 지방사회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첫째, 울릉도에는 신라의 정벌 이후 소수의 신라 상층부 사람이 이주하여 섬의 원주민과 중층적 계급사회를 형성하였다. 둘째, 신라인을 매개로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 전기간 및 고려 초까지 섬은 육지와 지속적, 아마도 정기적으로 교류하였으며 토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이 이를 통해 울릉도에 제공되었다. 셋째, 이러한 정착과 지속적인 교류는 신라인의 필요(그것이 특산물, 공물이든 아니면 고구려, 발해, 혹은 왜(倭)를 상대할 때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있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시기 동안 울릉도는 그 이전 시기나 그 이후 시기에 비해 육지인에게 무척 중요한 섬이었기에 그 거점적인 경영이 지속되

었다고 보는데 그 배경과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울릉도지역의 물질자료를 통해 신라 본토와 울릉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었는가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울릉도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와 통일신라양식토기의 생산 및 분배 체계 변동양상에 주목하였다. 즉 울릉도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자료인 신라토기를 대상으로 일상용, 혹은 고분부장용 토기유물군이 울릉도와 본토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어 울릉도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본토와 울릉지역의 관계의 한 단면을 살피고자 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울릉도의 네 유적(현포리 고분군, 사동리 고분군, 천부동 고분군, 남서리 유물산포지)을 중심으로 64점의 토기시료를 확보하여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의 생산기법과 원산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울릉도의 특수한 지질배경을 고려하여 토기암석학(Ceramic Petrography)을 이용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상정되어 왔던 대로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생산 및 분배체계가 달랐다는 가정과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필자는 화산암체인 울릉도의 형성배경과는 관련 없는 변성암 계열 첨가제가 혼입된 토기들의 존재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회청색경질토기로 육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고, 반면 현무암 계열 첨가제 위주로 제작된 적갈색 연질토기는 울릉도 자체 생산품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필자는 생산기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울릉도에서 출토되는 토기유물군이 통시적인 발전양상이 잘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즉 울릉도 자체 생산 토기(연질토기)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 특히 원료조달 및 첨가제, 바탕흙 배합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특별한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에서 토기를 제작, 사용했던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토기 생산 및 분배체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본토와 울릉도지역 사이의 관계의 일부를 설명하였지만 관계의 변화양상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신라 중심지의 토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신라중기 양식토기 혹은 통일신라 토기유물군의 편년작업이다. 토기자료는 일정 시대의 문화사 편년의 기본재료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당시의 생산분배의 문제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연구 자료이기에 토기의 연구는 해당시기의 역사·사회상을 규명하기 위한 선결연구로 취급되어 왔다. 통일신라시기에 있어서도 토기의 편년과 토기자료를 통해 신라의 통일과정에서 영역의 확장과 권력의 중앙집중화 과정, 중앙과 지방의 토기 생산의 문제, 토기의 이동 또는 분배 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6세기 중엽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에 대한 연구는 토기유물군의 편년 작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필자는 매장의 동시성이 파악되는 양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6세기 중엽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대상 시기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여 토기편년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6~7세기는 8세기 이후에 비해 비교적 폐기 동시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출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기존의 방법을 활용한 편년연구가 가능하지만 8세기 이후에는 고분자료가 전무하며 대부분 건물지 등에서 폐기 동시성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이의 편년작업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고고학 자료는 생활유적이 많고, 분묘도 대부분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한 구조여서 편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필자는 석곽묘(石槨墓)와 같이 매장동시성(埋納同時性)이 확보된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6~7세기의 신라토기편년을 수행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성이 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주 중심지역의 유적 및 경주와 교통로로 연결된 형산강 하구 인근의 유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주요 기종의 형식변천 양상을 밝혔고, 동반관계 분석을 통해 유물과 문양의 편년을 일부 진전시킬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인화문(印花文)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대부병(臺附甁)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공존 양상 및 시간폭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깔고 필자는 대부병을 형식분류하고 시간적으로 배열하였는데 해당 기종이 A~F형까지 6개의 형식으로 분류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형식 변화해 가기 때문에 단계적인 변화를 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화문의 경우 여러 형식에서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테면 그은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과 짙은 원문류(圓文類)가 시문되는 문양은 A~D형까지 사용되어 그 존속기간은 6세기말에서 7세기 2/4분기의 이른 시기까지 약 50년 정도, 그리고 삼각집선문과 원문류를 모두 짙은 문양은 B~E형에 사용되어 7세기 1/4분기~3/4분기까지, 마지막으로 수적형문(水滴形文)은 D, E형에서 7세기 2/4~3/4분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각 문양들이 적어도 5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기에 인화문만을 이용한 토기편년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아차산성(峨嵯山城) 성벽 다짐층 출토 인화문토기를 통해 6세기 후엽에는 인화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부여지역 정림사지(定林寺址) 연지유적과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출토 인화문 자료가 전형적인 종장연속문(縱長連續文)의 앞 단계로 보고 수적형문과 동시에 공존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식묘

로 추정되는 상석과 무문토기 파편이 보고되어 신라의 진출 이전에 속하는 우산국 사람들의 고고학 자료로 기대를 갖게 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좀더 정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러한 자료를 제외하면 울릉도가 우리의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때는 6세기 전반이고 이러한 문헌기록과는 별도로 그동안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를 살펴보아도 수많은 신라계통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6세기 전반부터이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울릉도의 고대문화는 6세기 이후 신라계통의 유적과 유물이며 그를 대표할 만한 것은 고분과 토기이다. 울릉도에 남아 있는 신라고분은 아쉽게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많은 부분이 도굴되고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존을 위한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역사적 정보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고분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는 신라토기이다. 현재로서 울릉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활문화의 유산은 신라토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신라토기는 신라 중앙이나 지방의 토기 제작소에서 생산되어 바다를 건너 온 것이 상당수이지만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또 하나는 울릉도에 자체적인 토기 생산분배의 체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 이외에도 이번 과제의 연구를 통해 신라의 울릉도 지배와 관련하여 그 요인과 배경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여러 단서를 찾아내긴 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연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2010년 11월 10일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이 성 주

# 울릉도의 고분문화와 신라토기

- 고대국가 신라의 한 지방으로서 울릉도 지역문화의 특수성

이성주 | 강릉원주대학교

- I. 머리말
- II. 신라 고분문화가 제기하는 문제
- III. 고분의 분포와 구조
- IV. 향토시료관 소장품으로 본 울릉도 고분문화
- V. 출토 토기에 대한 검토
- VI. 맺음말

## 국문요약

섬은 보통 고립되어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섬에서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지와와의 거리와 섬의 면적이다. 울릉도는 육지와 거리가 무척 멀고 면적이 좁을 뿐 아니라 평지가 거의 없는 섬이다. 이러한 섬에 삼국시대 후기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약 400년 동안, 규모도 상당한 고분이 많은 수로 축조되었다. 만일 고립되어 있다면 100명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섬에서의 방대한 고분축조 현상은 섬 생태학의 관점에서도 특이한 현상이다. 또한 신라의 정벌 이전에는 토기 한 점 사용하지 않았던 섬 사람들에게 토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고분에 부장하는 생활이 갑자기 보급되었다. 그밖에 동관편이나 마구류의 존재 등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이 시기 울릉도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울릉도에는 신라의 정벌 이후 소수의 신라 상층부 사람이 이주하여 섬의 원주민과 중층적 계급사회를 형성하였다. 둘째, 신라인을 매개로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 전 기간 및 고려 초까지 섬은 육지와 지속적, 아마도 정기적으로 교류하였으며 토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이 이를 통해 울릉도에 제공되었다. 셋째, 이러한 정착과 지속적인 교류는 신라인의 필요(그것이 특산물, 공물이든 아니면 고구려, 발해, 혹은 왜를 상대할 때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있든)에 의해 이루어졌다. 넷째,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시기 동안 울릉도는 그 이전 시기나 그 이후 시기에 비해 육지인에게 무척 중요한 섬이었다.

# I. 머리말

문헌상으로 울릉도(鬱陵島) 정착민에 관한 기록은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512)의 우산국(于山國) 복속에 관한 기사에서부터 확인된다. 이 기사는 6세기 전반에 신라가 울릉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이며 동시에 신라의 점령 이전부터 울릉도에 정착민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삼국시대 이전의 울릉도 사정은 고고학 자료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1957년에서 1963년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진 울릉도 조사의 보고서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고분에서 출토되는 7세기 경의 인화문토기(印花文土器) 이전에 해당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 대해 과연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는 적갈색 승문토기(繩文土器)를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김해토기의 전통이라고 추정하고 그 기술이 삼국시대 이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내다본 적이 있다.<sup>1</sup> 그러나 당시 고식(古式)이라고 간주했던 승문토기들은 보고서 집필자의 오해처럼 원삼국시대의 승문토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용된 타날구(打捺具)의 종류로 보면 승문타날구와 평행타날구가 혼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세격자문(細格子文) 타날구를 두드리고 물손질한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은 삼국시대 말이나 통일신라까지 계속된 양상이기 때문에 6세기 이전에 유입된 기술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울릉도에서 조사된 토기유물군을 통해서도 6세기 이전에 정착민이 있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못한 셈이다.

1 金元龍(1963),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4冊, 77~79쪽.

또한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울릉도의 고고학 조사에서 울릉도 내 세 개의 지점에서 지석묘(支石墓)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 수 점이 지표채집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역시 울릉도 내에서 채집된 연석 및 연석봉(研石棒)을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하면서 울릉도에 최초로 사람들이 정착한 시기를 적어도 청동기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석묘와 같은 분묘유구(墳墓遺構)나 무문토기편과 석기 등의 유물은 아직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판단할 만큼 뚜렷한 속성이 파악된 것은 아니기에 조사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초의 울릉도 정착민은 과연 언제 들어 왔는가? 그리고 만일 울릉도 정착민이 청동기시대나 원삼국시대에 들어 왔다면 그들은 과연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여 삼국시대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그 후에도 또 다른 인구의 유입이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은 앞으로 독도 및 울릉도의 역사를 밝히는 데 더없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일정 어느 시기부터 울릉도에 정착민이 거주했다면 섬 주민들이 본토와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했는지에 대해서도 고고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울릉도의 고고학 자료를 조사하지만 아직 청동기시대나 원삼국시대 혹은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동기시대 이래 삼국시대 후기까지 인간 점유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을 존중한다면 신라의 정복 이전의 어느 시점에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고 다소간의 인간 거주 시간적 공백이 있을지는 몰라도 6세기 이전까지 울릉도에 정착민들은 상당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삼국시대 후기 이전까지 정착민의 증감이나 유입·유출의 문제는 울릉도라는 폐쇄된 환경을 고려하여 당시의 자원분포 및 개발기술의 가변성 등을 충분히 분석 검토한 뒤에 어떤 결론을 도출

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다만 현재의 자료를 통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의 문화적인 양상을 살필 수는 없지만 만약 이전에 정착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라와의 본격적인 교섭이 이 울릉도 정착민의 문화내용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성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라에 복속된 6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울릉도 곳곳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고분군이 처음으로 형성되고, 그 규모나 수(數)로봐에는 말할 수 없지만 고분군들 사이에 어떤 위계와 같은 것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고분군은 매장시설이므로 그에 묻힌 주민이 거주했던 생활유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최근까지 시굴 및 지표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찾아진 유적은 고분군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기간 울릉도 주민이 정착했다고 추정되었던 생활유적이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시대와 유적 성격을 불문하고 울릉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로서 가장 풍부한 자료는 토기이다. 그리고 유적의 연대를 비정(比定)하거나 유적의 범위와 성격 등에 관해 추론하는 데 출토된 토기의 양상이 가장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고는 한다. 지금까지 울릉도 내 여러 유적에서 발굴 및 지표채집 등으로 토기유물이 상당량 수습되었는데 6세기 이후 고신라와 통일신라의 것이 가장 많고 일부는 고려시대 초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내 여러 유적 중에서 완형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은 북면 천부동 고분군(天府洞 古墳群)이다. 천부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회청색 경질의 편병(扁瓶), 사각병(四角瓶), 인화문병(印花文瓶), 대부완 등

---

2 오강원(2009a),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83~231쪽; 오강원(2009b), 「고대 울릉도 사회와 집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169~222쪽.

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 7세기 후엽 이후로 비정되고 주름무늬병을 비롯한 대다수의 토기는 통일신라 말기 혹은 고려 초기에 해당된다. 현포리(玄圃里) 유적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보다 퇴적층에 대한 시굴조사 및 지표채집 등으로 생활용 토기가 많이 수습되었는데 적갈색연질의 일상용 토기와 함께 시기폭이 넓은 인화문 토기와 고려시대 토기도 보인다. 이곳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나 지표 채집된 토기 중에는 6세기 전·중엽까지 연대를 올려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시기 폭이 가장 큰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는 유적별로 기종구성이나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유적별로 출토되는 토기유물군의 기종구성과 기형의 차이는 유적의 존속시기, 유적의 성격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부 기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신라토기를 자세히 형태 분석해 보면 대다수의 토기가 경주나 그 주변지역의 토기와 기술적·양식적인 차이를 지적하기 어려운 까닭에 본토로부터 수입해 온 것이라는 판단이 틀리지 않을 듯싶다. 그러나 적갈색연질토기나 대형의 저장용 토기들은 태토가 거친 데다 정면기법(整面技法)이 조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토기들은 울릉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토기의 기종별로, 혹은 태토의 질에 따라 생산공급체계가 차이가 날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며 그동안 고신라 후기 및 통일신라 토기생산 시스템을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울릉도에 살던 토착민들이 6세기 전엽 아슬라(阿瑟羅) 군주(軍主) 이사부(異斯夫)의 정벌에 의해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 어느 쪽을 통해서도 울릉도의 선주 정착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신라에 복속된 이후 6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신라고분과 신라토기 등의 유물이 울릉도지역에 돌연히 등장하여 이때부터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인간 집단 거주가 확인되는 셈이다. 본토로부터 상당

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울릉도지역을 신라가 갑작스럽게 정벌하게 된 역사적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사부의 정벌 이후 울릉도지역 역시 고대국가 신라 영토 내의 다른 지역처럼 신라의 지방으로 편제되었을 터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즉 복속 이후 울릉도지역의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특히 그 양상이 신라의 다른 복속지역이나 혹은 지방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격 차이를 살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된 적이 없다.

사실 울릉도에 고분군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신라의 영역 제 지역에서는 서서히 고분이 퇴화하는 단계이다. 신라의 지방고분군의 축조가 퇴화하여 거의 소멸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약 300여 년 동안에 오히려 울릉도 지역에는 고분의 축조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울릉도의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신라의 제 지방과는 다른 사회변동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위해서는 신라의 제 지방의 양상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첫째, 신라의 다른 지방과 달리 6세기 전반 갑작스럽게 신라의 고분문화가 등장하는 요인과 배경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둘째,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울릉도지역의 고분문화의 특성과 특히 고분이 소멸하는 단계에 번성하게 되는 이 지역 고분문화의 전개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 II. 신라 고분문화가 제기하는 문제

울릉도에 축조된 고분군을 검토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사실 고분의 구조적인 특징이 육지, 그중에도 신라고분의 구조에 견주어 어떤 형식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울릉도 고분군의 분포와 위계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간의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의 고찰은 물론이거니와, 울릉도 고분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서도 그러하였다.<sup>3</sup>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울릉도 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육지와와의 정치·경제적 혹은 문화적 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 1. 고분군 형성의 생태지리적 문제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 전 기간과 고려 초에 걸친 울릉도의 고분축조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문화현상이다. 울릉도는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기 불가능한, 만약 육지로부터 고립되면 자원의 심각한 한계와 농경이 가능한 토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결코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없는 섬이다. 그러한 섬에 규모도 작지 않은 고분이 사람이 기거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까지 점령하면서 많은 수의 봉석석실분이

---

3 金元龍(1963), 『鬱陵島』, 國立中央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38冊; 서울大學校博物館(1998), 『鬱陵島』, 서울大學校博物館博物館學術叢書 6; 정영화·이청규(1998), 「鬱陵島の考古學的 研究」,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신숙정·이성주(2000), 「유적·유물을 통해 본 선사·고대의 울릉도 사회」,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59~89쪽; 金夏奈(2006), 「鬱陵島 横口式石室墓의 源流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축조되어 있다. 그리고 육지에서 운반되어 온 귀한 물품들을 매장의례에 다량으로 소비하였다. 울릉도에 고분군이 축조되기 시작한 6세기 전·중엽은 신라의 중심지와 몇몇 거점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분축조가 서서히 종결되어 갔던 시기이다. 7세기 이후부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신라의 지방고분만 남게 되며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그마저도 소멸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에 견주어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분이 소멸하는 단계에 울릉도만은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울릉도는 육지와 최단거리가 135km 정도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섬이다. 섬의 전체 면적이 72.56km<sup>2</sup> 정도이고 2007년을 기준해서 1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에 적지 않은 인구가 거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농경지로 삼을 수 있는 평지가 무척 좁고 인간의 거주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고립도와 섬 자체의 면적, 토지와 기타 필수 자원의 분포는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적응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을 대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의 생물종을 관찰하고 그 진화를 설명하려 했던 시각을 받아들여, 섬을 일반적인 진화 혹은 생태적 과정의 실험실처럼 생각하고 접근한 연구자는 맥아더와 윌슨이다.<sup>4</sup> 이들이 제시한 생태지리 모델은 사실 고고학자들이 섬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점유와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섬의 생태계와 인간집단의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태지리의 문제를 넘어 섬의 사회지리와 문화적인 과정을 설명하려면 생태지리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

4 MacArthur R. H. and Wilson, E. O.(1967),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없다. 하지만 섬의 생태계에서 사회의 형성과 변동을 설명하는데, 즉 고고학자가 섬 안에서 사회문화적 과정을 검토하는데 섬의 생태지리 모델이 제공하는 개념과 작동의 원리들은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5</sup>

섬의 생태지리 모델에서는 생물 종의 정착, 확산과 변이 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섬이 육지와 떨어진 거리와 섬의 면적이라고 한다.<sup>6</sup> 이 점은 섬의 인간 점유와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특히 섬의 자원 및 가용면적과 육지와의 거리는 인구 수, 사회적인 위계화, 섬 내부와 외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의례 등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울릉도에 이루어진 약 400년이 못 되는 고분의 축조현상 그 이면에는 섬이 가지고 있는 중요 생태지리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7</sup> 최초의 인간 점유와 섬 내부의 사회조직,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섬 내외의 사회적 관계망이 배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Kirch, P. V.(1984), *The Evolution of the Polynesian Chieft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venson, C. M.(1986), "The Socio-political Structur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 of Easter Island", In Kirch, P. V.(ed.), *Island Societies: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9~77; Terrell, J.(1986), *Prehistory of the Pacific Is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erry, J. F.(1990), "The First Colonization of the Mediterranean Island: A Review of Recent Research", *The Journal of Mediterranean Archaeology* 3, pp. 145~221.

6 MacArthur R. H. and Wilson, E. O.(1967), 제2장.

7 오강원(2009a)의 앞의 논문에서는 울릉도의 생태지리적 변수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

## 2. 울릉도 정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의문

신라는 5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주변 소국을 복속시켜 초기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국가 신라는 낙동강 이동의 영남지방, 즉 진한(辰韓) 일대를 통합하고 이 범위를 넘어 가장 먼저 세력을 확대한 곳은 동해안지역 그 중에도 아슬라, 지금의 강릉 일원이었던 것 같다. 『삼국사기』에는 물론 이보다 훨씬 이전인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3년(102)에 동해안지역과의 교섭이 보인다. 음집벌국(音汁伐國)과 실직국(悉直國: 지금의 삼척)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전해지고 실직국이 압독국(押督國: 지금의 경산)과 함께 항복하여 왔다는 기사도 보이지만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 무렵 사로국(斯盧國)이 삼척까지 아울렀다는 기사는 취신하기 어렵다.

위의 기사를 배제하면 문헌기록상으로 신라가 동해안의 세력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례는 『삼국사기』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조의 기록이 되는 셈이다. “나물이사금 42년(379)에 북변 아슬라에 가뭄과 누리가 있어 백성이 굶고 있으므로 죄수를 풀어주고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에는 아슬라가 이미 신라의 영토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이 사실 역시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을 재삼 음미해 보면 동해안의 강릉이 가장 먼저 고구려로부터 벗어나 신라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 아닐까 한다. 5세기 전반이 되면 강릉지역에 신라계통의 유물이 다량 유입되고 5세기 중엽에는 이 지역에 신라고분군이 형성되며 5세기 후반이 되면 대형고분과 신라로부터 사여 받은 위세품이 다량 부상된

고분도 축조된다.<sup>8</sup> 아슬라 지역에서 신라계통의 대형분을 축조하고 신라식 금공위세품을 소유한 인물은 역시 이 지역 토착 지배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라고분군의 축조는 이 지배층들이 신라에 복속하여 신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이 지역을 계속 통치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5세기의 신라는 초기국가에 상당하며 과거 진한의 제 세력을 복속시키고 동해안 지방으로도 진출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초기국가 신라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일률적인 지배와 복속의 관계가 아니라 토착 정치세력의 주장과 중앙의 지배집단 사이의 정치경제적, 이념적 협상의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즉 영토화와 지방지배가 실현되는 단계가 아니고 제 지역 세력의 복속과 간접적인 지배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동해안의 거점지역인 강릉 일원을 신라가 세력 하에 둔 것은 5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으로 보이지만 5세기 후반까지는 고구려의 강력한 남하정책에 직면하여 동해안으로 확대된 신라세력은 불안한 것이었다.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말갈로 표현되는 동예의 잔존세력을 이끌고 실직주(悉直州)를 취하기도 하였고 신라의 중심지 가까이까지 침입하여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동해안으로의 세력확장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지역에 보다 탄탄한 북방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침내 6세기 초 실직주와 아슬라주를 설치하고 군주로 이사부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6세기 초부터 신라는 기존의 세력 확장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한다. 자신의 세력 아래 복속시킨 소국의 자치권을 허용

---

8 李盛周·姜善旭(2009),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유적』,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I, 461~484쪽; 박수영(2009), 「강원 영동지방의 신라화에 대한 검토」, 『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2009년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101~132쪽.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배를 시도했고 확대된 영토 안에는 신라의 성곽을 쌓아 나가면서 신라 중심지와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영토의 방어를 공고히 하였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적어도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했음은 진흥왕순수비와 신라계 석실분, 그리고 신라토기 등의 분포를 통해 볼 때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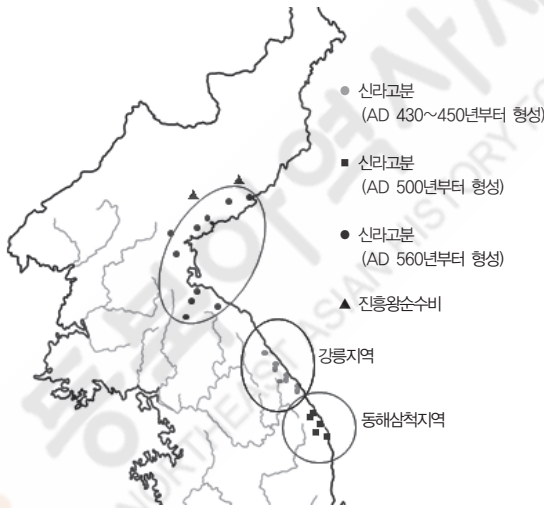


그림 1 신라고분군의 시기적 분포를 통해 본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정

이상과 같이 신라 영토확장과 지방지배의 중대한 전환점에 아슬라의 군주 파견된 이찬 이사부가 울릉도 정벌을 단행한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이사부의 울릉도 정벌 기사는 다음과 같다.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해 와 해마다 특산물로 조공(朝貢)하였다. 우산국은 명주(溟洲)에서 정동 쪽의 바다에 있는 섬인데 혹 울릉도라고 하

며 그 지방은 일백 리이다. 지형이 험하다는 것만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찬 이사부가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 위엄만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다”고 하며 나무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위협하면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밟아 죽이게 하겠다”라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은 겁을 내어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

이상과 같은 울릉도 정벌기사는 대단히 설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벌의 시기, 정벌의 이유, 정벌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당시 울릉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한다. 단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은 내용은 정벌의 시기가 이사부가 아슬라 군주로 부임한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3년(512)이란 점, 그리고 정복 이전에 울릉도에는 야만인에 가까운 토착 원주민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선(戰船)을 동원하여 정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산국 정벌의 실제 이유와 정벌 이후 울릉도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만으로는 적절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문헌기록만으로는 신라가 왜 울릉도에 진출하였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그 이후 신라가 울릉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어렵다. 신라의 울릉도 지배에 관하여 우리가 설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릉도의 복속 시기가 동해안을 따라 영토확장을 단행하고 직접 지배를 실현하게 되는 단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후 신라는 울릉도지역에 상위계급의 고급품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양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

며 신라가 지배하던 기간 동안만 좁은 섬에 대규모로 고분군이 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동해안에 지배권을 확보하기 직전의 단계에 울릉도를 장악했으며 그후 막대한 물자를 작은 섬 지역에 공급했던 까닭은 신라 중앙정부가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그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즉 신라인들이 울릉도를 동해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한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 Ⅲ. 고분의 분포와 구조

울릉도지역의 고분(古墳)은 모두 지상에 적석봉분(積石封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되는 편이다. 봉분이 삭평되고 지하에 매장시설(埋葬施設)이 유존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울릉도의 고분은 모두 완전한 지상식이거나 한쪽만이 약간 지하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관만으로도 고분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수혈식석곽(竪穴式石槨)이나 토광묘(土壙墓)처럼 지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의 고분은 신라의 경우처럼 대부분 군집을 이루고 있는 편이지만 따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고분도 몇 기 확인된 바 있다. 대체로 고분군이 유존하여 있는 장소는 현재에도 최소한 20~30여 가구 이상의 인구가 그 주변을 개간하여 농사짓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으로 최소의 완경사면과 평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다. 울릉도는 섬 전체가 장년기의 산지지형이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장소는 계류가 흐르고 최소의 경사도를 가진 사면과 평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현재 울릉도 주민이 취락을 이루고 있는 매우 협소한 곡저면마다 과거에도 주민이 거주했을 것이며 이곳에 고분군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울릉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가 있었던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분군의 유존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양호했고 많은 수의 고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보고서에서도 울릉도가 외부의 침탈이 많아 고분이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분은 급격히 훼손·멸실되고 있는 형편이다. 1960년대 초까지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대체로 곡저면(谷底面)이 넓어서 경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20~30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10기 미만이 잔존하며 2~3기 정도만이 남은 고분군도 있다. 그리고 고분이 많이 밀집된 고분군에는 봉분의 저경이 15~20m에 가까운 것도 존재한다. 물론 부장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분의 수와 봉분의 규모만을 가지고 고분군의 위계화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개별 고분군과 고분군 내의 개별 유구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분화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폐쇄되고 협소한 섬이지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취락집단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서 집단의 규모나 다른 근원의 권위에 따라 어느 정도 위계질서는 있었을 것이고 또한 취락 내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의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리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꽤 공들여서 큰 규모로 축조되는 고분의 발생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토된 토기의 연대로 보건대 울릉도의 고분은 6세기 전·중엽 경에서 늦으면 10세기 경에 걸쳐 최소 350년 가량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고신라의 후기 토기상을 대표하는 단각고배(短脚高杯) 출현기로부터 청자 발생 전후의 토기양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50년간 지속적으로 축조되어 온 고

분군치고는 울릉도 고분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고분군 내에서 개별 고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2배 혹은 3배의 고분이 축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경작지(耕作地)가 고분군으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형적 입지에서 보았을 때 현포동(玄圃洞) 고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분군이 가파른 지형에 의지하여 축조되어 있다. 즉 가경지 혹은 취락 조성지를 될 수 있으면 피하여 매장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울릉도 고분의 수가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로는 당시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고분이 축조되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울릉도의 거의 모든 고분은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한 횡구식(橫口式)의 형태로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수의 고분이 조영될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울릉도 고분군의 특성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당시의 사회가 내적인 과정이든 외부의 영향이든 상당히 위계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울릉도에도 고분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 공동체 내에 따로 존재해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 집단을 본토 사회의 위계에서 본다면 횡구식석실을 축조하던 계층에 건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5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영역에서는 고분군이 대체로 3단계로 위계화된다. 그것은 대체로 일정 범위의 취락공동체로부터 통합의 범위 혹은 규모와 관계가 깊다고 보는데<sup>9</sup> 대형봉토분이 분포하는 최고 위계의 중심고분군으로부터 중형분과 소형분이 공존하는 고분군과 소형분으로만 구성된 하위군집분(下位群集墳)으로 위계화된다.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에 의해 신라·가야 전 지역이 통합되고 난 뒤에는 이전 시기의 고분군에서 보이는 질서가 사라

9 李盛周(1998), 『新羅·伽耶社會의 政治·經濟의 起源과 成長』, 학연문화사: 251~258쪽.

지게 된다. 고분의 규모와 부장양상에 의해서만 고분이 위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묘제에 의해서도 위계적인 양상이 관찰되며 위계화에 의한 고분군의 공간적 분포 패턴에 근본적 변화가 있게 된다.

대체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미 왕묘가 고분군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뒤, 대형 횡혈식석실분으로만 구성된 상위고분군이 나타나고 약간의 횡혈식석실과 횡구식석실 및 소형석곽으로 구성된 중위고분군, 그리고 소형의 횡구식석실이나 석곽만으로 구성된 하위고분군이 분화된다. 본도에 있어서 고분군의 위계화 양상에 울릉도지역의 고분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울릉도지역에서 횡구식석실을 조영하는 집단은 그 공동체 내에서 상위집단에 속할 것으로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횡구식석실에 함께 매장되는 관계는 대체로 혈연적인 관계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범주는 혈연관계의 범위로서 정의될 것이다.

울릉도 고분군 형성에서 꼭 지적해 두어야 할 사실은 울릉도에 신라고분군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6세기 무렵은 분명 신라의 영역,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보다는 지방고분군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점차 소멸하여 간다는 점일 것이다. 즉 신라의 초기국가 시기에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제 지방의 지역집단 사이의 위계화된 정치조직이 만들어낸 고분군의 위계화된 분포 양상이 사회의 변동과 함께 서서히 소멸되어 가던 시기에 울릉도지역에서는 새삼스럽게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라의 제 지역집단이 고대 국가의 중앙집권화된 시스템 안으로 포섭되어 고분군의 조영을 중단하게 된 시기에 오히려 울릉도지역은 고분군의 축조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이 지역의 사회적인 과정이 신라의 다른 지방과는 상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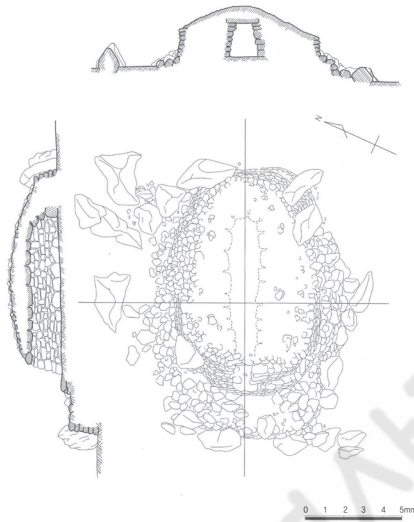


그림 2 남서동 11호분 봉분과 매장시설: 비교적 평지에 자리잡은 고분(국립중앙박물관 2008)



그림 3 남서동 15호분의 구조: 경사지에 축조한 적석층으로 아래쪽에 축대를 쌓듯이 올리고 고분을 축조(국립중앙박물관 2008)

봉분으로 보면 울릉도 고분은 모두 적석(積石)하여 축조된 일종의 적석총이며 봉분의 형태는 타원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전체의 외관과 적석의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다. 보통 적석단을 만들듯이 수직으로 석축하는가 하면 한쪽은 잡석을 아무렇게나 쌓아 단순한 돌무지처럼 봉분을 조성하기도 한다. 대개 적석단을 만드는 이유는 급경사면에 의지하여 고분이 축조되기 때문에 봉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울릉도지역에 적석총이 축조된 것을 본토의 묘제와 문화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 울릉도 조사자의 견해대로 울릉도 지질 자체가 토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후상으로도 토축 봉분을 만든다면 쉽게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석봉분(積石封墳)을 만들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sup>10</sup>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를 기준으로 본다면 울릉도의 고분은 대부분 횡구 석실실분으로 분류된다. 석실의 평면형은 세장방형(細長方形)에 가깝지만 한쪽 단벽은 열려 있고 막힌 쪽의 벽면은 거의 예외 없이 호형(弧形)을 이룬다. 즉 이는 장벽을 먼저 축조하고 양 장벽 쪽에서 오므리듯 석축하여 단벽을 조립한 결과라고 본다. 석실의 입면을 보면 거의 모든 석실이 장벽을 위로 올라가면서 내경하게 석축한 뒤 장대석을 개석으로 덮는 방식으로 축조된다. 그리고 석실의 형태가 매우 세장한 것 또한 울릉도 고분의 특징이다. 각 고분군 별로 보았을 때 현포동과 남서동(南西洞) 고분군 석실이 덜 세장한 편이다. 특히 남서동 고분군에서는 1:5.0 정도까지 되어 장방형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1:6.5 정도로 세장한 편이다. 가장 세장한 형태의 석실로 보이는 것은 천부동 고분군이며 그 중 2호분은 1:8.8까지 되어 극히 세장하다. 출

10 金元龍(1963), 앞의 책; 崔夢龍 外(1998), 『鬱陵島 - 考古學的 調查研究-』, 서울대학교 박물관.

토유물의 편년을 기준으로 울릉도 고분의 구조적인 변천을 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겠지만 규모도 크고 가장 세장한 천부동 2호분에서는 통일신라토기 중에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이 출토되어 혹시 석실이 세장화(細長化)되는 것이 고분의 변천경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울릉도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이고 하나의 매장주체부가 하나의 묘역과 하나의 봉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양동(南陽洞) 고분군의 매장주체부도 횡구식석실에 해당되지만 여러 개의 매장주체부가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면서 연속적으로 맞대어져 축조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여러 매장주체부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지역에서의 특수한 고분 축조방식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울릉도의 횡구식석실분은 물론 본토의 동일 묘제와 비교했을 때 축조기술이나 제반 속성에서 큰 차이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 고분의 축조자가 적어도 6세기대 본토의 횡구식석실분에 대한 관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신라지역, 그것도 신라 북부지역의 횡구식석실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산 낙산동(善山 洛山洞) 고분군의 횡구식석실<sup>11</sup>이나 안동 조탑동(安東 造塔洞) 고분군의 5호분<sup>12</sup>과 상주 병성동(尙州 屏城洞) 고분군<sup>13</sup> 같이 이 지역의 세장한 수혈식석곽의 전통이 횡구식석실로 발전한 예에서 그 직접적인 계통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세장한 석실의 형태라든가 양 장벽을 내경하게 축조하다 개석을 덮는 방식 등은 울릉도의 횡구식 매장주체부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그리고 『삼국사기』

11 李殷昌(1992), 「善山 洛山洞古墳群의 研究(I)」, 『嶺南考古學』 10, 87~127쪽.

12 尹容鎭·李在煥(1996), 『安東 造塔洞古墳群(II)』, 慶北大學校博物館, 56쪽.

13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01), 『尙州 屏城洞·軒新洞古墳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24~230쪽.

의 기록대로 신라 중앙정부에서는 이사부를 경북 북부와 강원도 동해안의 군주로 삼았고 그가 아슬라 군주로 부임하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믿어진다.

#### IV. 향토사료관 소장품으로 본 울릉도 고분문화

울릉도 향토사료관에는 금속제 유물들이 몇 점 전시되어 있다. 그중 청동으로 제작된 동판(銅板)과 이식(耳飾), 그리고 동령(銅鈴) 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유물의 소장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포동 고분군에 학교가 건립되고 취락이 확장되면서 일부 고분이 파괴되고 그로부터 수습된 유물이 이곳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것이라 전할 뿐이다. 그러니 확실한 유구의 상태 및 동반 유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향토사료관의 동령은 물론 마구의 일종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이 마령은 과거 울릉도 보고서에서 천부동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금구(金具)<sup>14</sup>와 함께 울릉도에서 몇 안 되는 마구류로 추정된다. 과거의 보고서에서는 천부동 출토 금동제품을 과대(跨帶) 수식(垂飾)으로 오인하여 보고한 바 있지만 5~6세기대 고분에서 흔히 출토되는 십금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동일한 형식이 고분에서 출토된 바 없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sup>15</sup> 말띠

14 金元龍(1963), 앞의 책, 28쪽.

15 國立中央博物館(2008), 『鬱陵島』, 國立中央博物館, 209쪽.

를 십자(十字)로 연결하는 금구의 하나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통일신라기의 형식이라고 추측된다.<sup>16</sup> 어찌되었건 울릉도지역에서도 마구류가 출토된 셈이고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말을 사육하여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말은 본토에서 하사한 물품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들 유물 중 관모의 일부로 추정되는 장식동판(裝飾銅版) 파편의 존재가 시선을 끈다. 이 동판은 부식이 심하고 대부분 파손, 결실되어 원형을 추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관모로 추정하는 근거는 연속 원공의 투조장식(透彫裝飾)이 있는 점, 대관(帶冠)의 대륜부(帶輪部)로 추정되는 부위에 두 개의 소공을 뚫어 입식을 청동사로 결합한 흔적이 있는 점, 그리고 대륜부에 작은 영락(瓔珞)이 장식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가야지역에서 확인된 금속제 관모는 금, 은 아니면 최소한 금동제이며 이는 모두 일정 신분 이상 권력의 상징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포동 금속제관은 재질이 금동도 아니고 청동이다. 그리고 극히 퇴화된 장식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유자의 신분 혹은 권력의 상징물로서 인정되는 금속제 관모의 성격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유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유물이 가진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 그것은 본토와의 관계 및 신라의 중앙집권화와 지방지배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5세기 후반경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낙동강 이동 일대 여러 수장층의 고분과 이서 지역의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발견되는 출자상의 수지형입화식관(樹枝形立華飾冠)은 신라와 일정한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체의 수장권을 표상하는 위세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율성을 가진 재지 정치권력의 상징물로도 볼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금동관이 가지는 의미는

16 오강원(2009b), 앞의 글, 192쪽.

17 全德在(1990), 「新羅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3~25쪽.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이해되며 그에 따라 형태와 완성도, 제작기술의 수준도 다르다고 간주된다. 특히 신라 중앙정부에서 제작하여 분배한 것이나 아니면 재지에서 금동관의 기본형을 모방하여 제작·사용한 것이나 하는 문제에 따라서도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되며 제작 기술이 세련되었는가 조악한가에 따라서도 금동관의 의미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 향토사료관의 동관은 일종의 동관(銅冠)의 파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는데 그 연대, 사용자의 신분, 사용자와 본토와의 관계성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 동관의 연대와 그 성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출토유구의 성격, 동반 유물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난점이다. 이 동관의 제작기술이나 장식문양(裝飾文樣) 등으로 평가했을 때, 극히 단순하고 퇴화된 형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입식(立飾) 일부분의 편(片)들과 입식과 대륜부를 결합한 한 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다. 대륜부에 소공을 쌍으로 뚫어 청동제 영락을 매단 것과 입식에 원공을 연결되게 뚫어 투조한 것이 장식의 전부이다. 입식과 대륜부는 청동사로 조잡하게 결합하였으며 흔한 타출문 장식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도 늦고 극히 퇴화된 양식의 동관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신라의 중앙집권화는 주변지역의 정치세력에 대한 간접지배의 형태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배의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제 지역 정치권력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약화되고 수장의 권력도 축소되었을 것이다. 5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 낙동강 이동지역에 분포하는 수지형입화식대관(樹枝型立華飾帶冠)에 대하여 그것을 착용한 자가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외위(外位)를 받

은 촌주(村主)일 것이라 추정된 견해가 있는데<sup>18</sup> 이때까지도 금동관은 경주와 관련을 맺은 재지 권력자의 상징물이었다. 그리고 6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금동관이 출토된 고분은 각지 중심고분군의 최고 위계 대형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세기 중엽 이후에는 낙동강 동안은 물론이고 서안지역에서도 중심고분군(中心古墳群)이 소멸한다. 중심고분군의 소멸과 함께 각 지역 대형분에서도 금동관은 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6세기 중엽 이후에 이전 단계의 경주 양식의 수지형입화식관모를 충실히 모방했던 화려한 금동관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퇴화된 형태의 금동관이 나타나는데 대형분에서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분에서 출토된다.

6세기 중엽 이후 퇴화된 금동관의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안동 지동(枝洞) 2호 수혈식석곽(竪穴式石槨墳)과 단양 영춘면 하리(永春面 下里)에서 수습된 금동관<sup>19</sup> 및 동관<sup>20</sup>이다. 안동 지동 출토품은 제작기법이나 장식이 퇴화되기는 했어도 재질(材質)이 금동제이고 출자형입식(出字形立飾)의 기본형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륜부에는 아래위로 두 줄의 타출문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연속 산자형문을 타출하였으며 원공(圓孔)과 첨미문(尖尾文)으로 장식하였다. 입식에 타출열점선문(打出列點線文)으로 시문하고 영락으로 장식하였으며 출자형과 근사하게 금동관을 투조하였다.

이에 비해 단양 하리 수습품은 훨씬 퇴화된 형태이고 금동이 아니라 청동제의 재질이다. 대륜부의 장식은 고작 일렬의 타출문(打出文)으로 연속능형문을 불규칙하게 시문한 정도이고 입식도 출자형 장식의 기본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형태이다. 단지 장방형의 동관에 종렬로 3개씩의 연속원공을 이열

18 朴普鉉(1988), 「冠帽前立飾金具를 통해 본 積石木槨墳時代 社會組織」, 『古代研究』 1, 23~42쪽.

19 尹容鎭 外(1989), 『臨河댐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II)』, 慶北大學校博物館.

20 金弘柱(1992), 「丹陽 下里出土 一括遺物에 대한 考察」, 『考古學誌』 4, 175~203쪽.

사행으로 뚫어 장식했을 뿐이다.

지동의 금동관은 동반 출토된 토기로 미루어 보건대 6세기 중엽경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고분은 석곽의 규모가 길이 260cm, 너비 110cm밖에 안 되는 소형에 가까운 고분으로 봉분 역시 크지 않아서 동시기 다른 유구들보다 규모나 부장양상이 뒤떨어지는 편이다. 이와 같은 지동 금동관의 출토상황은 이 금동제관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상징물(象徴物)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5~6세기 대형 고분 출토 금동관은 소멸하고 지동 2호분과 같은 오지 고분군의 하위묘에 잔존하는 현상은 신라 중앙정부의 권력이 이미 직접적인 관계로 행사되고 재지 수장층이 소멸하면서 금동관의 의미도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반된 토기에 대한 연대추정으로 6세기 후반경이라 추측되는 단양 하리 출토품은 그와 같은 과정이 훨씬 더 진행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6세기 중엽 이후까지 신라의 북부 외곽에 잔존하는 금동관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금동관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세품으로 하사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성 하에서 제작된 것도 아니라는 점, 둘째로 이 시기의 금동관은 실제적인 정치권력의 상징물이기보다는 단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전통적인 종교관념 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닌 물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5~6세기 전반, 신라의 금관은 대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지위의 상징물이었고, 금동관은 재지 수장층 권력을 표상하는 위세품이었다. 그와 함께 양식적으로 보아 출자형금동관은 수목의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전통적인 종교·이념체계에서 사면의 기능성을 표상한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금동관이 정치권력의 상징성을 상실했다면 종교적·이념적 의미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6세기 중엽 이후에는 불교의 공인으로 사면적인 권위가 정치권력의 관계성 속에서 작용하는 비중도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단양 하리의 동관은 암혈(岩穴)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할 뿐 출토상황이 분명하지 않아 그것이 고분인지 제사유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동관과 동반된 토기 형식으로 본다면 6세기 후엽으로 연대가 추정된다. 동관과 함께 출토된 투조장식의 동관이 있는데 과대로 추정된다. 동관과 비슷한 원공이 투조되어 있는 말각방형관이 과대와 같은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물이다. 고신라 후기에 단양과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극히 퇴화된 형식으로 조잡하게 제작된 청동관과 청동과대를 착용한 자가 과연 사회내에서 어떠한 존재였을까. 당시의 청동관에 사면적인 상징성이 남아 있다면 그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기보다 지방에서 주술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자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권위도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불교나 국가통치를 위해 수용된 유교적인 이념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울릉도 출토 동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안동 지동 2호분과 단양 하리 출토품 밖에 없다. 이들 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중앙 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정치권력의 상징물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울릉도의 동관은 출자형의 기본형이 어느 정도 유지된 지동 2호분 금동관보다는 형태나 제작기술상으로 더 퇴화된 형식인 단양 하리 출토품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선 재질이 다 같이 청동이고 연결원공을 투조 장식한 것이나 조잡하게 청동사로 결합하는 방식 등 울릉도 동관과 하리 동관은 많이 닮은 셈이다.

6세기 후엽의 단양 하리 동해 추암동 고분<sup>21</sup> 등에서 출토된 동관은 정치적 권력을 표상한다기보다 주술적 권위를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이해할 수

21 辛虎雄·李相洙(1994), 「湫岩洞 B地區 發掘調查報告」, 『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關東大學校博物館.

있다.<sup>22</sup> 하지만 이 동관을 착용한 자는 당시 울릉도 사회를 이끌어 갔던 자임은 분명하다.<sup>23</sup> 다만 초기국가를 구성한 지역정치체의 수장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전통적인 이념적 권위를 지니고 당시 사회를 이끌어 간 인물이 그러한 동관을 착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동관이 울릉도 고분에서 출토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울릉도지역 고분축조집단과 신라 본토의 중앙정부 및 지역 세력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튼 울릉도 동관은 신라 중앙정부에서 제작하여 분배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6세기 중엽 이후 제 지역의 수장이 소멸하고 수장권이 몰락한 이후 그들에게 위세품으로 분배하기 위해 새삼스럽게 금동관을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작기술의 조악함을 보더라도 경주에서 제작된 물품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것을 울릉도에서 자체제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잡하기는 하지만 금공제품의 생산기술이 수용되어 울릉도에서 행해졌으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동관의 제작처는 삼국통일 직전 당시의 신라 북부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신라 북부지역에서는 지동 2호분이나 하리 출토품과 같은 금동관을 제작하던 지역이다. 사실 6세기 중엽 이후의 금동관 자료는 이 지역에서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리 동관과 울릉도 동관이 많이 닮았다는 점도 추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당시 울릉도지역에 샤머니즘의 전통이 유지되어 왔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동관이 울릉도에 유입되는 맥락이 정치적인 상호작용인지 이념적인 교섭의 결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울릉도 동관의 존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울릉도의 재지 권력자가 본토와 교류할 때 신라 중

22 신숙정·이성주(2000), 「유적·유물을 통해 본 선사·고대의 울릉도 사회」,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59~89쪽.

23 오강원(2009b), 앞의 글, 212쪽.

양정부와 직접적인 교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본토와의 교섭은 중앙집권화된 신라의 지방행정단위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울릉도와 가까이 있었던 당시의 실직주나 아슬라주의 군주와 교섭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V. 출토 토기에 대한 검토

과거 울릉도 조사 보고서에서는 고분축조 시기의 토기를 회청색 신라토기와 적갈색 승문토기로 대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주로 천부동 고분군 출토 토기를 근거로 하여 울릉도의 고분축조 시기와 아울러 토기의 연대도 7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sup>24</sup> 그동안의 고신라와 통일신라의 토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왔기에 울릉도의 신라토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보고서에 울릉도 향토자료관에 소장된 토기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존의 울릉도 신라토기보다 오래된 자료가 있어서 연대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sup>25</sup>

우선 과거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에서 울릉도의 토기군을 제작기술의

---

24 金元龍(1963), 앞의 책, 66~73쪽.

25 崔夢龍 外(1998), 앞의 책, 70~83쪽.

전통에 따라 2군으로 대별한 것은 태토의 질을 토기 분류의 제1기준으로 삼았던 당시의 연구관점 때문이다. 그리고 타날문토기(이른바 승문토기)는 고식일 것이라는 단순한 선입견 때문에 늦은 시기의 회청색 경질토기와 이른 시기의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가 동반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은 울릉도 출토 토기는 물론 신라토기 전반에 대한 적절한 이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양자 모두 고신라 혹은 통일신라의 토기로 포괄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태토의 성질이나 기타 제작기술상의 특징으로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고학계에서는 김해식토기하면 타날문토기가 연상되었고 타날문은 고식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각종 타날문은 거의 통일신라시대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자기가 아닌 중근세 토기에도 타날문이 있었기 때문에 타날문에 대해 특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출토된 토기는 적색토기와 회청색토기로 대별함이 타당할 것 같으며 적색토기의 범주 안에 타날문토기를 포함시키고 회청색토기 안에 고신라의 도질토기와 인화문토기, 그리고 통일신라 토기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울릉도 신라토기의 연대와 시기 폭에 있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서울대박물관에서 보고한 향토사료관에서 관찰한 토기 중에는 6세기 중엽 경까지 연대를 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사동리, 남서동 및 현포동 유적에서 채집된 토기 중에는 이른 시기의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기자료를 통해 울릉도가 신라와 본격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기록 그대로 6세기 전반경부터이며 통일신라시대 전 기간 동안 고분문화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 둘 만하다.

## 1. 적색연질토기

과거 울릉도 조사에서 천부동 고분군, 남서동 고분군, 남양동 고분군 등의 고분에서 여러 점의 적색토기들이 채집되었고 현포동 유물포함층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다수의 적색토기들이 채집되었다. 이번 조사단도 현포동 일대에서 다수의 적색토기편을 채집하여 자료를 추가할 수 있었다. 적색토기들은 대부분 타날문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타날문의 종류로는 평행타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소수의 격자문과 승석문도 발견된다. 적색토기의 기종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며 소형평저옹이나 발, 완, 파수부완(把手附碗), 시루 등에 한정된다. 적색토기의 제작기술 전통이 6세기 이전의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지만 앞선 보고자의 견해대로 타날문전통이 그 이전에 들어 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타날의 형태만을 가지고 6세기 이전과 이후를 변별하는 일은 현재의 자료와 연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가능성으로만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본토에서는 타날문적색토기류의 비중이 확실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그 비중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지역의 큰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편적인 보고이긴 하지만 경주 안압지(雁鴨池)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토기들을<sup>26</sup> 참고로 비교해 보면 일상용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적갈색연질계 산화염토기(酸化焰土器)들은 거의 소멸하고 회색연질계의 환원염토기(還元焰土器)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토의 적갈색토기들은 적어도 6세기쯤 되면 다소 소성도는 낮더라도 정질의 태토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울릉도에서 채집된 적색토기들에는 태토에 굵은 사립이 많이 섞여 있어 본토의 토기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

26 韓炳三(1984), 「가. 土器」, 『雁鴨池』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82~245쪽.

한 점을 생각한다면 적갈색계 토기의 경우 울릉도에서 자체 생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앞으로 광물학적·물리·화학적 분석에 의한 산지추정방법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인 듯하다. 그리고 적색토기에서 자주 보이는 우각형파수(牛角形把手)의 문제인데 울릉도의 파수는 굵고 몽툰한 특징을 보여준다. 6세기 중엽경 이후 파수부 적색토기들은 고분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산 북정리 고분<sup>27</sup>이나 안압지 출토예(出土例)를 참고하면 이름 그대로 긴 쇠뿔모양에서 후대로 갈수록 짧고 몽툰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

27 沈奉謹·朴廣春(1992), 『梁山下北亭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그림 4 적갈색 연질토기(현포리 유물포함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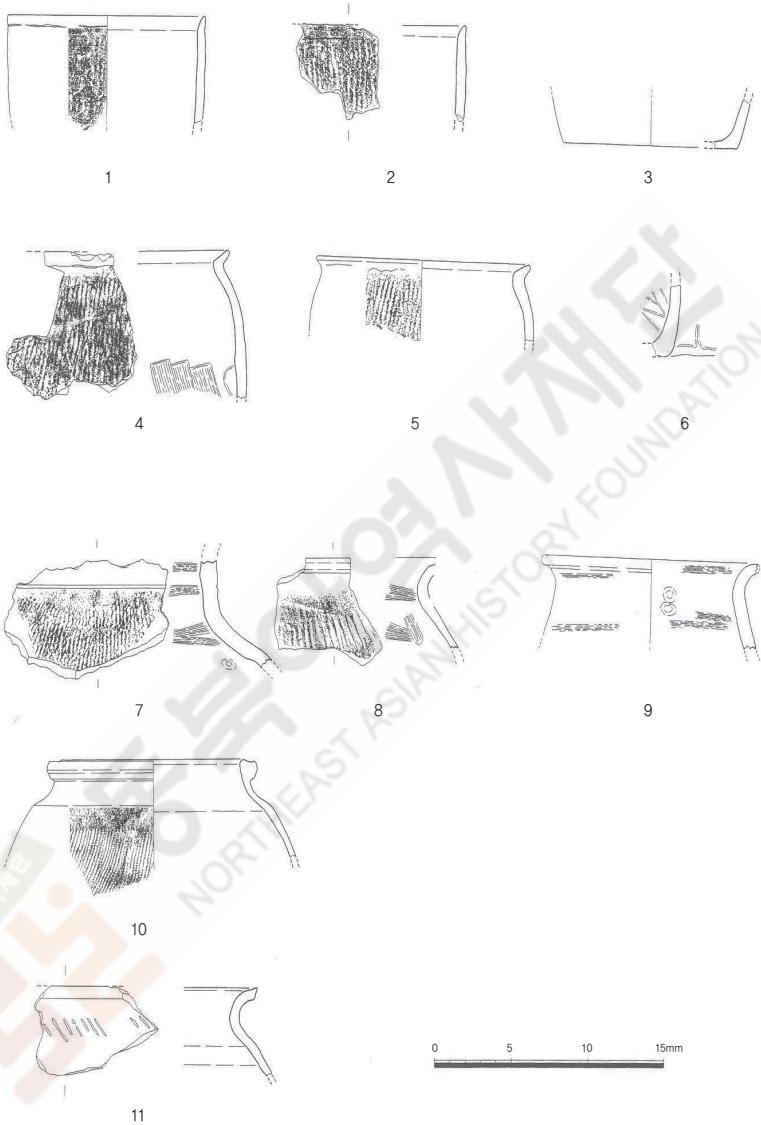


그림 5 적갈색 연질 발형토기와 웅형토기, 그리고 단경호(1·2·3·11 : 현포리 9호분, 4·5·6 : 천부리 1호분, 7~10 : 현포리 채집토기)

## 2. 도질토기(고신라토기와 통일신라토기)

남서동 고분군에서 채집된 대부장경호, 향토사료관에서 관찰한 단각고배류, 개배, 유대파수부완, 대부장경호, 회색연질완(灰色軟質碗) 등은 7세기 이전에 상당하는 것으로 울릉도에서 신라토기의 사용이 6세기 중엽경까지는 올려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각고배 출현 이후에서 인화문토기 발생 이전의 단계 및 초기 인화문토기 단계의 토기편이 울릉도 일대의 여러 지점에서 채집되므로 연구자에 따라 절대연대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 상한연대를 6세기 중엽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

우선 고배의 단각화 과정에 대해서는 고신라토기의 변천과정에서 그 연대를 도출할 수 있는데 6세기 중엽경에는 유개고배의 대각에 투창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각화된 고배가 나타난다.<sup>28</sup> 단각고배와 반구장경호의 조합이 낙동강 이서로 진출하는 역사적 계기를 잡아서 6세기 후반이라는 절대연대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 것은 결과물의 진출이기 때문에 경주와 그 주변에서 단각화의 과정을 관찰하여 보완되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의 토기 양상은 이른바 “황룡사 창건기(皇龍寺 創建期)”라는 컨텍스트에서 관찰된 토기군에서 살펴야 한다.<sup>29</sup> 앞서 예를 든 울릉도 채집 토기류들은 바로 황룡사지의 1차가람 기초, 늪매립지, 폐토기무지 등에서 출토된 창건기 토기들에서 살필 수 있는 형식들이며 고분군들로 말한다

28 李盛周(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第2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要旨』, 37~39쪽.

29 崔秉鉉(1984), 「가. 土器」, 『皇龍寺』,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崔秉鉉(1992), 「皇龍寺址出土 創建期土器의 性格」,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26~60쪽.

면 경주 방내리 고분군(芳內里 古墳群)<sup>30</sup>, 양산 북정리 고분군(北亭里 古墳群)<sup>31</sup>, 창령 계성 고분군(桂城 古墳群)<sup>32</sup> 등에서 이 단계의 유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황룡사 창건기 토기의 연대에 관해서는 이미 역사기록이 참고될 수 있으므로 보고자의 견해에 따라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서 6세기 후반의 이른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sup>33</sup>

울릉도에서 확인된 인화문토기 중에는 초기형식들이 몇 점 포함되어 있다. 현포동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된 것과 향토사료관에서 발견한 소형장경호 등은 선각으로 된 삼각집선문과 반원 컴퍼스문과 인화문이 공존하는 단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치구에 의한 이른바 종장연속문계의 인화문이 출현하기 이전에 날개로 원문(圓文)이나 반원문(半圓文)을 찍은 인화문 토기도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초기형식의 인화문이 언제 출현하여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sup>34</sup> 다만 이 시기의 고분군들이 신라의 중심지에서 그리 많이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천의 기술과 연대 추정에도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선각문과 인화문의 공존과 종장연속문계의 출현 이전에 해당하는 초기 인화문토기의 연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정도로 넓게 보고자 한다.

3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1996), 『慶州芳內里古墳群』.

31 沈奉謹(1994), 『梁山北亭里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沈奉謹·朴廣春, 1992, 앞의 논문.

32 釜山大學校博物館(1995), 『昌寧桂城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慶南考古學研究所(2001),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33 崔秉鉉(1992), 前掲論文.

34 崔秉鉉(1987),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Ⅰ 考古學編, 一志社, 563~96쪽; 宮川禎一(1988), 「文樣からみた新羅印花文土器の變遷」, 『歷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 記念論集-, 眞陽社, 73~91쪽; 宮川禎一(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30(中), 507~5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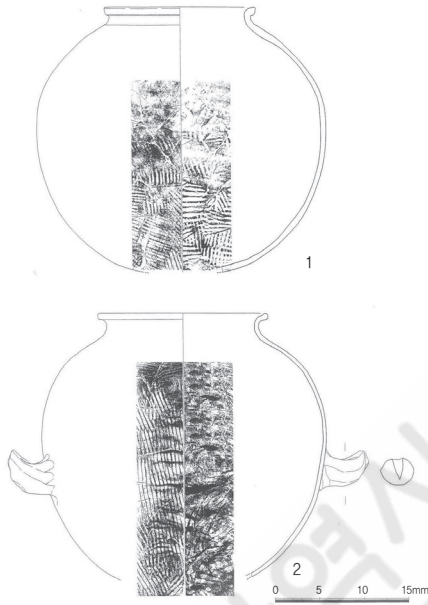


그림 6 회청색경질 평행타날문호(지표채집유물)



그림 7 회청색경질 평행타날문호(지표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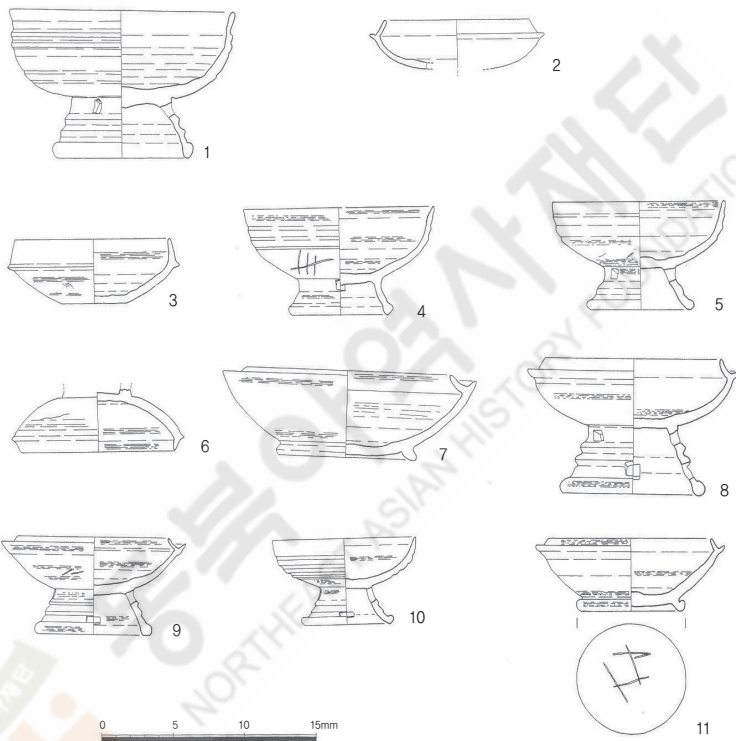


그림 8 회청색경질 고배와 개배 : 이중 2번과 3번 토기는 6세기 전엽까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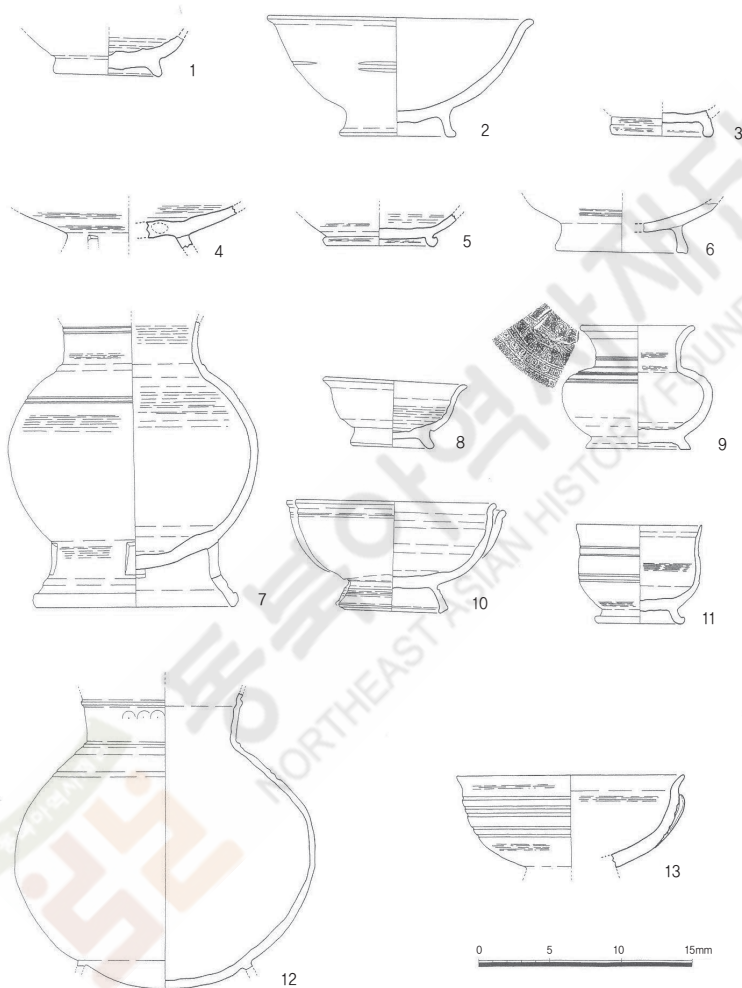


그림 9 회청색경질 단각고배 대부분, 대부파수부완 및 대부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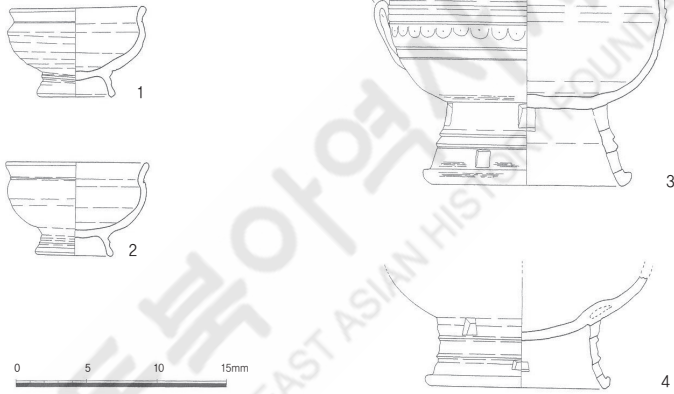


그림 10 회청색경질 대부완, 대부파수부완 및 대부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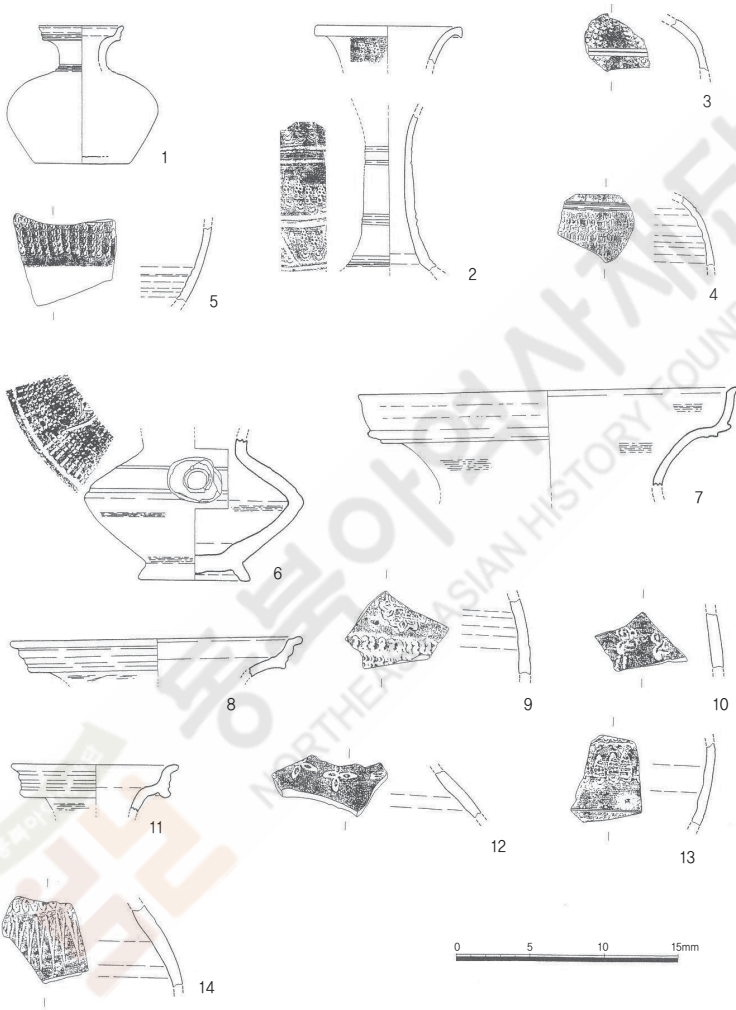


그림 11 반구병 및 인화문토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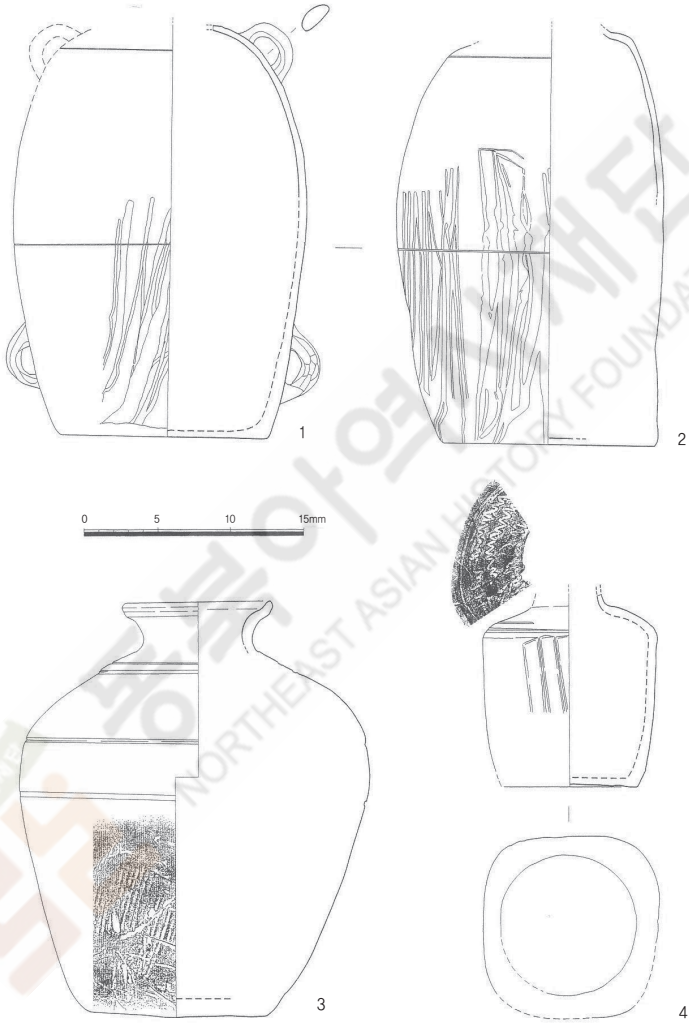


그림 12 천부리 1호분 출토 토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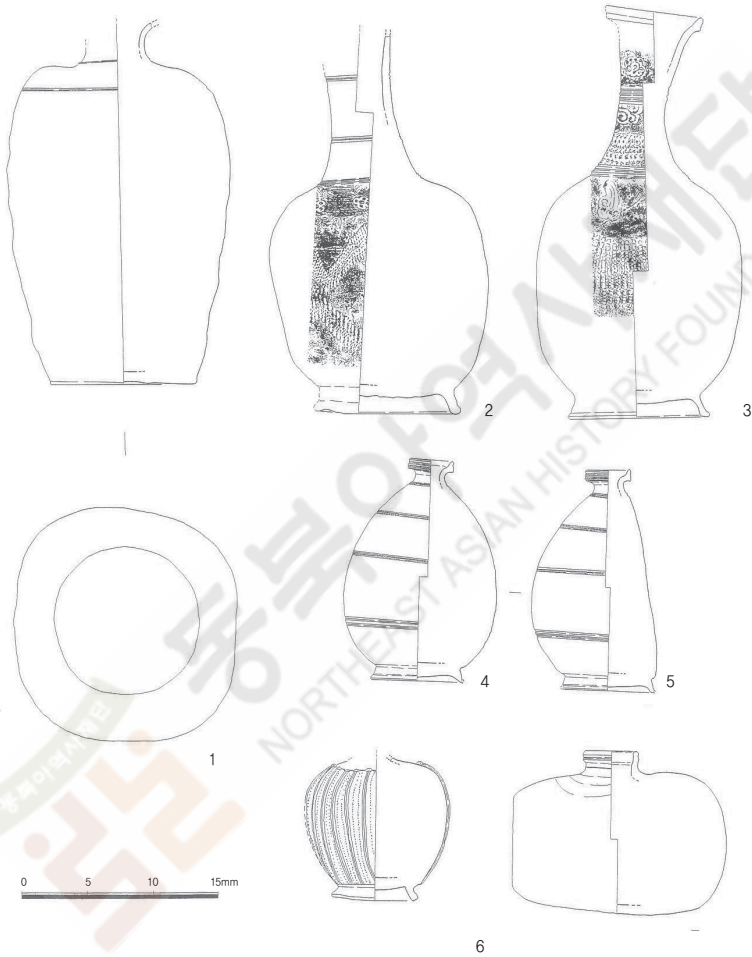


그림 13 천부리 2호분 출토 인화문토기병과 편병, 주름무늬병, 장군형토기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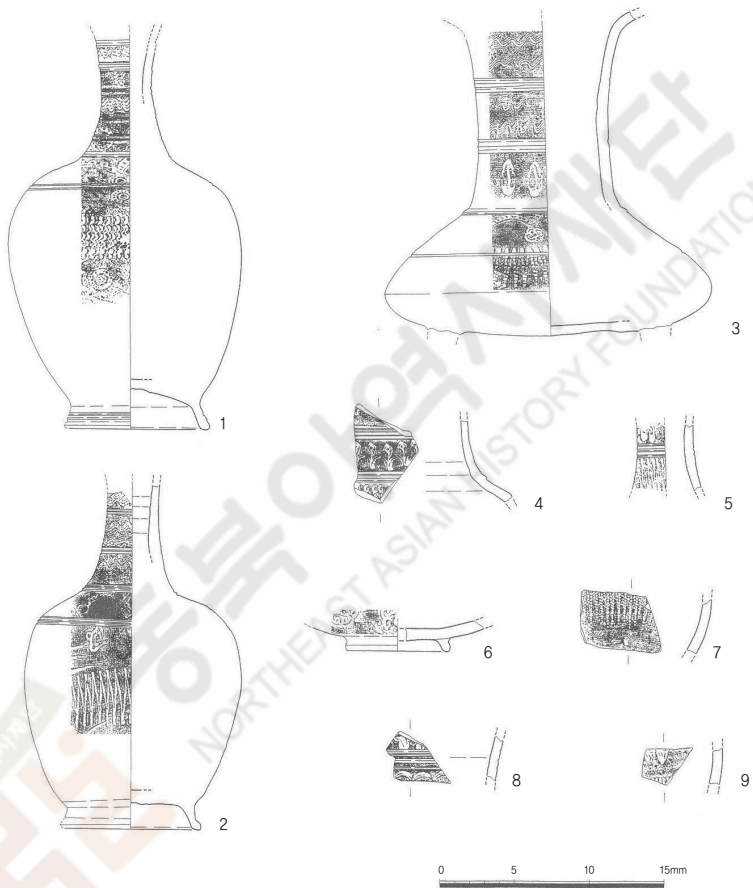


그림 14 천부리 3호 출토 인화문토기병과 토기편

그간 보고된 토기자료의 대부분은 고분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완형에 가깝게 보고된 토기의 기종구성을 보면 소형 기종이 많아, 중형·소형의 병형토기, 대부장경호, 대부완, 유개고배, 개배, 유개합, 단경호, 장경호, 대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유물군에서는 실생활용 토기로 파악되는 적갈색 연질토기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생활유적으로 알려진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포리 퇴적층에 대한 시굴조사자료 및 지표 채집된 유물 중에 적갈색 연질토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타날문연질 발형토기, 파수부옹, 시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분에서도 적갈색 연질토기가 소수 출토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타날문발(打捺文鉢)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채집되어 보고된 토기 중에 가장 이른 연대를 보이는 것은 울릉도 향토사료관에 보관된 개배, 대부장경호, 단각고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대부장경호와 단각고배는 6세기 중엽까지 연대가 올라가며 1점에 불과하여 선부른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개배는 6세기 초까지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울릉도 내 여러 유적에서 발굴 및 지표채집 등으로 토기유물이 수습되었는데 그 중 완형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은 북면 천부동 고분군이다. 천부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회청색 경질 편병, 승문타날된 사각병, 인화문병, 대부완 등으로 7세기 후엽쯤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로 인정되고 주름무늬병을 비롯한 대다수의 토기는 통일신라 말기 혹은 고려 초기에 해당된다. 현포리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보다 퇴적층에 대한 시굴조사 및 지표채집 등으로 생활용토기가 많이 수습되었는데 적갈색 연질 일상토기와 함께 이른 시기에서 늦은 시기에 걸친 인화문토기와 고려시대 토기도 보이므로 시기 폭이 가장 큰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울릉도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는 유적별 기종구성이나 시기

를 달리하기 때문에 토기에 대한 연구가 유적의 존속시기, 유적의 성격, 그리고 고신라 및 통일신라시기 울릉도 전체의 유적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고신라 및 통일신라 6~9세기 토기요지 보고서 및 왕경유적 출토 자료와 울릉도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유물군을 비교하면서 유적별 출토 토기의 성격을 밝히고 아울러 토기유물군을 통한 유적의 시기 및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토로부터 울릉도에 유입된 신라토기의 기종과 기형을 분석하면 유적성격과 유적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토로부터 유입된 신라토기와 울릉도 안에서 자체 제작된 토기의 제작기술 및 기종구성을 검토하여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신라 후기와 통일신라시기의 토기 수급체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리라 여겨진다.

울릉도지역 안에서 자체적인 토기생산의 시스템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양의 도질토기가 본토로부터 수급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인화문병류를 중심으로 상당한 고급도기의 기종들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울릉도의 지배집단에 의해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종의 도기들은 동시기에도 왕경유적, 저명 사찰이나 성곽 유적에서 출토되며 지방의 하위취락에서는 완과 합, 호형토기 정도가 전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신라의 중앙정부는 울릉도지역의 지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 VI. 맺음말

그간 울릉도의 고고학 조사는 고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유적으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도 두 차례 있었지만 일정한 유구의 상태를 검출하지는 못하였다.<sup>35</sup> 지금까지의 울릉도 고고학 보고서와 기타 자료조사 보고서로는 1957년과 196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를 보고한 자료,<sup>36</sup> 1997년과 1998년의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한 자료 및 향토자료관 소장 자료의 실측 보고,<sup>37</sup> 1998년과 2000년에 이루어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수집자료,<sup>38</sup> 그리고 2002년도에 발간된 경북문화재단 구원의 지표조사 자료, 2008년도 중앙문화재단연구원의 남양리 고분 발굴조사 자료<sup>39</sup> 등이 있다.

이상의 발굴을 통해 고분의 구조, 고분군의 양상,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한 부장유물 등 울릉도지역의 고분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단순히 고분과 부장품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넘어 처음 제기했던 문제 즉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발돋움하던 바로

35 金元龍(1963), 앞의 책; 嶺南大學校博物館(2002), 『鬱陵島 玄圃里遺蹟 試掘調査』, 嶺南大學校博物館.

36 國立中央博物館(1963), 『鬱陵島』,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2008), 『鬱陵島』, 國立中央博物館.

37 崔夢龍 외(1997), 『鬱陵島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Ⅰ』, 서울大學校博物館; 崔夢龍 외(1998), 앞의 책.

38 정영화·이청규(1998), 앞의 글; 嶺南大學校博物館(2002), 앞의 책.

39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文化遺蹟分布地圖-鬱陵郡-』,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그 시점에서 멀고 정치적·경제적 이익도 없을 듯해 보이는 우산국을 점령하게 된 요인과 배경의 문제, 그리고 신라가 존속했던 기간 동안 울릉도지역을 끊임없이 관리하였던 이유와 그 지배방식의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350년 간의 고분축조 현상은 생태적인 제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확대되고 과장된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울릉도 주민은 평지가 극히 좁아 경사가 무척 심한 지형도 개발하고 평지에 가까운 곳이라면 깎아지른 통로를 개설하면서 점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용 가능한 평지를 대부분 차지하는 고분을 상당한 규모로 축조하였고 그 안에는 육지로부터 어렵게 수입한 고급 도질토기를 다량으로 부장하였다. 인화문병형토기나 유대완과 같은 상위의 생활방식에서 이용하는 그릇이 많이 수입되었으며 금동제품과 같이 이전의 원주민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무의미했을 유물이 수입되고 매장의례에 소비되었다. 섬의 환경에서는 생태적 한계상황까지 밀어붙이는 문화적 혹은 이념적인 실천으로 인해 인구의 방출이나 섬의 공동화가 초래되는 일도 있는데 울릉도의 고분축조 현상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 보긴 어렵지만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그리고 동시기 육지에서는 있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는 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의 고분축조 현상을 이 지역의 사회적 과정과 육지와의 관계 변동, 그리고 육지의 전략적인 관심 등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최초의 울릉도 정착민은 언제적 사람인지 그리고 신라인의 최초 점유 시점보다 이른 정착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착민의 인구규모와 집단의 분포는 어떠한지에 대한 해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해안을 따라 10여 군데 형성되어 있는 고분군의 정밀한 편년, 고분군의 숫자, 그리고 규모와 부장양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울릉도의 고분과 토기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도굴과 경작 및 기타 개발행위로 인해 울릉도 고분이 파괴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울릉도 고분문화의 보존과 연구가 상호 긴밀한 관련 속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림 15 도로공사로 파괴된 사동리고분

울릉도에 분포하는 10여 군데의 고분군의 편년과 동시기성의 파악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천부리, 현포리, 태하리, 남양·남서리, 사동리 등은 일정기간 공존했던 집단이며 동시기에 고분군을 축조해 나가기도 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소규모 집단이 그러한 고분을 축조했고 육지로부터 수입된 고급 토기와 기타 물품을 소유했다는 뜻이 된다. 천부리, 현포리, 사동리 일원에서 채집된 토기편을 검토했을 때 최초의 고고학 자료인 신라토기는 신라인들이 최초 점유 직후 각 지역들을 동시에 점유하였고 동시에 고분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고분의 축조는 40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할 때 그리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섬 안의 사회가 위계화된 사회라면 아주 일부 계층을 위해 고분이 축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 울릉도 사회는 한정된 공간 안에 고도로 분화된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고분을 축조하고 육지로부터 고급의 유물을 수입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립된 정도가 높은 섬 사회에서 매우 성층화된 계급사회가 유지되고 기념물이 축조되는 경우<sup>40</sup>를 참조해 보면 흥미롭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사부의 원정 때 울릉도에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선주민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어느 정도 육지와 정기적 교류가 지속되고 신라로부터 식량과 자원 등이 유입되면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후부터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물질적 증거와 점유의 흔적들은 신라로부터 일정한 집단의 이주가 있었고 섬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재조정된 생태적 범위 안에서 인구증가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섬 내부에서 점유지역의 확대와 집단의 분화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선주민과 이주 신라인 그리고 인구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위계화가 촉진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위계화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신라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생존의 도구로 쓰든 신라지역에서 고급토기, 상위계급의 물품, 그리고 적갈색토기처럼 섬에서 생산하고도 더 필요한 생활필수품 등을 꾸준히 수입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물자의 유입은 ‘섬 주민이 필요해서’

---

40 中央文化財研究院·獨島博物館(2009), 『鬱陵 南陽里 古墳』, 中央文化財研究院·獨島博物館.

라는 대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을 제공했던 신라 중앙정부 및 지방권력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제공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한 증거를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도 찾지 못하였다. 울릉도로부터 공물로 받아들여야 할 꼭 필요한 물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구려, 왜 혹은 발해와의 교섭 및 견제를 위해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울릉도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신라시기의 울릉도 사회와 신라의 울릉도 지배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만일 고립된 것이었다면 100명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섬에 그러한 고분축조 양상은 생태학 관점에서든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막대한 양의 토기가 공급되고 동관이나 마구류가 유입되었던 사실 등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울릉도라는 신라 지방사회의 성격에 대하여 추론해 본다면, 첫째, 울릉도에는 신라의 정벌 이후 소수의 신라 상층부 사람이 이주하여 섬의 원주민과 중층적 계급사회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둘째, 신라인을 매개로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 전 기간 및 고려 초까지 섬은 육지와 지속적, 아마도 정기적으로 교류하였으며 토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이 이를 통해 울릉도에 제공되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착과 지속적인 교류는 신라인의 필요(그것이 특산물, 공물이든 아니면 고구려, 발해, 혹은 왜를 상대할 때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가치가 있든)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시기 동안에 울릉도는 그 이전 시기나 그 이후의 시기에 비해서도 육지인에게 무척 중요한 섬이었기에 그 거점적인 경영이 지속되었다고 보는데 그 배경과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할 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해 두고자 한다.

- 金元龍(1963),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4冊.
- 金夏奈(2006), 「鬱陵島 橫口式石室墓의 源流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弘柱(1992), 「丹陽 下里出土 一括遺物에 대한 考察」, 『考古學誌』 4.
- 朴普鉉(1988), 「冠帽前立飾金具를 통해 본 積石木槨墳時代 社會組織」, 『古代研究』 1.
- 釜山大學校博物館(1995), 『昌寧桂城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 서울大學校博物館(1998), 『鬱陵島』, 서울大學校博物館博物館學術叢書 6.
- 신숙정·이성주(2000), 「유적·유물을 통해 본 선사·고대의 울릉도 사회」,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 河炫綱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 沈奉謹·朴廣春(1992), 『梁山北亭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文化遺蹟分布地圖 - 鬱陵郡 -』,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 尹容鎮·李在煥(1996), 『安東 造塔洞古墳群(II)』, 慶北大學校博物館.
- 尹容鎮 外(1989), 『臨河澗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II)』, 慶北大學校博物館.
- 李盛周(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第2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要旨』, 嶺南考古學會.
- 李盛周(1998), 『新羅·伽耶社會의 政治·經濟의 起源과 成長』, 학연문화사.
- 오강원(2009a),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오강원(2009b), 「고대 울릉도 사회와 집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李殷昌(1992), 「善山 洛山洞古墳群의 研究(I)」, 『嶺南考古學』 10.
- 全德在(1990), 「新羅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 정영화·이청규(1998), 「鬱陵島の 考古學의 研究」,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中央文化財研究院·獨島博物館(2009), 『鬱陵 南陽里 古墳』, 中央文化財研究院·獨島博物館.
- 崔秉鉉(1984), 「가. 土器」, 『皇龍寺』,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崔秉鉉(1987),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考古學編, 一志社.

- 崔秉鉉(1992), 「皇龍寺址出土 創建期土器의 性格」,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韓炳三(1984), 「가. 土器」, 『雁鴨池』,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土器の變遷」,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梯三郎先生 喜壽記念論集-, 眞陽社.
- 宮川禎一(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30(中).
- Cherry, J. F.(1990), The First Colonization of the Mediterranean Island: A Review of Recent Reaserch, *The Journal of Mediterranean Archaeology* 3.
- Kirch, P. V.(1984), *The Evolution of the Polynesian Chefdr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traux, A.(1957), *Easter Island: A Stone Age Civilizatio in the Pacific*, London : Andre Deutsch.
- MacArthur, R. H. and Wilson, E. O.(1967),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venson, C. M.(1986), The Socio-political Structur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 of Easter Island, In Kirch, P. V.(ed.), *Island Societies: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rell, J.(1986), *Prehistory of the Pacific Is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울릉도 토기의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

- 토기암석학(Ceramic Petrography) 분석을 중심으로

조대연 | 전북대학교

I. 머리말

II. 울릉도의 지질배경

III. 분석방법

IV. 토기시료의 선정

V. 분석결과

VI. 고찰

VII. 맺음말

## 국문요지

이 글은 울릉도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와 통일신라양식토기의 생산 및 분배체계 변동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울릉도의 네 유적(현포리 고분군, 사동리 고분군, 천부동 고분군, 남서리 유물산포지)을 중심으로 64점의 토기시료를 확보하여 이 시기 적갈색 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의 생산기법과 원산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육지와는 다른 울릉도의 지질배경을 고려하여 토기암석학(Ceramic Petrography)을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상정되어 왔던 대로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의 생산분배체계가 서로 달랐다는 가정과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번 분석결과 연질토기는 울릉도 자체 생산품이며, 경질토기는 육지 유입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울릉도 토기의 지역 내 제작 기술에 있어서도 통시적 연속성이 관찰되고 있어서 주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울릉도에서 토기를 제작, 사용했던 집단의 성격 및 육지와 교류양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 I. 머리말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울릉도지역에서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삼국시대 후기 6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무렵부터 울릉도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삼국시대 후기 신라영역에 분포하는 신라토기이며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토기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신라후기양식으로 알려진 6세기 중엽 이후의 토기는 신라가 영역을 확장한 곳으로 널리 확산되어 들어간 특징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토기는 경주지역의 토기요지군을 중심으로 신라 중앙의 기종 및 기본형이 확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그 모델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경주를 중심으로 성립한 신라중앙양식토기의 확산이 토기 분배망의 확장인가, 아니면 양식의 확산 수용에 의해서인가 하는 문제는 관련 학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양식의 확산 혹은 토기의 분배교역망의 확대, 이 두 가지 신라토기 확산의 메커니즘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듯하다. 이를테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외에 신라후기양식 토기제작소는 보이지 않으며 6세기 전후에 해당하는 토기의 경우 지방의 생활유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제 지역에서 신라 중앙양식의 토기를 생산하던 지방요지가 확인되는 단계는 통일신라 시기부터이며 이때부터 토기의 분배망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라후기양식으로부터 통일신라양식의 토기가 성립하고 확산되는 과정은 반드시 토기 생산분배체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기 생산분배 체계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작기술의 엄밀한 복원과 원료점토의 산지별 분류와 동정에 기초한 산지추정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기시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울릉도에서 출토되는 신라후기양식과 통일신라양식의 토기 역시 그와 같은 생산분배체계의 변동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 울릉도지역 고고학 조사에서 토기의 생산분배체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었다. 일찍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울릉도 조사보

고서에서는 시굴조사로 수습된 토기를 적갈색 연질의 승문토기군(繩文土器群)과 회청색경질의 신라토기군(新羅土器群)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보고자는 전자를 김해식토기의 전통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울릉도가 본토와 왕래가 끊긴 이후에도 섬 안에서 계속 만들어 사용했던 토기로 생각하였다(김원용; 金元龍, 1963년).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팀은 적갈색 연질토기군을 재지산 토기로 단정하였고(서울대학교박물관, 1998년, 42-49) 토기태도의 현미경 사진과 X선 회절분석을 통해 울릉도산 점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과 접근 방법은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울릉도 재보고에도 다시 나타나 적갈색 연질토기의 울릉도 제작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경주 출토 토기와의 관련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홍영국 외, 2008년).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들에서 울릉도 토기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된 타당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적절한 분량의 토기자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시료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적갈색 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 출토 신라후기양식토기와 통일신라양식토기를 분석해서 울릉도의 생산분배 체계의 변동을 논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적갈색 토기와 회청색 경질 신라토기가 서로 생산분배체계가 달랐을 것이라는 전제는 충분히 염두에 둘 만한 제안이기에 이번 연구에서도 각각 일정비율로 시료의 표본을 정하였다. 그밖에도 제작기술이나 그릇의 용량, 기능 등에 따라서도 생산분배체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울릉도의 지질배경

이번 분석에 앞서 육지와는 다른 울릉도의 특수한 지질환경을 먼저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는 지형적으로 섬의 중심인 성인봉을 정점으로 해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절벽과 바위섬들을 형성하고 있다. 울릉도에 대한 지질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화되고 있는데(원종관·이문원, 1984년 ; Yoon, 1997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울릉도 일대의 지질은 현무암질 집괴암, 조면암질 집괴암, 조면안산암, 칼데라 퇴적층, 그리고 충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기범·이기동, 2008년)(그림 1).

현무암질 집괴암(Basaltic agglomerate)은 해부면 부근의 기저와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무암질 암편 위주이다. 조면암질 집괴암(trachytic agglomerate)은 하부의 현무암질 암류를 비정합적으로 덮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현무암질 암류와의 경계면에는 화산쇄설물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 조면안산암(trachy andesite)은 울릉도 화산활동 말기에 형성되었는데, 나리분지 내의 알봉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나리분지에 형성되어 있는 칼데라 퇴적층은 조면암질 암설, 모래, 화산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활동 종료 이후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충적층은 자갈, 모래, 점토로 구성되는 하성충적층과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모래, 자갈 위주의 해안충적층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산체로서 울릉도가 갖는 지질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는 차별적인 지질상이 나타나므로 울릉도는 고고학 연구에서 생산기술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토기의 원산지 분석을 통한 분배체계 연구에 이상적인 여

건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기자료에서 화산점으로서 울릉도의 생성과정과 관계가 없는 바탕흙이나 첨가제가 검출된다면 이는 외부 유입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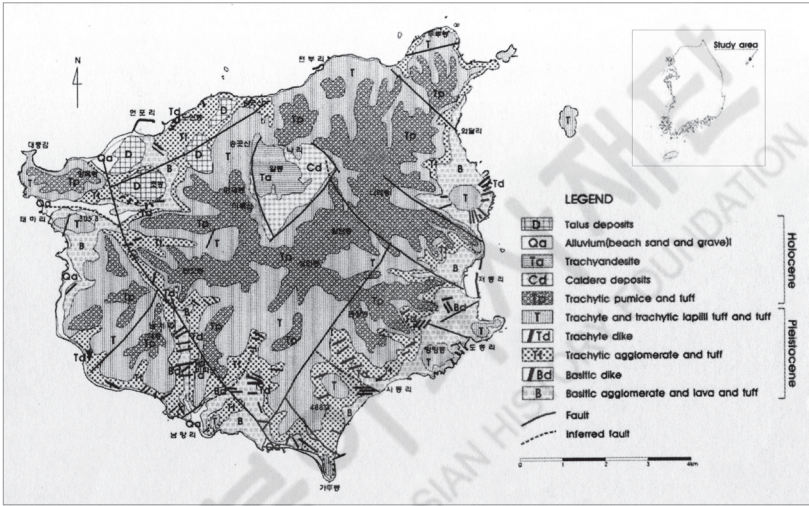


그림 1 울릉도의 지질환경 (김기범·이기동, 2008에서 인용)

### Ⅲ. 분석방법

#### 1. 개요

울릉도 토기의 생산기술과 유통양상 규명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토기의 양식론적 연구와 자연과학적 분석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작지에 따른 태토 구성비율의 토기암석학 분석(petrographic analysis)과 각 토기기종, 태토와의 상관관계가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 :** 토기자료 육안관찰 및 기종, 태토 분석

**2단계 :** 토기시료 샘플링 및 시료제작

**3단계 :** 본 분석

우선 위에서 밝 각 유적들에서 동일기종 중 표본 각 1~2점과 태토질에 따른 각 1~2점씩을 선별하는 작업을 행한다. 육안관찰의 주목적은 우선 분석대상 토기군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적 정형성(technical coherence)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변이하는가를 관찰하고 이에 따라 만약 발생할 지 모를 샘플링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샘플링 및 시료제작 후, 본 분석을 통해 토기의 소성분위기와 주태토(clay)와 혼입물(temper)을 판별하고, 회전판의 사용여부 및 정도 그리고 그 세부적 이용방식, 그리고 표면처리(마연, 타날, 물손질 등) 방법을 추출한 후, 마지막으로 소성분위기(atmosphere)를 편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한다. 구체적으로 일단 각 시료의 표면을 저배율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성형과 관

련한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기록한다. 현미경 관찰 단계에서는 5배, 15배, 20배, 30배의 배율을 일차적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50배, 100배 이상의 배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태토 및 혼입물의 토기암석학적 특징(Petrographic characteristics)을 추출하였다. 차후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기법과 X선 회절분석법은 울릉도 토기 제작기법의 특징, 특히 소성온도 및 표면처리 기법의 상세한 확인을 위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기법에서 화합물에 대한 분석(여기서는 SEM-EDX)을 실시하여 토기몸체 및 표면의 처리상태, 원료흙의 조정(manipulation) 방법, 슬립과 페인트 등 복잡한 제작기법들에 대한 규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박편(薄片, thin section) 관찰을 위해 시료로 제작되고 남은 각 시료의 나머지 부분은 차후의 연구를 위해 따로 보관된다.

## 2. 토기암석학 분석의 역할

생산기술 및 산지분석과 관련해서 토기암석학 분석은 우선 토기의 생산 기술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토기편에 존재할 수 있는 광물이나 암석편에 대한 동정을 위한 광학암석학(optical mineralogy)에 기반하고 있다. 광물학적 동정은 해당 토기시료를 기술하는데 중요하며, 점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첨가제의 변이는 이들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토기암석학 분석을 통해 당시 토기제작자들과 토기재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점토의 바탕흙(micromass)에 대한 광학적 활동상태(optical activity)를 파악하여 소성온도를 대략 알 수 있으며 해당 토기의 유리질화

(vitrification)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광물학적 분석을 통해 토기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슬립(slip), 페인트(paint)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바탕흙과 첨가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토기의 성형기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이러한 생산기술에 대한 접근과 아울러 토기암석학 분석은 산지분석과 관련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산지분석을 위해서는 제작기술의 영향을 극히 미미하게 받는 미량원소(rare elements)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미량원소는 지구상에 매우 적게 존재하고, 그 분포 역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기의 산지추정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토기 내의 미량원소 분석방법에서는 INAA(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 X선 유도 양자 방출법),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 XRF(X-ray Fluorescence : X선 형광분석법), SEM(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 전자주사 현미경 분석법) 등의 여러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분석 자료는 비교적 많은 수의 시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된다. 그렇다면 이번 자연과학 분석에서 미량원소에 대한 분석이 아닌, 토기암석학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살펴야 하겠는데, 이는 육지와는 다른 화산암지대라는 울릉도의 특수한 지질학적 환경에 기인한다. 즉 산지문제 규명에 있어서 토기암석학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산지의 첨가제 등에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광물이나 암석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탕흙 내의 첨가제가 울릉도와 같은 특이한 지질학적 환경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이를 통해 산지문제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확보해 나갈 수 있고 육지 토기와 비교 검토를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 토기에 대한 토기암석학 분석을 통해 울릉도 고대 토기의 유통양상에 대한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그 결과는 향후 이 방면 연구에 미량원소분석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3. 토기암석학을 통한 토기분류 원칙

토기암석학에서 토기구성의 세 요소는 광물·암석입자, 바탕흙, 기포이므로 울릉도 토기 분류도 철저히 이들 세 요소에 대한 관찰과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윗브레드의 분석체계를 최근의 경향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울릉도 토기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이 논문에서는 울릉도 토기의 개괄적인 토기암석학 분류결과만을 소개하였다.

첫째, 미세구조(Microstructure) 부분에서 토기의 제3요소인 기포들의 형태, 빈도, 크기, 배치상태와 간격이 반(半)정량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기포 내에 간혹 존재하는 각종 광물이나 유기물질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졌다.

둘째, 바탕흙(Groundmass) 부분에서 제2요소인 바탕흙이 직교니콜(XPL)과 개방니콜(PPL) 상태에서 그 색조와 광학적 활동성 여부가 평가되었다. 광학적 활동성이란 편광현미경의 재물대를 회전시킬 때 직교니콜(XPL) 상태에서 토기 바탕흙에 나타나는 소광(extinction)현상으로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토기가 소성되면 바탕흙의 유리질화 과정에 따라 900°C 이후 광학적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이를 기준으로 일차적인 소성온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입자(Inclusions) 부분에서 토기 내 광물·암석입자, 바탕흙, 기포 등 세 요소의 토기 내 분포비율을 계량화 지수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계량화를 위한 기준 도표는 매튜(Matthew 외 1991) 등이 제작한 비교차트를 이

용하였다. 제1요소인 광물·암석입자는 그 일반적 특징, 즉 형태, 원마도, 분포 간격(spacing), 반정량적 분포척도(frequency labels)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인위적 첨가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광물·암석입자들이 유니모달(unimodal)하게 분포하는지 아니면 바이모달(bimodal)하게 분포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나서 광물·암석입자들을 굵은 입자편(coarse fraction)과 미세한 입자편(fine fraction)으로 크게 나눈 후 각각에 대하여 광물·암석입자들의 관찰결과를 계량화된 분포지수에 따라 높은 순서부터 정하였다.

한편 부분에서 바탕흙 내에 존재하는 비(非)점토물질(Textural Concentration Features)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졌다. 이들은 grog(사용 후의 토기편을 파쇄하여 토기제작의 첨가제로 혼합한 것), 미세 진흙덩어리(clay pellets) 등이며 그것들의 반(半)정량적 분포빈도, 색조, 경계면의 뚜렷한 정도, 광학적 농도(density), 그리고 구성성분 등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그룹 내 토기들의 다양성이나 해당 그룹 내에 속하지만 다소 이질적인 토기들에 대한 평가를 했고, 해당 그룹과 다른 그룹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해당 그룹 토기의 생산기술 및 산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토기암석학 분석은 토기제작과 원산지문제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정보의 깊이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작기술에 있어서는 소성온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단지 900°C 내외를 넘는가의 여부 확인에만 국한되며, 산지문제에 있어서 이 방법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 분석의 율릉도와 같이 특정한 산지의 첨가제 등에 다른 곳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광물이나 암석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또한 율릉도 토기와 관련

해서는 아직까지 토기암석학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 유적의 모든 토기들을 대상으로 박편시료를 제작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후 주사전자현미경분석, X선 회절분석법, 그리고 미량원소분석 등을 통해 차후 보완할 예정이다.

## IV. 토기시료의 선정

이번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토기시료를 선별하였다.

- 1) 육안관찰을 통한 울릉도 토기자료 제작기술 검토
- 2)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울릉도 출토 토기 관찰 및 필요한 시료 파악<sup>1</sup>
- 3) 현지조사를 통한 분석 시료 확보(2009. 06. 15~2009. 06. 30.)
  - 울릉도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 현포리 고분군, 사동리 고분군, 천부동 고분군, 남서리 유물산포지 등을 중심으로 토기분석용 시료 확보
  - 기존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보된 시료를 비교, 자연과학 분석에 필요한 분석 시료 목록 구성 (그림 2, 표 1)

---

1 자료조사 결과 울릉도에서 채집되어 보고된 토기 중에 청동기시대 자료로 보고된 것들은 확실한 실체가 없으며 이들은 보다 후대의 자료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1998년 서울대 박물관에서 무문토기로 보고한 것들은 이번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신라시대 전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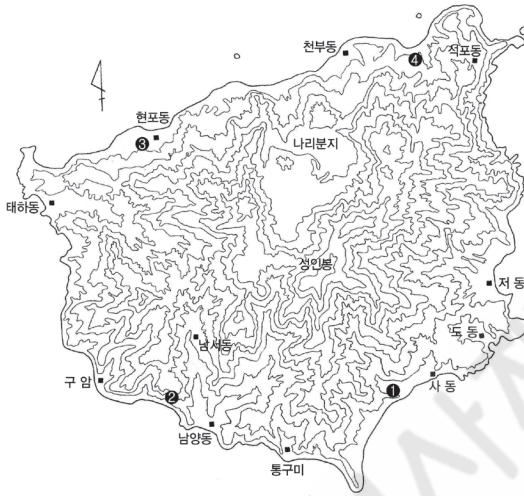


그림 2 울릉도 시료채집대상 유적 분포 현황

- ① 사동리 고분군                      ② 남서리 유물산포지
- ③ 현포리 고분군                      ④ 천부동 고분군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총 64점의 토기시료를 확보하여(자기 1점 포함)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A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토	사진	기타 특징
ULD1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흑갈색	연질	세사립		
ULD2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석립, 사립		
ULD3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적갈색, 내면/속심-흑색	연질	세사립		
ULD4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속심-흑색, 내면-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5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적갈색, 내면/속심-흑색	연질	사립		
ULD6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사립 다량		
ULD7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암황색, 내면/속심-흑색	연질	세사립		
ULD8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9	남서리 유물 산포지	구연부편	외면/내면-적갈색, 속심-흑색	연질	세사립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B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도	사진	기타 특징
ULD10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암황색, 내면/속심-흑갈색	연질	세사립		
ULD11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흑갈색, 내면/속심-흑색	연질	세사립 다량		
ULD12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내면- 흑갈색, 속심-흑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13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속심- 암갈색, 내면/속심- 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14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암청색	경질	세사립		문양
ULD15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암청색	경질	세사립		내면- 정면 흔적+ 문양
ULD16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내면- 암청색, 속심-임갈색	경질	세사립		
ULD17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내면- 암청색, 속심-암자색	경질	세사립		
ULD18	남서리 유물 산포지	동체부편	외면-암자색, 내면/속심- 적갈색	경질	세사립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C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토	사진	기타 특징
ULD19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흑갈색, 내면/속심-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다량		타날문
ULD20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내면- 적갈색, 속심-흑갈색	연질	세사립		타날문
ULD21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흑갈색	연질	석립, 사립		타날문
ULD22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23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사립, 세석립		
ULD24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속심- 암적갈색, 내면-적색	연질	세사립		
ULD25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타날문
ULD26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내면- 흑갈색, 속심-흑갈색	연질	석립, 사립		타날문
ULD27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명갈색, 내면-흑색, 속심-회백색	연질	세사립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D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도	사진	기타 특징
ULD28	천부동 고분군	저부편	흑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29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회백색	연질	사립, 세사립		타날문
ULD30	천부동 고분군	구연부편	외면/내면- 흑색, 속심-회백색	경질	세사립		
ULD31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회백색	경질	세사립		
ULD32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흑색, 내면/속심- 갈색	경질	세사립		타날문
ULD33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회백색	경질	세사립		내면- 정면 흔적
ULD34	천부동 고분군	구연부편	외면/내면- 적갈색, 속심-회백색	경질	세사립		
ULD35	천부동 고분군	동체부편	암청색	경질	세사립		
ULD36	천부동 고분군	구연부편	녹황색	자기	세사립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E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도	사진	기타 특징
ULD37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세사립		타날문
ULD38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적갈색, 내면/속심- 암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39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석립, 사립		
ULD40	현포리 고분군	저부편	외면/속심- 암갈색, 내면-적갈색	연질	사립		
ULD41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황색	연질	세사립		
ULD42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43	현포리 고분군	구경부	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44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다량		타날문
ULD45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타날문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 F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도	사진	기타 특징
ULD46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47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속심- 흑색, 내면-적갈색	연질	세사립		
ULD48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흑갈색	연질	세사립		
ULD49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갈색	연질	세사립		타날문
ULD50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속심- 회백색, 내면-암갈색	경질	세사립		
ULD51	현포리 고분군	동체부편	회백색	경질	세사립		외면/ 내면- 타날문 흔적
ULD52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타날문
ULD53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사립 다량		
ULD54	사동리 고분군	구연부편	적갈색	연질	사립 다량		

표 1 울릉도 토기분석 시료목록G

분석 번호	유적명	부위	색조	경도	태도	사진	기타 특징
ULD55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적갈색	연질	사립 다량		
ULD56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암갈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57	사동리 고분군	저부편	흑색	연질	사립, 세사립		
ULD58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내면- 흑색+회백색, 속심-회백색	연질	세사립		
ULD59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회백색	경질	세사립		타날문
ULD60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회청색	경질	세사립		내면- 문양
ULD61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회갈색	경질	세사립		타날문
ULD62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회청색	경질	세사립		
ULD63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흑색, 내면/속심- 회청색	경질	세사립		자연유
ULD64	사동리 고분군	동체부편	외면-흑색, 내면-암청색, 속심-임자색	경질	사립		돌대, 내면- 타날문 흔적

## V. 분석결과

토기암석학에 의한 분석 결과, 토기들은 <표 2>와 같이 모두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그룹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2 토기암석학에 의한분류 결과<sup>2</sup>

분류	명칭	부위
그룹 1	현무암 그룹 (Basalt fabric)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4, 37, 38, 40, 42, 43, 44, 45, 46, 47, 48, 49, 52, 53, 54, 55, 56
그룹 2	화산쇄설성 퇴적암 그룹 (Volcaniclastic rock fabric)	29, 39
그룹 3	변성암 그룹 (Metamorphic rock fabric)	9, 14, 17, 30, 31, 32, 33, 35, 41, 50, 51, 58, 61, 62, 64
그룹 4	소립자 광물, 점토 그룹 (Fine fabric)	15, 16, 18, 36, 59, 60, 63

### 1. 그룹 1 – 현무암 그룹(Basalt fabric) <그림 3, 4, 5>

이 그룹은 현무암의 첨가체가 특징적인데<sup>3</sup>, 현무암의 구성 광물은 사장석, 석영, 감람석, 휘석, 그리고 불투명 광물 위주이다. 이 중 현무암에서 석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다. 이러한 석영의 비율이 시료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료들의 경우 석영 비율이 높아 석영안산암(dacite)에 해당될 만한 것들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이 그룹에 포함시켰다. 이 그룹 입자들의 분급은 일반적으로 불량하며(poorly

2 시료 57은 박편으로 제작된 샘플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홍영국 외, 2008) 등은 14점의 울릉도 토기 분석 결과, 출토 토기에서 석질 응회암의 존재를 부각시켰으나, 이번 분석에서 필자는 토기의 첨가체와 바탕흙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무암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sorted), 크기에 따른 입자들의 분포양상이 그래프 상에서 두 개의 최고점을 나타내므로(B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Orton et al. 1993 ; Velde and Druc 1999년 참조) 광물·암석 입자들은 첨가제로 인위적으로 혼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탕흙이 시료마다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면 시료 24번의 경우 <그림 5>에서 보듯이 바탕흙이 적갈색 색조를 띠) 대개 화산암 기원의 광물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과 비교해서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첨가제가 비교적 작은 것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대립자<sup>4</sup>의 광물, 암석 입자 위주이다. 소성온도에 있어서는 이 그룹 대부분은 바탕흙이 광학적으로 활동적이므로 대개 900℃ 이하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평가된다(Whitbread, 1995년 참조).

이 그룹에 속하는 토기는 모두 39점으로 이번에 분석된 토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그룹에 속한 토기 대부분이 연질토기에 해당되며, 이 그룹 중 경질토기는 단 1점(시료 34)에 불과하다. 이 한 점도 적갈색 토기로는 드물게 단단하여 경질토기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그룹은 연질토기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 그룹 토기의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울릉도 일대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울릉도 자체 생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드물게 육지 내 다른 화산암 관련 특정 소스나 완제품이 울릉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이 그룹이 분석 시료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비율과 연질토기가 주로 실생활용으로 해당 지역에서 제작, 보급되기 쉬운 측면을 고려해 보면 그 가능성은 미미하다. 덧붙여 이 그룹 내 토기들 간에 광물상 및 바탕흙의 변이도 나타나므로 울릉도 내의 원료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소(小), 중(中), 대(大)입자의 구별은 본 유적 시료들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인 분류안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소(小), 중(中) 입자의 경계는 대체로 0.5mm, 그리고 중(中), 대(大)입자의 경계는 대체로 2~3mm 내외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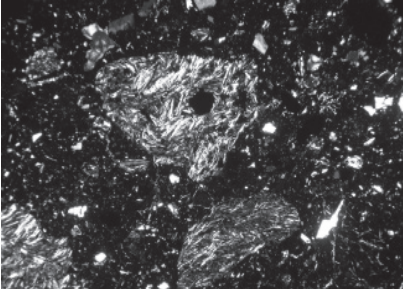


그림 3 그룹 1(시료56) 가로 7.0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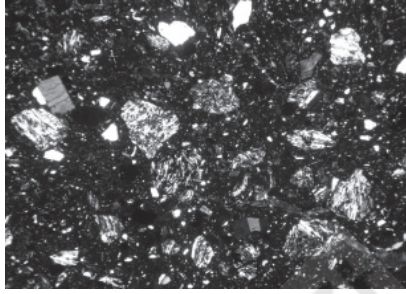


그림 4 그룹 1(시료43) 가로 7.0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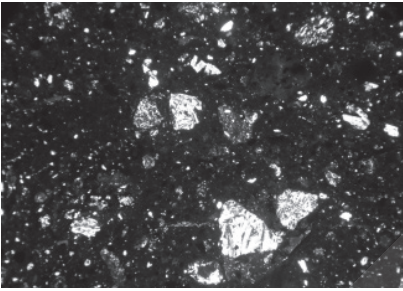


그림 5 그룹 1(시료24) 가로 7.0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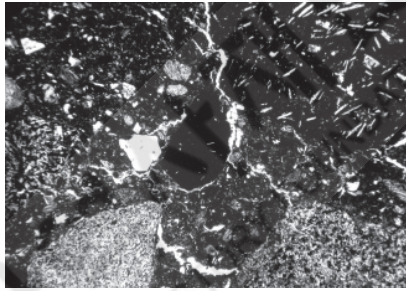


그림 6 그룹 2(시료39) 가로 7.00mm P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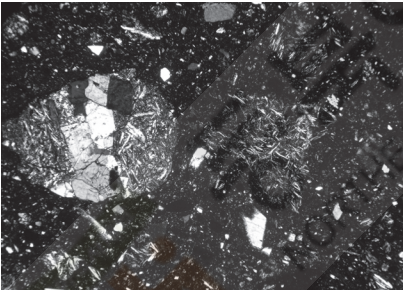


그림 7 그룹 2(시료29) 가로 7.0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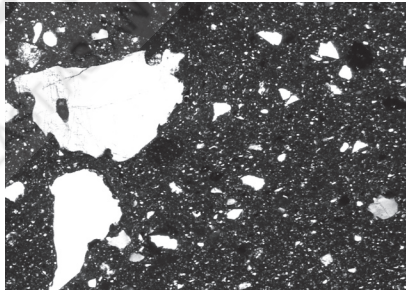


그림 8 그룹 3(시료33) 가로 3.5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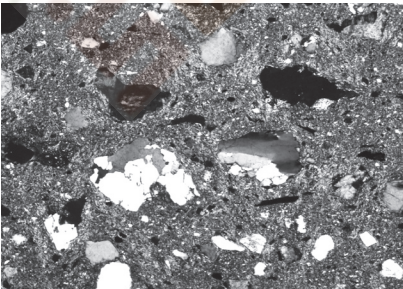


그림 9 그룹 3(시료41) 가로 3.5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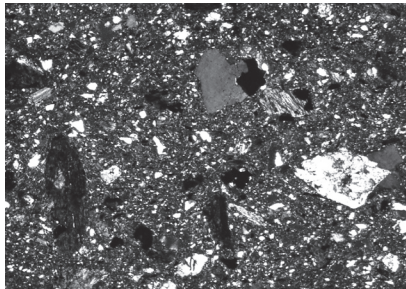


그림 10 그룹 3(시료50) 가로 3.5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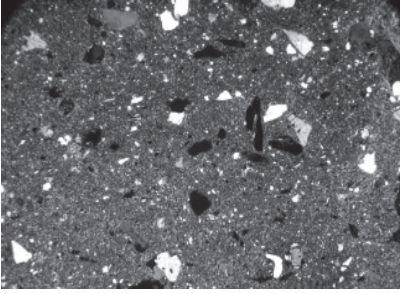


그림 11 그룹 3(시료58) 가로 3.5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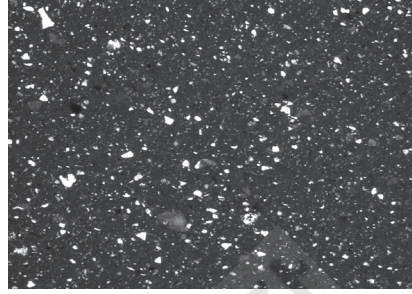


그림 12 그룹 4(시료36) 가로 3.50mm X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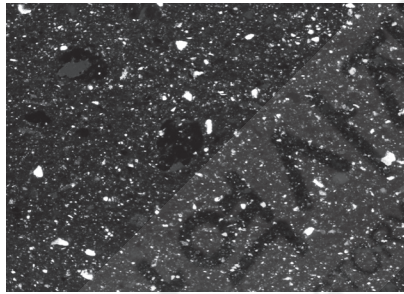


그림 13 그룹 4(시료60) 가로 3.50mm XPL

## 2. 그룹 2 - 화산쇄설성 퇴적암 그룹(Volcaniclastic rock fabric)

〈그림 6, 7〉

시료 29, 39는 화산 기원의 입자들로 되어 있는 대(大)립자 퇴적암(역암)이 나타나고 있어 따로 분류하였다. 암편은 주로 현무암이어서 그룹 1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진다. 광물 및 암석입자들의 형태는 거칠며(angular) 분급도는 불량한 편이다(poorly sorted). 크기에 따른 광물·암석 입자들의 분포양상이 두 개의 최고점을 나타내므로(B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 광물·암석 입자들은 첨가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온도에 있어서는 그룹 1과 마찬가지로 바탕흙이 광학적으로 활동적이므로 900°C 이하에서 구워졌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원료산지에 있어서는 역시 그룹 1과 같이 일단 울릉도 자체 생산품이라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그룹 3 - 변성암 그룹(Metamorphic rock fabric)

〈그림 8, 9, 10, 11〉

이 그룹에는 편마암 계열의 석영과 장석편이 주로 관찰되어 따로 분류하였다. 〈그림 8, 9, 10, 11〉에서 보듯이 입자들의 크기에는 변이가 있으나 첨가체가 대개 사용되고 있다. 그룹들 간에 첨가체, 바탕흙의 종류와 분포양상에 있어서 변이가 심해 차후 세분할 필요가 있다(〈그림 8, 9, 10〉 - 변질된 석영과 장석, 〈그림 11〉 - 흑운모, 감람석 위주). 이 그룹은 관찰 결과 바탕흙 입자들이 광학적으로 대체로 비활동적(optically inactive)이므로 대개 900°C 이상에서 소성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물론 〈그림 9〉와 같이 예외도 있다). 또한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산체인 울릉도의 지질배경을 고려할 때 변성암 계열인 이 그룹 토기들이 울릉도 자체 생산품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외부에서 유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그룹의 확실한 산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그룹에 속하는 토기는 모두 15점으로 대부분 경질토기이며, 연질에 해당되는 것은 시료 41, 58 등 두 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룹 3과 경질토기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4. 그룹 4 - 소립자 그룹(Fine fabric)

〈그림 12, 13〉

이 그룹은 미세 점토 덩어리의 고른 분포가 두드러진 반면 중(中) 혹은 대립자의 광물, 암석 입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편광현미경 관찰에서 소립자의 석영과 장석과 함께 광물 입자들의 분급이 양호하며(moderately sorted) 그 분포양상이 하나의 최고점을 나타내므로(Un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세 점토 덩어리가 풍부한 고운 바탕흙을 선별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그룹에 속하는 토기는 7점인데 이들은 모두 단단한 경질토기이거나 자기 1점(시료 36)으로 대단히 고화도에서 소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광물·암석편이 미미하여 이 그룹의 산지가 울릉도 내인지는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화산암 계열 입자들이 전혀 없고, 바탕흙에 있어서도 울릉도 자체 생산품으로 간주되는 그룹 1, 2와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볼 때 외부 유입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덧붙이자면, 이 그룹 내에서도 구성 광물이나 미세 점토 덩어리의 변이가 심해 이 그룹의 토기가 동일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같다.

## VI. 고찰

### 1. 연질토기와 경질토기의 관계

토기암석학에 의해 설정된 그룹 중 그룹 1, 2는 연질토기와 그룹 3, 4는 경질토기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예외에 속하는 사례는 단 세 점에 불과한데(그룹 1의 시료 34와 그룹 3의 시료 41, 58) 그룹 1의 시료 34는 적갈색이지만 경질토기여서 소성과정의 예외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룹 3의 시료 58은 흑색토기라는 보기 드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대로 그룹 1, 2의 연질토기는 현무암 계열로 화산암

체인 울릉도의 형성배경을 고려하면 울릉도 자체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고, 반면 그룹 3, 4의 경질토기는 변성암 계열로서 울릉도의 지질상과는 관련이 거의 없으므로 외부 유입품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단지 시료 41만이 연질토기로서 외부 유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연질토기와 경질토기는 사실상 독자적 그룹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상이한 유통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양자의 생산기술 차이, 특히 첨가제 및 바탕흙 선택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다.

## 2. 유적들 간 출토 토기의 차이

이번 분석을 통해 설정된 그룹들은 울릉도 내 유적들에서 고루 확인되고 있다. 즉 남서리 유물산포지 18점, 천부동 고분군 17점, 현포리 고분군 15점, 사동리 고분군 13점의 시료가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 시료수가 가장 많은 그룹들인 그룹 1과 그룹 3의 시료들이 각각 남서리 12점, 4점, 천부동 11점, 3점, 현포리 11점, 3점, 사동리 4점, 5점 등으로 고루 확인되었다. 이 중 사동리 유적의 경우 애초부터 높은 비율의 경질토기가 수습, 분석되었음을 감안하면 다른 유적들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즉 토기암석학에 의해 설정된 그룹들은 울릉도 내의 유적들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릉도 제작 토기로 상정할 수 있는 연질토기가 주를 이루는 그룹 1의 토기가 각 유적들에서 고루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 내 토기 제작에 있어서 거점이 될 만한 지점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울릉도에서 제작된 토기들이 단일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나, 한편으로 유적들이 입지한 울릉도 저지대 해안가의 지질상이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에 차후 분석을 통해 이를 변별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 3. 토기 생산기술의 변화 양상

이번 분석에서 다루어진 토기자료는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것이므로 이들을 신라후기양식 토기와 통일신라양식 토기로 명확히 나누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네 유적 중 현포리 고분군, 사동리 고분군, 천부동 고분군 등은 수백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참고하면(본 저서의 이성주 교수 글 참조) 이번 분석결과와는 이 유적들의 존속 기간 동안 토기 생산기술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된 (적갈색)연질토기들은 태토에 굵은 사립이 비교적 많이 섞여 있어 육안 상으로도 두드러졌는데, 토기암석학 분석 결과 이들은 대개 그룹 1에만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어서 첨가제와 바탕흙 선택 및 배합에 큰 변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즉 이 고분유적들의 존속기간 동안 연질토기 관련 기술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울릉도 자체 생산 토기(연질토기)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 특히 원료조달 및 첨가제, 바탕흙 배합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차후 발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시기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VII.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신라후기양식토기와 통일신라양식토기의 생산 및 분배 체계 변동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토기암석학을 이용해 울릉도 토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정되어 왔던 대로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생산 및 분배체계가 달랐다는 가정과 매우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울릉도 토기의 자체 생산기술의 측면에서도 통시적 연속성이 관찰되고 있어서 주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석 시료가 지표 조사 자료라는 한계로 인해 토기의 출토 맥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유적별로 제한된 수의 토기시료만이 분석되어 논리 전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이 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울릉도 토기의 생산 및 분배 체계연구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차후 울릉도와 관련 지역 출토 토기에 대해 자연과학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지역 토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과정을 소상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에서 토기를 제작, 사용했던 집단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거시적 차원의 정치, 사회적 변동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기범·이기동(2008), 「울릉도의 화산층서와 단층에 대한 연구」,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18-3.
- 金元龍(1963),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4冊.
- 서울대학교博物館(1998), 『鬱陵島 - 고고학적 조사연구』, 서울대학교博物館博物館學術叢書 6.
- 원종관·이문원(1984), 「울릉도의 화산활동과 암석학적 특성」, 『지질학회지』 20.
-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1), 『1:250,000 강릉 - 속초 지질조사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홍영국·이승구·유혜선(2008), 『울릉도』, 국립중앙박물관.
- Orton, C., Tyers, P., and A. Vince(1993), *Pottery in 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Velde, B. I. Druc(1999), *Archaeological Ceramic Materials : Origin and Utilization*. New York.
- Whitbread, I. K.(1995), *Greek Transport Amphorae, A Petrological and Archaeological Study*, Fitch Laboratory Occasional Paper 4, London : British School at Athens.
- Yoon, S.(1997), “Miocene-Pleistocene volcanism and tectonics in southern Korea and their relationship”. *Tectonophysics* 281.

---

#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

윤상덕 | 국립경주박물관

- 
- I. 머리말
  - II. 시기구분
  - III. 상대편년
  - IV. 절대편년
  - V. 맺음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국문요지

이 시기의 고고학 자료는 생활유적이 많고, 분묘도 대부분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한 구조여서 편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석곽묘(石槨墓)와 같이 매납동시성(埋納同時性)이 확보된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6~7세기의 신라토기 편년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성이 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주중심지역의 유적 및 경주와 교통로로 연결된 형산강 하구(兄山江河口) 인근의 유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고배(高杯), 병(瓶) 등 주요 기종의 형식변천 양상을 밝혔고, 공반관계 분석을 통해 유물과 문양의 편년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인화문(印花文)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대부병(臺附瓶)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공존 양상 및 시간폭을 제시하였다. 대부병은 A~F 형식까지 6개의 형식으로 분류되었는데 대부병의 기형은 일정한 방향 아래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인화문의 경우 여러 형식에서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화문 초기형인 그은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과 짙은 원문류(圓文類)가 조합되는 문양은 A~D형까지 사용되어 그 존속기간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2/4분기의 이른시기까지 약 50년 정도, 그리고 삼각집선문과 원문류를 모두 짙은 문양은 B~E형에 사용되어 7세기 1/4분기~3/4분기까지, 마지막으로 수적형문(水滴形文)은 D, E형에서 7세기 2/4~3/4분기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문양들이 적어도 5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화문만을 이용한 편년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차산성 성벽(峨嵯山城 城壁) 다짐층 출토 인화문토기를 통해 6세기 후엽에는 인화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부여

지역 정림사지(定林寺址) 연지(蓮池)유적과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출토 인화문 자료를 전형적인 종장연속문(縱長連續文)의 앞 단계로 보고 수적형문과 동시에 공존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토기 시기구분안(時期區分案)을 제안하면서 단각고배가 출현하고 인화문이 발생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3/4분기까지를 '신라중기양식토기'로 설정하였다.

## I. 머리말

6~7세기 신라토기의 편년은 몇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석목곽묘가 사라지고 석실묘(石室墓)를 광범위하게 채용하면서 이전 시기와 같이 토기의 공반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출토수량도 크게 줄었고 기형을 모두 알 수 있는 유물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편(片)만으로도 단계적인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인화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편년은 인화문을 통해 오히려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출토수량의 감소로 인한 자료의 부족은 어느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편년을 어렵게 하여, 영남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묶어서 편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필자는 이와 같이 여러 지역의 자료를 묶어서 편년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6~7세기 신라토기의 편년을 위해 단일 무덤군(방내리 고분

군) 출토품을 대상으로 상대편년(相對編年)을 시도한 바 있다(尹相惠, 2001년). 그러나 방내리 고분의 6~7세기 무덤은 대부분 석실묘나 횡구식석곽묘로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이었고, 이 무덤들을 제외하면 다룰 수 있는 유물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득이 이들을 모두 대상에 넣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종구분이나 형식설정에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추가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출토유물의 위치가 군집을 보일 경우 이를 추가장의 결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추가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결국 유물의 공반관계를 통한 상대편년을 하기 위해서는 매납 동시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매납동시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지역을 한정하여 경주와 경주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6~7세기 신라토기로 하였다. 공반관계 분석을 위한 대상유구의 선택은 앞서 서술한대로 ‘매납(폐기)동시성’이 확보된 유구로 하였다.<sup>1</sup>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횡구식 무덤은 배제하고 적석목곽묘나 수혈식석곽묘 위주로 선정하였다.<sup>2</sup> 신당리 35호 수혈과 같이 비록 무덤은 아니지만 동시에 매납된 것이 분명한 자료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 중 공간적인 부분은 지역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로 한정하였다. 경주는 신라토기 양식 변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경주 중심권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무덤, 또는 유구로 추정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월성로 고분군(月城路 古墳群), 황남동 106-3번지 고분군(皇南洞 106-3番地 古墳群), 인왕동 유적(仁旺洞 遺蹟),

---

1 대상으로 한 전체 유적 목록은 <표 7>을 참조.

2 일부 횡구식석곽 등이 (수혈식)석곽묘로 보고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덤 전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최대한 보고자의 견해를 따르되 추가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동천동 화장묘(東川洞 火葬墓), 손곡동·물천리 유적(孫谷洞·勿川里 遺蹟)(경마 장예정부지), 월산리 유적(月山里 遺蹟), 방내리 고분군(芳內里 古墳群), 울동 1108번지 고분군(栗洞 1108番地 古墳群) 등이다.<sup>3</sup> 그 결과 6세기와 7세기 초까지의 편년은 상당 부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곽묘 등으로 한정된 결과 7세기대의 자료가 크게 부족하여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추가로 경주 중심권역은 아니지만, 경주와 인접하여 경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포항 지역의 무덤 출토품을 포함하여 보완하였다. 이들은 경주 중심지에서 최대 30km 떨어진 고분군으로 경주와는 형산강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경주 중심지의 생산품이 이동되거나 중심지의 양식 변화를 시간차 없이 공유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즉 형산강은 신라가 동해안으로 진출하기에 가장 용이한 교통로로, 특히 형산강 하구는 넓은 충적 평야를 낀 지역으로 중요 거점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sup>4</sup> 이번엔 분석 대상인 포항 학천리 유적(浦項 鶴川里 遺蹟)은 형산강 하구의 북쪽인 흥해에 위치하고 인덕동 유적(仁德洞 遺蹟)은 하구 남쪽에 인접해 있어 일찍부터 신라 중심 세력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6세기에서 7세기이지만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중기양식토기<sup>5</sup>의 편년에 주안점을 두었고, 중기양식으로의 전환과정 및 소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양식의 마지막 시기와 후기양식의 첫 시기도 함

3 모두 경주 월성을 기준으로 반경 12km 안에 위치한다.

4 형산강 하구가 교통과 외적 방어를 위한 중요 지점이었음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2년(459)조에 왜(倭)가 병선 100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여 월성까지 침입하였는데 이를 물리쳐 도망치는 왜를 북쪽 바다 어귀까지 뒤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왜의 도주로가 형산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기사 등을 볼 때 형산강 하구는 외적의 방어와 교통로로서 중요한 지점이었음이 분명하다.

5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 참조.

께 다루었다.<sup>6</sup>

연구방법은 이전 논문(尹相憲, 2001년)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증 구분은 전고의 안을 따랐다. 가장 먼저 형식분류를 하였다. 형식분류에는 매납동시성이 확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석실묘 출토품도 폭넓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역시 대상지역은 가능하면 경주와 경주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형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비율척도(比率尺度)로 나타낸 후 여기서 통계적 분석에 의해 명목속성을 도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sup>7</sup> 그러나 유개식고배의 대각형태 변화나 뚜껍의 꼭지형태와 같이 비율척도로 나타내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명목속성을 이용하였다. 순서배열은 전고에서는 개별속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걸음 나아가 형식을 기준으로 편년작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순서배열을 할 때에는 매납동시성이 확보된 유구를 단위로 하여 형식 간 공반관계를 파악하고 상대편년안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정된 각 단계에 절대연대를 부여하였다. 절대연대 자료는 기존에 많이 다루었던 것 중 이견이 없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황룡사 기단축토층의 연대나 대가야 지역 고분 출토 신라토기 자료 등이 그것이다. 새롭게 아차산성 성벽 다짐층 출토 자료를 인화문의 출현과 관련해서 소개하였고,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중국 동위(東魏)의 이희중 부부

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기양식토기의 상대편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전기양식의 마지막 단계는 소략하게 되어 있어 중기양식토기로의 전환과정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여기서는 李盛周(1993)가 설정한 후 李熙濬(1998)에 의해 정리된 전기양식토기의 상대편년안을 토대로 마지막 단계(IV기)의 세부적인 양상을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7 洪潛植은 비율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필자가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비율척도의 사용이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른 이 시기의 유물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2004, 54쪽). 필자가 유물의 속성을 비율척도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명목속성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인 편년방법에 대한 것으로 유물의 변화 속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객관화를 위해 가능하면 비율척도로 나타낸 데이터에서 명목속성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묘(李希宗 夫婦墓)에서 출토된 자료를 연대 추정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660년의 백제 멸망 후에 부여 지역에 유입된 자료를 재해석하였고, 황성동 석실분 출토품을 연대추정에 반영하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II. 시기구분

고고학 자료의 편년은 대상으로 하는 물질문화를 세세하게 쪼개어 살펴보고, 동시에 각각의 속성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묶어서 커다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작업을 통해 시기구분을 하고 각 시기의 문화양상을 정의하기도 한다. 신라토기의 편년은 세부적인 편년작업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기구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대구분 용어의 변천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간단하게 검토한 바 있으므로(尹相惠, 2004년) 여기서는 최소화하고 시대구분 용어의 수정 필요성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

崔秉鉉(1992년)이 '신라전기양식토기-신라후기양식토기(新羅前期樣式土器-新羅後期樣式土器)'로 신라토기의 시대구분을 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고신라토기'와 '신라통일양식토기'로 시기구분하는 것에 대해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신라토기 양식변천의 추이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쳐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sup>8</sup> 아울러 고분문화를 기준으로 한 ‘조기(토광묘기) - 전기(적석목곽분기) - 후기(횡혈식석실분기)’의 시기구분도 토기양식의 시기구분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라후기양식토기’에 대한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신라후기양식’이 지칭하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 신라멸망까지의 긴 시기는 이제 하나의 양식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묘제의 경우를 보아도 횡혈식석실묘가 유행한 후에 화장묘가 이를 대체하여 조영되었고,<sup>9</sup> 토기 문화도 몇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9세기 이후의 시기는 ‘나말여초토기(羅末麗初土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朴淳發, 1998년).<sup>10</sup> 이렇게 ‘신라후기양식토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용어의 혼란도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6세기 중엽 이후를 3시기로 나누는 안을 간단하게 제시한 바 있다(尹相惠, 2004년, 101쪽). 여기서는 당시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시기구분 시안(試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기’는 최병현(崔秉鉉)의 안을 따르고 그의 ‘후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총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또한, 각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는 ‘전기-중기-후기-말기’와 ‘신라전기-신라후기-통일신라전기-통일신라후기’ 두 안을 제안한 바 있다.<sup>11</sup> 두 안을 검토해 보면, 우선 전자는 신라문화의 발전과 쇠퇴를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라

8 90년대 이전의 논의는 崔秉鉉(1992), 661~664쪽 참조.

9 물론 대형의 왕릉급 석실묘는 화장묘와 함께 통일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주된 묘제는 화장묘인 것으로 보인다.

10 이 논문에서도 ‘6~7세기’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편년대상으로 한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후반까지의 시기는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토기 양상을 보여주나 이 시기를 지칭하는 적당한 용어가 없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2004년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공동주제발표.

문화의 전성기를 ‘후기’라는 용어로 부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 후자는 시대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우나 역사적 사건을 물질문화의 시대구분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기 연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점은 있지만 전자를 따라 신라토기를 ‘신라전기양식토기’에서 ‘신라말기양식토기’까지 4시기<sup>12</sup>로 구분하고자 한다.<sup>13</sup>

표 1 신라토기의시기구분 시간

분 기	내 용	시 기
전기양식	신라토기 분립, 장각고배, 적석목곽묘, 정립기	4C 후반~6C 전반
중기양식	단각고배, 인화문 시문 시작, 석실묘, 발전기	6C 중엽~7C 3/4
후기양식	대부알·대부병, 화려한 인화문, 석실묘·화장묘, 발전기	7C 4/4~8C 말
말기양식	각종 병류, 대형옹류, 인화문 시문 감소·무문화, 화장묘, 쇠퇴기	9C 초~10C 전반

중기부터 각 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중기는 단각고배(短脚高杯)가 출현하는 6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7세기 3/4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토기에 인화문을 찍기 시작한다. 후기는 토기 전면에 화려한 인화문을 넣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화문은 하나의 도장에 문양을 연속해서 새겨서 찍었다. 각종 고배류는 소멸하고 합(대

12 신라토기 분립 이전 단계로 ‘조기(早期)’를 설정하여 5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최병현(1992)은 신라·가야토기로 분화하기 이전의 영남 공통양식을 ‘조기양식’(토광목곽묘단계 후기토기)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신라조기양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양식 속에 ‘신라양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 유물복합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결되는 집단이 사로국인지 진한인지, 그리고 이들이 ‘신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주 지역의 이 시기 유물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물음에 분명하게 답하기가 어렵다. 후후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13 山本孝文도 신라토기 시기구분안을 제안하였다(2007). 그도 ‘전·중·후·말’로 구분하고 있는데 후기양식의 시작시기 등 일부 이견이 있으나 시기구분 용어와 내용 등에서 대체로 필자의 의견과 비슷하다.

부완)과 대부병, 안턱이 있는 입(入)자형뚜껑이 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석실분은 최상위층의 대형 무덤으로 일부 남아 있으나 그 외의 무덤 자료는 크게 줄어들었다. 화장(火葬)이 발달하여 생긴 현상으로 보이며, 인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골호(骨壺)도 많이 보인다. 후기는 7세기 4/4분기부터 8세기 말로 설정하였다. 말기는 9세기초에서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10세기 전엽까지이다. 주름무늬병과 각진병 사면편병(四面扁瓶), 일면편병(一面扁瓶) 등 각종 병류와 목에 파상문이 있는 대형옹이 유행하는 시기이다. 주름무늬병과 같은 기종에 간단한 인화문이 남아 있고, 인화문이 일부 남아 있는 예가 있으나 후기에는 원화십년(815) 명토기의 예와 같이 인화문이 찍히지 않는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론에서는 위 시기구분 시안에 입각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위 용어는 잠정적인 것으로, 용어와 내용, 시기 등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향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Ⅲ. 상대편년

#### 1. 문양분류

전고의 분류안을 기본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6~7세기에 나타나는 인화문을 시문방식과 형태의 차이에 의해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I단계는 삼각

집선문류와 원문류의 조합단계로 두 문양이 모두 그은 문양인 것(IA), ‘그은 삼각집선문’과 ‘찍은 원문류’가 조합되는 단계(IB), 그리고 모두 찍은 문양인 단계(IC)로 나누었다. IB단계부터 인화문단계라고 할 수 있다. II단계는 수적형문류와 원문류가 조합되는 단계로 여기까지는 토기 표면 일부에만 ‘부분시문(部分施文)’되는 단계다. 그리고 III단계는 원문류가 토기 표면 전체에 시문되는 ‘전면시문(全面施文)’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IV단계는 표면 전체에 종장연속문이 시문되는 단계이다. 다시 시문구의 형태에 따라 도장 하나에 하나의 문양(또는 조합)만 있는 것과, 도장 하나에 둘 이상의 문양 단위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개별시문(個別施文)’, 후자를 ‘연속시문(連續施文)’이라고 하겠다. 개별시문은 I~III단계의 시문방법이고 연속시문은 IV단계에 나타나는 시문방법이다. 결국 I, II단계는 ‘개별·부분시문’, III단계는 ‘개별·전면시문’, IV단계는 ‘연속·전면시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인화문 문양 분류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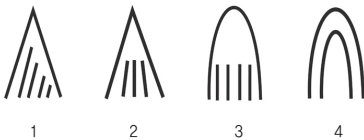
- 원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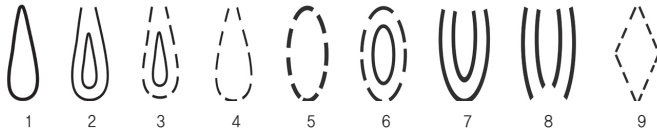
a형은 그은 문양, b형부터는 찍은 문양이다.

- 삼각집선문류

삼각집선문 중 찍은 문양은 아래와 같이 네 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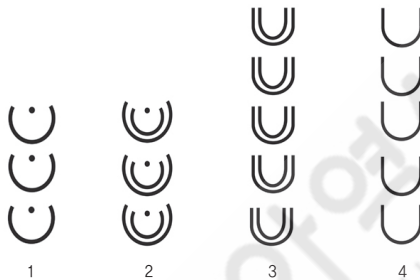


- 수적형문류



- 종장연속문류

이 시기의 종장연속문은 발생 단계로 문양이 비교적 단순하다.



종장연속문은 원문류가 개별·전면시문을 거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宮川禎一, 1993년). 위 분류는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반영하였다. 1, 2형은 아직 원문류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하나의 시문구에 2~3개를 새겨서 찍는 경우가 많다. 3, 4형은 문양이 도식화되면서 'U'자형으로 변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종장연속문의 시작을 보여준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1, 2형에서 3, 4형으로의 변화를 설정하고 있다. 종장연속문에는 이 외에 다양한 문양이 있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인 6~7세기에 한정하여 여기서는 네 가지로만 분류하겠다.<sup>14</sup>

14 종장연속문의 세분화된 분류는 李東憲(2008)이 제시하였다. '밀집시문'에서 '종장연속문'으로 발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 2. 기종별 형식분류

### 1) 병류

구형병(球形瓶)은 짧은 주둥이가 붙고 바닥이 말각평저(抹角平底), 또는 환저(丸底)인 병이다. 전기양식토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후반부에 조금씩 출토된다. 특히 6세기에 많이 보인다. 대부분은 이 시기에 새롭게 출현하는 기종으로 기형 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형식 내 기형의 통일성이 높다. 특히 구형병과 함께 분석하면 구형병에서 대부분으로 대체과정 및 세부 변화양상을 알 수 있어 6~7세기 편년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다.

구연부(口緣部)의 형태는 구형병과 대부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구연부는 크게 단순한 것(1형)에서 반부(盤部)가 형성되는 것(2형)으로 변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먼저 단순하게 외반하는 것(1a형), 단순하게 외반하나 구단부에 침선을 넣은 것(1b형), 경부가 약간 직립하다가 구단부가 수평으로 짧게 벌어지는 것(1c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반부가 형성된 것에는 그 초기형으로 구순이 살짝 꺾여 올라간 것(2a형), ‘L’자 형으로 올라간 것(2b형), 완만하게 꺾인 것(2c형), 구경이 비교적 넓어지고 외부에 침선이 한 줄 생긴 것(2d형), 2d형과 유사하나 목이 길고 침선이 두 줄인 것(2e형)으로 나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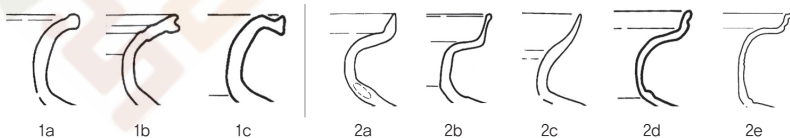


그림 1 병류의구연 형태 분류

<sup>15</sup> 이 중 2b형과 2e형은 대부분에서만 확인되며, 2a, 2c, 2d형은 구형병과 대부분에서 모두 보인다. 대부분과의 관계는 후술하겠다.

## (1) 구형병

구형병은 구연부의 형태와 동체부의 형태, 어깨에 있는 문양, 동체와 경부가 만나는 부분의 돌대 유무가 중요한 속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순서배열 후 형식설정을 하였다.

구연형은 앞서 설명하였다. 동체형을 살펴보면 저부(底部)의 형태와 편구도가 중요한 속성이다. 저부는 바다가 넓고 편평한 것(1형), 좁고 편평한 것(2형), 그리고 말각평저(3형)로 나뉜다. 편구도(동최대경/동체높이)는 막대그래프를 보면 1.23과 1.50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편구도 1.23 이하의 기형은 동체형이 장동형(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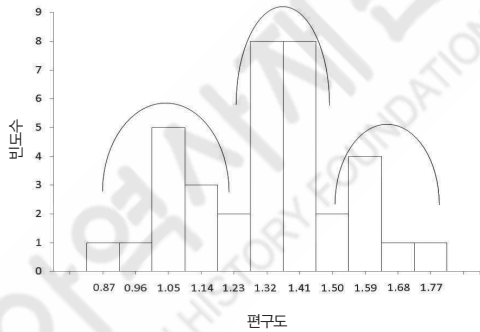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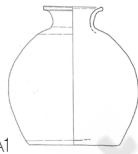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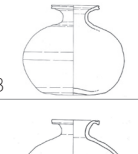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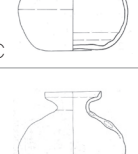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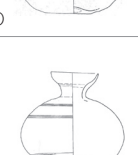







그림 2 구형병 편구도 막대그래프

이고 1.23~1.50은 구형(2형), 그리고 1.50 이상은 횡타원형(3형)이다. 편구도의 변화는 저부형의 변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구연부의 변화와 저부형태로 병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연형에 따라 A~F형식을 설정하였다(표 2 참조). A형식은 다시 저부형태로 세 가지 아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병은 문양이 전혀 시문되지 않는데 E~F형식 중에는 어깨부위에 수평의 침선이 1~2줄 있는 것(표 2의 29, 30, 32~35 참조)이 확인된다. 이는 삼각집선문과 원점문이 시문될 때 문양대 구성을 위해 토기 표면에 긋는 침선과 유사하다. 이 문양이 시문되던 다른 기종(대부병 등)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2형 구연형 역시 대부병 초기형의 구연부 변화와 일치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표 2 구형병의 분류

연번	유구명	형식	구연	저부형	편구도	돌대	문양	도면 (숫자:연번/축척동일)
1	용흥동	A1	1a	1	1	1.11	0	 1
2	강사곽7	A1	1a	1	1	1.12	0	
3	강사곽23	A2	1a	2	1	0.84	0	
4	강사곽32-1	A2	1a	2	1	1.00	0	
5	강사곽44-1	A2	1a	2	1	1.05	0	
6	경마CI-1-21	A2	1a	2	1	1.08	0	 8
7	오도실3제사	A2	1a	2	1	1.09	0	
8	오도실2	A2	1a	2	1	1.13	0	
9	월산A49	A2	1a	2	1	1.04	0	 14
10	방내96-1	A2	1a	2	2	1.27	0	
11	울동75	A3	1a	3	1	1.08	0	
12	강사곽42	A3	1a	3	2	1.23	0	
13	경마CI-1-15	A3	1a	3	2	1.29	0	
14	경마CI-2-7	A3	1a	3	2	1.31	0	 18
15	경마CI-1-19	A3	1a	3	2	1.42	0	
16	경마CI-1-14	B	1b	3	2	1.38	0	
17	방내93-13	B	1b	3	2	1.38	0	 20
18	경마CI-1-14	B	1b	3	3	1.55	0	
19	오도곽2	C	1c	3	2	1.26	0	
20	방내96-10	C	1c	3	2	1.29	0	 26
21	경마CI-1-13	C	1c	3	3	1.56	0	
22	오도실11실	D	2a	3	2	1.31	0	
23	경마CI-2-9	D	2a	3	2	1.32	0	 30
24	방내96-6	D	2a	3	2	1.35	0	
25	방내68-33	D	2a	3	2	1.42	0	
26	경마CI-1-20	D	2a	3	2	1.49	0	 36
27	방내68-8	E	2c	3	2	1.31	0	
28	냉수리현실	E	2c	3	2	1.41	0	
29	울동71	E	?	3	2	1.42	0	 30
30	오도실9	E	2c	3	3	1.54	0	
31	방내68-16	E	2c	3	3	1.55	0	
32	학천곽29	E	2c	3	3	1.69	0	 36
33	방내93-14	F	2d	3	2	1.42	0	
34	강사곽37	F	2d	3	2	1.42	有	
35	황오16와관	F	?	3	3	1.53	有	 36
36	방내68-12	F	2d	3	3	1.72	有	

## (2) 대부병

대부병은 동체부가 납작해져서 편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한다. 이 외에 崔秉鉉(1992)은 목의 직경이 넓어지는 것을 늦은 시기의 특징으로 주목하였고, 洪潛植(2001)은 구연부 형태와 견부 침선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필자는 목 높이와 편구도(동최대경/동체높이)를 토대로 목이 짧고 동체부가 타원형인 것(A형), 목이 길고 편구형인 것(C형), 그 중간 형태인 것(B형)으로 나누고 경부와 동체 접점의 돌대, 굽단부형, 목 중위의 침선대를 통해 대략적인 형식발전 순서를 제시하였다(尹相憲, 2001). 당시에는 방내리 유적 출토 토기 12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경주와 인근지역 출토품 38점을 분석하여 좀 더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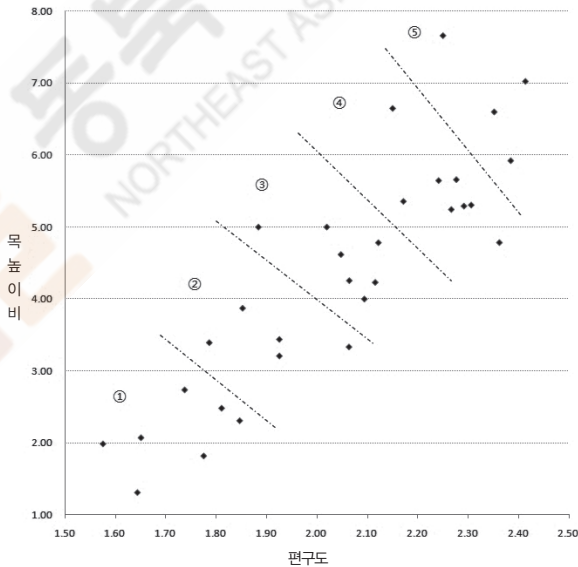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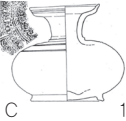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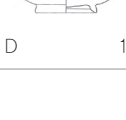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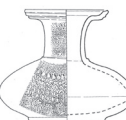


그림 3 대부병 동체 편구도, 목 높이이비 산포도

〈그림 3〉은 편구도와 목 높이비(목 높이/동체 높이×10)를 X축과 Y축으로 놓은 산포도이다. 전고에서는 크게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다섯 군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구고의 A군이 1군, B군이 2·3군, C군이 4·5군으로

표 3 대부병의 분류

연번	유구명	형식	동체	굽단부	구연대	頸中	편구도	목높이비율	목하부지름비	인화문					도면 (숫자: 연번/축척동일)			
										IB	IC	II	III	IV				
1	방내96-7	A	1	b	2b	0	0	1.85	2.31	0.64	2b						1	
2	방내68-7	B1	1	b	2c	0	0	1.57	1.99	0.5	2b							
3	방내93-39	B1	1	b	2c	0	0	1.77	1.82	0.58	c							
4	신당54수혈	B2	1	d	2c	0	0	1.64	1.31	0.47	2e							
5	방내68-11	B2	1	c	?	0	0	1.81	2.48	0.47								
6	방내68-62	B2	·	d	?	有	0	1.65	2.07	0.49	2c							
7	우복66 1곽	B2	1	d	?	有	0	1.74	2.74	0.56	4b					3		
8	방내93-3	B2	·	d	?	有	0	1.69	·	0.45								
10	오도7실	C	2	c	2e	有	0	2.06	3.33	0.53	2c					12		
11	학천23곽	C	2	d	2e	有	0	1.93	3.21	0.58	3bc							
12	방내93-10	C	3	d	2e	有	0	2.12	4.78	0.7	3b							
13	방내93-7	D	2	d	2e	有	有	1.92	3.44	0.65	2b							
14	오도8실	D	2	d	2e	有	有	1.88	5.00	0.65	2							
15	학천226곽	D	3	d	?	有	有	2.05	4.62	0.58	2b							
16	화산20	D	3	d	?	有	有	2.06	4.26	0.62	2b							
17	방내93-6	D	3	d	2e	有	有	2.09	4.00	0.73	2b							
18	오도8실	D	2	d	?	有	有	1.85	3.87	0.53	2c	4						
19	학천85-1곽	D	2	d	?	有	有	1.79	3.39	0.64		1b						
21	방내68-30	D	3	d	?	有	有	2.12	4.23	0.75		1b						13
22	학천233곽	D	3	d	2e	有	有	2.02	5.00	0.63		4b						
23	학천30곽	E	4	d	2e	有	有	2.15	6.65	0.73	2b							
24	방내93-22	E	4	d	2e	有	有	2.27	5.24	0.7	2e							
25	덕천나2실	E	4	d	2e	有	有	2.28	5.66	0.72	1b					24		
26	화산6A	E	4	d	?	有	有	2.29	5.29	0.71	3b							
27	덕천나2실	E	4	d	?	有	有	2.31	5.31	0.71	1b							
29	학천18횡구	E	·	d	?	有	?	2.2	·	0.71		4d						
30	화산20	E	4	d	?	有	有	2.24	5.65	0.65		3e						
32	방내93-25	E	4	d	2e	有	有	2.36	4.78	0.78		4b						
33	다운동1	E	소형	d	?	有	有	1.92	·	·			c					
34	학천115곽	F	5	d	?	有	有	2.41	7.03	0.86				c				
35	강사28곽	F	4	?	2e	有	0	2.17	5.36	0.68				4b				
36	화산12	F	4	d	2e	有	有	2.25	7.66	0.87				3				
37	다운동마6	F	5	d	2e	有	0	2.35	6.60	0.79				3g				
38	화산6A	F	5	d	2e	有	有	2.38	5.92	0.79				3fg		37		

나뉜다. 여기에 구연형태, 굽단부형태, 경부와 동체부 점점의 돌대유무, 경부 중위 침선대, 목 지름비(목 하단 지름/동체높이), 인화문의 조합상을 추가해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A형식은 대부분형의 출현기 형태이다. 동체형은 1군으로 구형에 가깝고 목이 짧다. 동체의 편구도만을 기준으로 하면 앞의 구형병의 마지막 단계(편구도 1.50이상)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굽단부는 b형이고 경부와 동체부 점점에 돌대가 없고, 목 가운데에 침선이 없다. 구연형태는 단순한 반부가 형성되었고(2b형), 인화문은 그은 삼각형과 짙은 원점문이 조합되었다.

B형식은 A형식과 기형은 동일하나 구연부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2c형).<sup>16</sup> B형식은 굽단부형태에 따라 단부형태가 b형인 것(B1형)과 d형인 것(B2형)로 나뉜다. B형식에서 굽단부형이 d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부분 굽단부는 대부분 d형이다. 또한 경부와 동체부 점점에 돌대가 생기기 시작한다.

C형식은 동체형이 좀 더 납작해졌다(2형). 구연부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후 비스듬히 경사지게 올라가고 구단부에 침선이 두 줄 돌아가는 2e형이다. 이후의 대부분 구연형은 모두 2e형이다. 그리고 경부와 동체부 점점에 돌대가 있으며 여전히 목 가운데 침선이 없다. C형식까지의 인화문은 IB단계의 문양(그은 삼각집선문+짙은 원문류)과 IC단계의 문양(짙은 삼각집선문+짙은 원문류)이 혼재한다.

D형식은 목 중위에 가로방향의 침선이 생기는 것이 특징으로 동체부는 2

---

16 경주지역에서 대부분 중 2b형 구연은 1점, 2c형 구연은 3점만이 확인되었다. 두 구연형태의 선후관계는 향후 자료가 늘어나면 바뀔 수도 있다.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의 변화방향을 상정하면 2c형→2b형의 방향이 맞을 듯하나, 구형병에서 완성된 반부형 구연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완성된 형태인 2b형 구연이 먼저 출현할 수 있다. 또한 2c형에 d형 굽단부 형태가 결합된 것이 있어, 현재로서는 2b형→2c형으로 변화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과 3형이 혼재한다. 인화문은 IB단계가 한 점 보이나<sup>17</sup> 주된 인화문은 IC 단계로 C형식에 이어 계속 시문되고 새롭게 II단계의 문양(수적형문류)이 유행한다.

E형식은 동체부가 좀 더 납작해지고 목이 길어져서 4형의 동체형이다. 인화문은 ‘찍은 삼각집선문+원문류(IC단계)’와 ‘수적형문+원문류(II단계)’가 유행한다. 또한 전면에 원문류를 시문한 것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 다운동 1호 석실분 출토품은 전면에 원문류를 찍은 인화문 III단계이다. 소형이기 때문에 이번 통계 분석에는 제외했으나 E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형식은 동체부가 더욱 납작해지고 동최대경이 위치한 부분이 바둑알처럼 뽕족해진다. 그리고 목 하부 지름비(목 하단부 지름/동체높이)를 보면 F형식은 강사리 28호 석곽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0.79이상으로 목 하부 지름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F형식 중에는 강사리 28호 석곽 출토품, 다운동 마6호 출토품처럼 목 가운데에 침선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기형 전체에 인화문을 시문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인화문은 모두 IV단계의 문양(중장연속문류)이 시문된다. F형식에 시문되는 인화문의 특징으로는 중장연속문의 초기단계인 1, 2형의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 2형의 문양은 원문류 2~3개를 하나의 시문구에 새겨서 찍는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2→3·4로의 변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F형식의 기형변화도 E형식에 비해 다소 급격한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자료가 늘어난다면 E형식과 F형식 사이에 중장연속문 1, 2형이 시문되는 형식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7 D형식에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원문류’가 시문된 것이 1점(방내93-7호)있다. 한 점에 불과해 D형식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이 문양이 남아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상 A형식에서 F형식으로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기형 변화는 일정한 방향 아래 단계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형식에서 나타나는 인화문은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각 단계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원문류’가 시문되는 IB단계의 문양은 A형식에서 C형식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D형식에서도 1점 확인된다. 또한, 삼각집선문과 원문류를 모두 찍은 단계인 IC단계도 B~E형식에서 확인된다. 수적형문(II단계)은 D형식과 E형식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구형병을 함께 살펴보겠다. 앞서 대부분의 출현기 형태인 A형식이 구형병의 마지막 형식인 F형식의 동체형태(편구도 1.50이상)와 흡사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구연형태도 두 기종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A형식의 2b형 구연은 구형병 D형식에서 보이는 2a형 구연에서 반부가 분명하게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4-① 참조). 2c형 구연은 구형병 E형식과 대부분의 B1형식에서 모두 보인다(그림 4-② 참조). 그리고 구형병의 마지막 단계인 F형식에 보이는 2d형 구연은 대부분의 2e형 구연과 침선의 수만 차이가 있고 거의 흡사하여 상호 영향관계를 추측케 한다(그림 4-③ 참조). 즉, 두 기종에서 보이는 구연형태와 동체부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구형병에 굽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기종이 일정기간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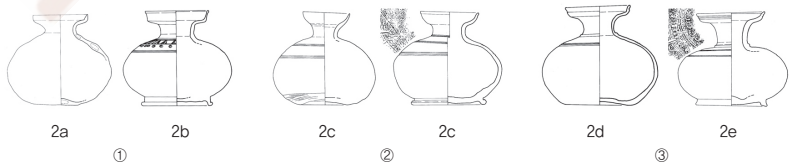


그림 4 구형병과 대부병의 비교

## 2) 유개식고배

필자는 유개식고배(有蓋式高杯)를 대각의 돌대와 투공 수, 대각높이를 기준으로 기종 분류하고 계통을 나눈바 있다(尹相惠, 2001년). 그러나 돌대와 대각높이 및 단부형태만을 가지고는 변화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새롭게 형식분류하였다. 여기서는 기종구분은 전고의 분류와 같이 유돌대고배와 무돌대고배로 나누고 유돌대고배는 다시 2단투창고배와 1단투창고배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대체로 유돌대고배의 대각높이는 2.4cm 이상이고 무돌대고배는 2.4cm 이하이다. 이하 무돌대고배는 '단각고배'라고 명명하겠다.

### (1) 유돌대고배

대각에 돌대가 있는 고배로, 전기양식 2단투창 유개고배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다. 새롭게 출현한 단각고배에 주요 기종으로서의 자리를 내주면서, 출토량도 많지 않고 양식 변화의 방향이나 규칙성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를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변화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먼저 첫 번째는 유돌대 2단투창고배이다(IA류). 2단 교호투창 고배의 기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단투공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많으나 1단만 투공이 있거나 투공이 없는 경우(그림 5-① 참조)에도 이 고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는 유돌대 1단투창고배로 투공이 상단에 1단만 있다(IB류). 2단투창고배와 유사한 형태이나 투공을 상단에 1단만 뚫으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동시기 유돌대 2단투창고배보다 대각의 높이가 낮다. IB류는 대각의 돌대는 전(前) 시기 2단투창고배의 영향을, 그리고 초기형식(B1)에서 보이는 긴 1단투창은 전(前) 시기 1단투창고배의 영향을 보여준다. 양자의 상호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尹相惠,

2004년, 102쪽).

먼저, 유돌대 2단투창고배(IA 류)를 보자. 변화방향은 대각 상단이 좁은 것에서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이 외에 배신이 납작해지고 투공이 축소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A1형식은 전기양식 마지막 단계의 고배형으로 대각이 크게 축소되었다. A2형식은 배신이 반구형이 되면서 커지고 대각 상단이 조금 넓어진다. A3형식은 상단이 더 넓어지고 배부가 반구형으로 깊어져서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후 대각 상단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나 배신은 납작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즉 A4와 A5형식을 거치면서 대각 상단이 점차 넓어지고 배신이 점차 납작해진다. A5에 오면 A4형식에 비해 투공이 작아진다.

A6과 A7형식이 되면 대각 상단과 하단의 지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특히 A7형식은 대각이 거의 수직인 느낌을 준다. 투공은 2단으로 뚫린 것도 있으나 상단만 뚫리거나 투공이 없는 이형(異形)도 확인되며 통일성이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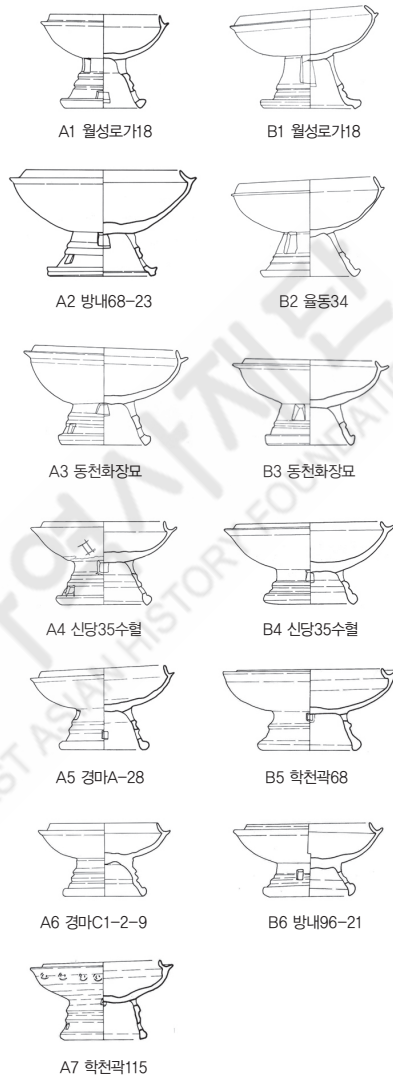


그림 5 유돌대고배의 분류(축척동일)

진다. A7형식이 되면 구순이 극히 낮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출토수량이 많지 않아 불확실하지만 A7형식의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유돌대 1단투창고배(Ⅱ류)를 보면 주된 변화방향은 ⅠA류와 같이 대각 상단이 넓어지면서 배신이 반구형에서 납작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먼저 초기형태(B1형식)는 전(前) 시기 2단투창고배와 1단투창고배로부터 영향을 받아 긴 장방향의 1단투창과 돌대가 함께 보인다. B2형식부터 대각이 낮아지고 투창이 작아진다. ⅠA류와 같이 B3형식이 되면 배신이 반구형이 되면서 대각 상부가 조금 넓어지고 안정적인 대각을 가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후 배신이 납작해지는데 B4형식에서는 배신 높이가 대각에 비해 크다가 B5형식이 되면 배신이 납작해져서 대각높이와 같거나 작아진다. B6형식은 대각 상단이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소형화된다.

두 유형의 고배는 낮은 형식으로 갈수록 같은 형식 내에 형태적 통일성이 떨어진다. 고배 소멸 직전의 말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무돌대고배(단각고배)

단각고배(短脚高杯)는 6세기 중엽에 출현하는 6~7세기 신라토기의 대표적 기종이다. 변화 양상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필자는 대각의 높이와 굽단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분류한 바 있다. 또한 c, d형의 대각단부형태가 a, b형보다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尹相惠, 2001). 그러나 형태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형식을 설정하지는 못했다. 여기서도 대각단부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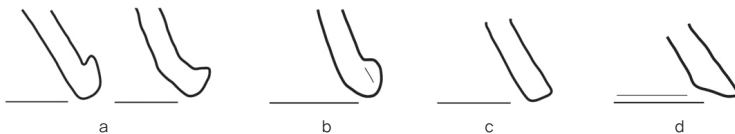


그림 6 대각·굽 단부형태

한편, 필자는 유개식고배의 구순높이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각높이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고배 변화방향을 가정하고 구순높이와 비교한 결과 양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조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尹相惠, 2001년, 13쪽). 그러나 유돌대고배와 무돌대고배를 분리하지 않고 대각높이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방향을 가정하고 구순높이의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 重見泰(2005년)는 필자의 이러한 분석방법을 비판하면서 구순의 높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석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배의 세부 기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유개식고배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유개식고배를 세부 기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돌대 2단투창고배(IA)의 경우 마지막 7형식에서 비록 수량은 적으나 구순이 낮아진 형식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돌대 1단투창고배(IB)의 경우 동천동 화장묘나 신당리 35호 수혈, 그리고 학천리68호 석곽묘 출토품의 예(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이른 기형으로 설정한 단계에 구순의 높이가 낮은 기형이 혼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구순 높이로 유개식고배를 편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려준다. 단각고배의 분석은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단각고배에서 시간에 따라 구순 높이가 낮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속성인 대각단부의 형태와 구순높이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대각단부형태는 끝이 살짝 말린 'b' 형에서 안쪽을 깎은 'd' 형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대부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에서도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각단부형에 따른 구순 높이를 비교하면 시간에 따른 구순높이 변화의 정형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7>은 방내리고분에서 출토된 대각높이 2.4cm이하의 단각고배 73점을 대상으로 한 상자그래프(Box plot)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d형의 구순 높이가 b형에 비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으며, 1/4분위값과 최소값으로 보아 오히려

b형이 d형에 비해 구순 높이가 낮은 쪽에 더 많은 수가 분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각고배에서는 IB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구순높이가 낮아지는 양상을 찾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유돌대 2단투창고배의 경우 구순높이가 낮아진 형식이 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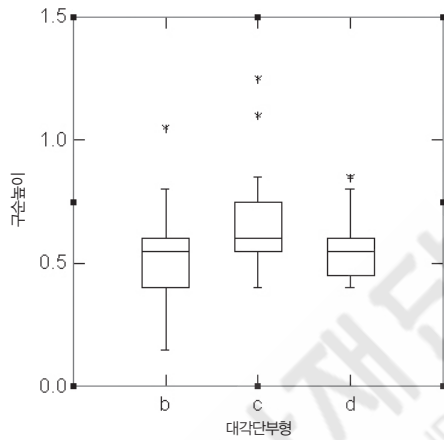


그림 7 단각고배 대각단부형과 구순높이 비교

막 단계에 확인되나, 유돌대 1단투창고배나 단각고배는 구순높이를 기준으로 편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배의 세부기종을 파악하지 않고 고배의 구연부편만 가지고 구연부 높이에 따라 그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3) 무개식고배

무개식고배(無蓋式高杯)<sup>18</sup>는 방내리 고분의 분석에서 구경크기 11cm를 경

18 연구자에 따라 이를 '대부완(臺附盥)'으로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완(盥)류보다는 고배류와 기형상 연관이 크다고 보아 '고배(高杯)'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고배류의 경우 실제로 뚜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개고배(有蓋高杯)', '무개고배(無蓋高杯)'라는 용어도 엄밀히 보면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용어를 받아들여 '식(式)'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유개식고배(有蓋式高杯)'는 구연부에 뚜껑받이가 있는 것, '무개식고배(無蓋式高杯)'는 뚜껑받이가 없는 것을 지칭하고자 한다.

계로 소형과 대형으로 나눈 바 있다. 이번에 분석 개체수를 늘려서 살펴본 결과 대형은 15cm를 기준으로 다시 두 그룹(대·중)으로 나눌 수 있어 대형·중형·소형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대형군을 보면 시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구연부의 형태이다. 즉 구연부가 바깥으로 경사지게 벌어지는 것(A형식)<sup>19</sup>에서 직립하는 것(B형식), 그리고 구연부가 구분되는 것(C형식)을 거쳐 외반하는 것(D, E형식)으로 변화한다(그림 8 참조). 대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부가 넓어지는 형태로 변한다. B형식 중에 배신은 반구형식으로 직립하나 대각은 A형식과 같이 대각상부가 좁은 것을 B1형식으로, 대각상부가 더 넓어진 것을 B2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중형군은 대형군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각이 낮아지고 상부 지름이 커지는 변화 방향은 앞서 살펴본 유개식고배 대각의 변화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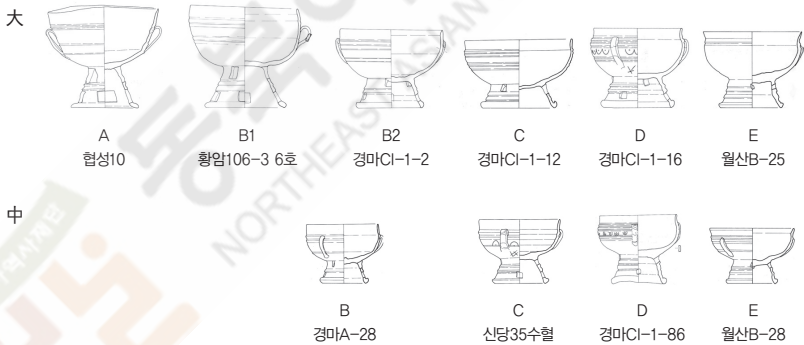


그림 8 무개식고배 대형군과 중형군의 분류

19 A형식은 대체로 5세기에 속한다. 더 세분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6세기 이후가 분석 대상이므로 하나의 형식으로 묶어서 설명하였다. 같은 이유로 소형군의 A형식도 세분하지 않았다.

소형군은 5세기에 주로 보이는 기형으로 대부분 2단투창고배이지만 투창이 1단에 뚫린 경우도 확인된다. 이렇게 2단과 1단투창이 혼재하는 양상은 D형식까지도 보이는데 결국 1단만 뚫리는 형태로 변화한다. 반구형의 배신이 점차 납작해지고 대각도 낮아져서 기형이 작아진다. 그리고 유개식고배와 같이 대각상부지름이 좁은 것에서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대각단부의 형태도 a형에서 b형으로 변화한다. 이를 반영하여 형식을 분류하면 <그림 9>와 같다. B형식은 A형식에 비해 대각이 낮아진 것이다. C형식에 비해 투창의 크기가 비교적 크며 주로 1단투창이다. C형식은 여전히 전기양식의 대각단부 형태(a형)가 남아 있으나, 대각이 더 작아지고 투창도 작아진 단계이다. D형식은 대각단부를 뭉툭하게 말아서 마무리한 것(b형)이다. E형식부터는 주로 1단투공만이 확인된다. D형식에 비해 대각상부 지름이 넓어졌다. F형식은 E형식과 같이 대각상부 지름이 넓어졌으나 배신과 대각이 낮아져서 납작해진 것이다. G형식은 배신이 더욱 낮아져서 오히려 대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대각에 투공이 없는 것도 보이고 유개식고배 IA6, 7형식과 같이 말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9 무개식고배 소형군의 분류

#### 4) 대부완

대부완(臺附盥)은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주요기종 중의 하나이다. 주로 7세기 후반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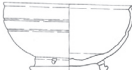





에 6세기에는 기형변화도 단조롭고 수량도 많지 않다. 대부완이 전기양식의 청동대부완과 관련이 있음은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내용으로 6~7세기 대부완의 분류는 이러한 계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즉 대부완은 무문에 침선이 많은 형태(1형)에서 침선이 구연부와 중위에 있는 것(2형), 구연부에만 있는 것(3형)으로 변화한다. 이는 인화문 시문과 관련 있는데 2형은 원문류, 또는 원문류와 수적형문의 조합이 많이 보이고 3형은 전면에 연속문이 시문된다.

구연부의 형태는 편년의 중요한 속성이다. 필자는 구연부를 외반도와 구단부 모양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나눈바 있다(尹相憲 2000년, 99쪽). 첫 번째는 직립하는 것(1형), 두 번째는 내면이 꺾이고 바깥쪽으로 살짝 꺾이는 것(2형), 마지막은 'S'자로 외반하는 것이다(3형). 이 시기에는 'S'자로 외반하는 기형이 없어 실제로 확인되는 구연은 2형까지이다.

완부의 형태도 초기에는 완부가 크고 깊은 형태(高)이다가 조금 작고 완부 깊이가 낮아진 것(低)이 주로 제작된다. 이 외에 굽단부 형태와 인화문의 형태를 조합해서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부완의 분류

연번	유구명	형식	완부 깊이	구연	굽단부	침선	무문	인화문				도면 (숫자 : 연번/축척동일)	
								IB·C	II	III	IV		
1	울동10	A	高	1	a	1	○						
2	경마C1-1-15	A	高	1	a	1	○						A  2
3	경마C1-1-19	A	高	1	a	1	○						
4	경마C1-2-7	B	低	1	a	1	○						B  4
5	경마C1-1-19	B	低	1	a	1	○						
6	방내93-13	C	低	1	b	2	○						C  8
7	냉수리 측실	C	低	1	c	2	○						
8	신당35수혈	C	低	1	c	2	○						
10	방내93-12	D	低	1	d	2	·	b					D  10
11	방내93-23	D	低	1	d	2	·	b					
12	방내68-30	D	低	1	d	2	·	b					
13	방내68-40①	E	低	2	d	2	·	b					E  17
14	방내68-40②	E	低	2	d	2	·		1b				
15	덕천2	E	低	2	d	2	·			4			
16	방내93-33	E	低	2	d	2	·			3			
17	사라13괵	E	低	2	d	2	·			3d			
18	월산B-5	E	低	2	d	2	·			2			
19	방내93-38	E	低	2	d	2	·				d		
21	덕천1	E	低	2	d	2	·					5	
22	방내93-5	F	低	2	d	3	·					2	F  25
23	학천115괵	F	低	2	d	3	·					2	
24	방내93-26	F	低	2	d	3	·					3	
25	사라3실	F	低	2	d	3	·					3	

A형식은 구연이 직립하면서 완부가 크고 깊은 반구형인 것이다. 무문이며 등간격으로 여러줄의 침선이 있고, 굽단부는 살짝 빠져 올라간 a형이다. B형식은 A형식과 비슷한 기형이나 완부가 좀 더 납작해지고 작아졌다. C형식은 A, B형식과 같이 무문이나 침선이 구연부 바로 아래와 완부 중위, 두 부분에 있다. 이 침선 형태는 문양 시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굽단부형은 b, c형이다. D형식은 인화문이 시문되며 구연은 여전히 직립한다(1형). 굽단부형은 d형이다. E형식은 구연부 안쪽이 깎인 형태(2형)이다. F형식은 침선이 구연부에만 있는 것으로 인화문은 모두 기형 전체에 연속문을 찍었다(IV단계).

## 5) 뚜껑

필자는 뚜껑을 짝이 되는 기종에 따라 복자형(卜字形)뚜껑과 입자형(入字形)뚜껑으로 구분한 바 있다(尹相惠, 2000년). 복자형뚜껑은 뚜껑받이가 있는 유개식고배의 뚜껑이고, 입자형뚜껑은 대부분, 무개식고배, 부가구연장경호와 같이 뚜껑받이가 없는 토기의 짝이 되는 것이다.

뚜껑은 먼저 복자형뚜껑과 입자형뚜껑으로 나눈 후 다시 꼭지형태와 드림부형태로 분류하였다. 전고의 꼭지분류에서 e형을 세분해서 꼭지 지름이 넓은 것(e1)과 좁은 것(e2)으로 나누었다(그림 10 참조). 입자형뚜껑에서 2형 드림부 출현 이후에 전체 기형이 반구형(半球形)에서 꺾이는 형태로 변함에 따라 지름이 넓은 e1형 꼭지는 더 이상 부착할 수 없게 되어 꼭지 지름을 축소한 e2형을 부착한 것으로 이해된다. 복자형뚜껑도 이의 영향을 받아 e2형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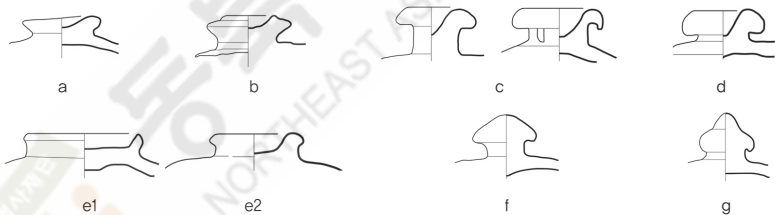


그림 10 뚜껑 꼭지 형태 분류

입자형뚜껑의 드림부 형태는 전고에서 3형으로 묶었던 것을 분리하여 총 5개의 속성으로 나누었다(그림 11 참조). 이는 입자형뚜껑이 형성되고 안턱이 점차 사라지는 방향을 상징한 것이다.

뚜껑은 형태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부적인 형식을 설정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시기별로 어떤 속성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1 입자형뚜껑 드림부 형태 분류

## 6)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부가구연대부장경호(附加口緣臺附長頸壺)의 초기형태는 대부장경호 경부의 가장 윗 단이 살짝 꺾이는 형태이다. 월성로 나13호나 황남대총 남분 등에서 확인되는데, 수량이 많지 않다. 구연부가 살짝 꺾이는 초기형태(1형)를 지나 ‘ㄴ’자형 부가구연(2)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의 기형을 형성한다.

‘ㄴ’자형 부가구연이 처음 출현하는 기형은 동체부의 최대경이 위쪽에 있고 상부가 각이 진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곧이어 동 최대경이 중위로 내려가 동체형태가 횡타원형, 또는 구형의 것이 유행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체부가 편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李盛周, 1994년). 동체가 납작해지면서 전체 크기가 작아지며, 전체높이에서 경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尹相惠, 2001년). 분석에 사용된 속성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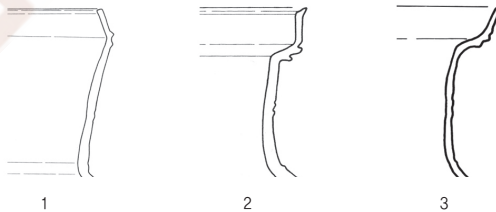


그림 12 부가구연대부장경호 구연부 형태 분류

먼저, 구연부는 안쪽으로 살짝 꺾이는 것(1형)에서 ‘L’자로 분명하게 꺾인 형태(2형)가 된다(그림 12 참조). 꺾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날카로운 두 줄의 돌대가 있다. ‘3형’은 구연끝이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꺾이는 부분의 돌대도 돌출이 많지 않고 뭉툭하다. ‘3형’ 중에는 꺾이는 부분이 아래로 처졌다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도 보인다. 동체형은 동최대경이 동 중상위에 있고 살짝 꺾이면서 어깨가 형성된 것(1형), 구형인 것(2형), 횡타원형인 것(3형)으로 나누었다.

〈그림 13〉은 전체 높이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높이 약 24cm와 32cm 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24cm 이하의 소형을 대상으로 편구도와 경부높이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14 참조). 경부가 동체에 비해 짧고, 횡타원형인 기형과 경부가 동체에 비해 길고, 동체부가 좀 더 납작해진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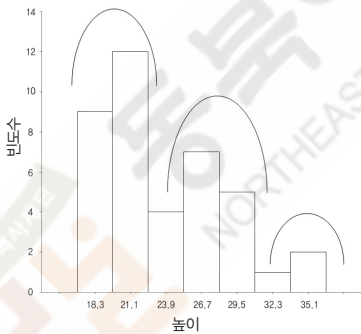


그림 13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높이막대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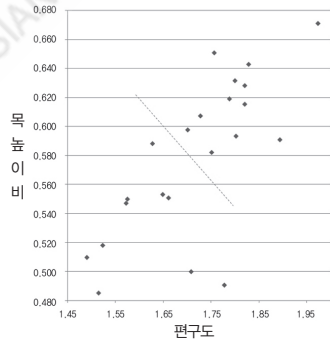


그림 14 소형군 편구도와 경부높이비 산포도

구연형태, 크기(전체 높이), 동체형, 편구도(동체 최대경/동체높이), 경부높이비(경부높이/동체높이), 투공수를 속성으로 하여 분류하였다(표 5 참조).

표 5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속성표

연번	유구명	형식	크기	구연	동체	높이	편구도	경부 높이비	투공수	투공단
1	황남106-3 4호	B	大	2	1	42.3	1.58	0.422	8	2
2	인왕 적6A	B	中	2	1	·	1.45	0.45	8	1
3	월성로가5	B	中	2	1	·	1.66	0.464	7	1
4	경마CI-1-12	B	中	2	1	30.5	1.67	0.504	9	2
5	협성14적	B	中	2	1	·	1.53	0.507	8	2
6	인왕 석1	B	中	2	1	25.2	1.51	0.582	7	2
7	월성로나6	C1	大	2	2	33.4	1.31	0.445	7	2
8	월성로다5	C1	中	2	2	29.8	1.36	0.340	9	2
9	월성로가8	C1	小	2	2	22	1.37	0.390	8	1
10	울동10	C2	大	2	3	34.3	1.42	0.422	8	2
11	방내68-26	C2	大	2	3	33.5	1.51	0.443	10	2
12	방내68-48	C2	大	2	3	33.0	1.54	0.437	8	2
13	월산A-43	C2	中	2	3	26.5	1.47	0.390	6	2
14	월성로다10	C2	小	2	3	22.3	1.45	0.482	7	2
15	울동74	D	中	3	2	30	1.38	0.437	7	1
16	월산B-16	D	中	3	3	26.3	1.4	0.506	8	1
17	방내68-23	D	中	3	3	26.5	1.4	0.411	9	2
18	인덕7	D	中	3	3	25.8	1.71	0.500	5	2
19	화산9	E	中	3	3	27.2	1.51	0.485	5	1
20	방내93-34	E	中	3	3	24.3	1.66	0.551	5	1
21	인덕5	E	小	3	3	19.5	1.52	0.518	6	1
22	방내68-60	E	小	3	3	17.2	1.57	0.547	6	1
23	방내68-19	E	小	3	3	17	1.58	0.550	6	1
24	화산9	E	小	3	3	20.7	1.58	0.469	5	1
25	방내68-55	E	小	3	3	21.9	1.6	0.51	5	1
26	방내68-14①	E	小	3	3	21.7	1.63	0.588	5	1
27	방내68-14②	E	小	3	3	19.7	1.65	0.553	5	1
28	방내68-50	F	小	3	3	18.9	1.7	0.598	5	1
29	방내68-8	F	小	3	3	21.9	1.73	0.607	6	1
30	경마CI-1-20	F	小	3	3	21.5	1.76	0.651	5	2
31	방내68-50	F	小	3	3	22.5	1.78	0.491	8	1
32	학찬16	F	小	3	3	20.9	1.79	0.619	6	1
33	인덕7	F	小	3	3	21.5	1.8	0.632	5	2
34	방내68-2	F	小	3	3	20.4	1.8	0.593	5	1
35	방내68-14	F	小	3	3	17.2	1.82	0.628	5	1
36	방내68-15	F	小	3	3	17.5	1.82	0.615	5	1
37	사라4실	F	小	3	3	19.3	1.83	0.857	4	1
38	월산B-12	F	小	3	3	22	1.89	0.591	6	1
39	방내68-15	F	小	3	3	18	1.97	0.671	5	1

A형식은 1형구연을 한 것으로 대형과 중형이 있다(그림 15 참조).<sup>20</sup> B형식은 ‘ㄴ’자로 분명하게 꺾인 형태(2형)가 나타난다. 동체형이 어깨가 있는 편구형인 것이 특징이다. 대형과 중형이 있다. C형식은 B형식에 곧이어 바로 출현하는 것으로 다른 특징은 B형식과 같으나 동체형이 구형(C1형식)이거나 횡타원형(C2형식)으로 바뀐다. C1형식과 C2형식간의 선후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거의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D형식은 A~C형식과 같이 중대형이나 구연형이 밖으로 벌어지는 형(3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부가구연대 부장경호의 구연부는 모두 3형이다. E형식과 F형식은 높이 24cm 이하의 소형이다. 두 형식은 구연부형(3형), 동체형(3형)이 같다. 특히 E형식 이후에는 동체부의 편구화가 진행되면서 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편구도와 목높이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군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4 참조). 첫 번째는 이전 형식과 같이 전체에서 목의 높이가 작은 것(E형식)이고 두 번째는 목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F형식). 동체부가 납작해지고 구연부가 벌어지고 목이 발달한 기형이다. 투창 수는 점차 줄어든다. 즉, 중대형인 A~D형식은 투창이 7~10개가 뚫려있는 데 비해 소형인 E, F형식은 투창수가 4~7개가 뚫린다.

마지막으로 F형식이 제작되는 시기는 소량이지만 서악리 석실분 출토품과 같이 부가구연이 사라지고 낮은 굽형 대각이 붙는 새로운 형식의 대부장경호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대부장경호는 부가구연장경호를 대체하게 된다.

20 A형식은 대체로 5세기에 속한다. 더 세분되나 여기서는 6세기 이후가 분석대상으로 제외하였다.



그림 15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의 분류(축척동일)

### 3. 공반관계를 통한 상대편년

앞에서 설정한 기종별 형식을 기준으로 매납동시성이 확보된 유구를 단위로 한 순서배열을 진행하여 형식 간 공반관계를 파악하고 상대편년안을 작성하였다.

대상유구의 선택은 먼저 ‘매납(폐기)동시성’이 확보된 유구로 하였다. 이러한 유구 중 앞서 형식분류 한 기종이 2종 이상 출토된 경우는 총 69개 유구이다. 이 무덤들을 앞 장에서 설정한 기종별 각 형식을 기준으로 순서배열을 하였다(표 6 참조). 순서배열 후 형식별 공반관계를 검토하여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의 상대편년안을 만든 것이 <그림 16>이다. 각 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양식

##### (1) IV기

- IVa기 : 유개식고배는 대각이 낮아진 유돌대 2단투창고배(A1형식)와 돌

대가 아래쪽에 있고 1단의 투창이 비교적 길게 뚫린 기형(B1형식)이 유행한다. 후자는 전 시기 2단투창고배와 1단투창고배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기형으로 이해된다. 무개식고배 대형은 배신이 반구형이 되고 구연이 직립하는 B1형식이 출현한다. A형식이 공존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출토예가 적어 확인하기 어렵다. 구형병은 단순한 외반구연에 바닥이 아직 편평한 기형(A2)이 나타난다. 대부완도 극히 일부 보이는데 대형으로 표면에 침선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는 청동용기의 영향을 보여준다. 소형은 대각상부가 'A'자형으로 좁혀진 것이 유행하며, 대각 단부형태는 a형이다.

전 시기의 복자형뚜껑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시문되었으나 이 기에 오면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거나 '그은 삼각집선문+원점문'으로 통일된다. 뚜껑의 꼭지는 투공이 작아지고 높이가 낮아진 대각도치형(c)이 유행하고, 접시형(a), 단추형(b)이 계속 사용된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구연부가 'L'자로 형성된 것이 유행한다. 또한 황남동 106-3번지 6호묘, 경마장 CH-1-12호 예와 같이 어깨가 올라간 B형식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B형식은 구연부가 'L'자로 형성된 본격적인 부가구연대부장경호로 늦어도 IIIb기에는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C형식은 B형식보다 출현시기는 조금 늦으나 이 기에는 함께 제작되었다. 여전히 32cm 이상의 대형 부가구연대부장경호가 남아 있다.

- IVb기 : 유개식고배 중 유돌대 2단투창고배는 대각이 낮아지면서 넓어지고 배신이 반구형으로 된 것(A2)이 나타난다. 유돌대 1단투창고배는 1단의 투창이 작아지고 대각 더 짧아진 것(B2)이 유행한다. 5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1단투창고배는 대각이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방내리 68-23). 이 기형을 거쳐 대각이 더욱 낮아지면서 다음 기에 단각고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개식고배 대형은 전시기와 배신의 형태는 유사하나 대각 상부가

넓어진 B2형식이 제작된다. 소형은 여전히 대각상부가 'A'자형으로 좁혀진 것이 유행하나 투창이 작아진 것(C형식)이 보인다. 투창은 2단과 1단투창이 공존한다. 구형병, 대부완은 IVa기와 같다.

복자형뚜껑도 전기와 비슷한 양상인데 꼭지가 낮아지고 투공이 없는 것(d형)이 보인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B, C형식이 남아있으며, 3형 구연을 가진 D형식이 유행한다.

## 2) 중기양식

중기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대각이 극히 낮아진 단각고배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 외에 2단투창고배의 변형 기형이 계속 존재하나 그 비중은 현저히 줄어든다. 주로 유개식고배의 뚜껑으로 사용된 복자형뚜껑도 함께 수량이 준다. 대신 대부완, 대부병, 입자형뚜껑이 출현하고 이를 점차 대체한다. 문양에서는 인화문이 발생하여 유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아직 전면을 연속문으로 장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 (1) I기

I기는 중기양식의 첫 단계로 단각고배와 e형 꼭지의 복자형뚜껑이 출현한다. 문양은 인화문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그은 삼각집선문과 원문류가 장식되나 아무 문양도 넣지 않은 것도 많다.

-Ia기: 대각의 높이가 극히 낮아진 단각고배가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현기의 대각단부형은 b형이다. 인덕동 7호 출토품은 신라전기양식 IVb의 1단투창고배인 방내리 68-23호 출토품에서 이어진 것으로 대각이 더 낮아

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단각고배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sup>21</sup> 동시에 뚜껑도 단각고배의 짝으로 굽도치형 꼭지(e형)를 한 복자형뚜껑이 유행한다. 이 뚜껑은 무문이 많으며 전기보다 무문의 비중이 높다. 기존의 굽도치형 꼭지가 붙은 뚜껑(d형)은 계속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그삼각집선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많다. 유개식고배 중 2단투창고배(IA)는 대각 상단이 넓어져서 안정된 느낌을 준다(A3형식). 대각 단부는 전기와 같이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살짝 튀어나왔다. 1단투창고배(IB)도 전체 기형은 2단투창고배와 유사하다.

대부완은 무문에 침선이 많은 것이 보이나 전(前) 시기보다 작아진 것(B형식)이 나타난다. 입자형뚜껑은 대형의 경우 전기에 이미 무개식고배 대형의 짝으로 보이지만 중소형으로는 이 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드림부는 1형이고 꼭지형은 보주형이다. 구형병은 여전히 구연이 단순히 외반되었으나 바닥이 좀 더 환저와 가깝게 된 것이 출현한다(A3형식).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구연부가 살짝 벌어진 기형(D형식)이 보인다. 대각의 투창수가 줄어서 5~7개가 뚫린다. 무개식고배 대형은 전기양식 IVb기와 같다.

- 1b기 : 단각고배가 계속 유행하며 대각단부형은 b형과 c형이 보인다. 유개식고배 중 2단투창고배(IA)는 대각 상단이 점차 넓어지고 배신도 더 납작해진 A4형식으로 대각 단부도 뭉툭해졌다. 1단투창고배(IB)는 대각 상부가 넓어지면서 대각이 낮아져서 배부 높이가 대각보다 높게 되며 역시 대각단부가 뭉툭해진다. 무개식고배 대형은 구연부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C형식이 나타난다. 구형병은 구연끝에 침선을 넣은 것(B형식)과 경부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것(C형식)이 유행하며 바닥이 둥글게 된다. 대부완은 무문이지만

21 대부완과 같이 굽이 있는 기종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러한 기종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1단투창고배에서 계보를 찾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침선이 구연 바로 아래와 동체 중위에 있는 형식(C형식)이 출현한다.

복자형뚜껍은 낮아진 대각도치형 꼭지(d형)와 e형 꼭지가 유행한다. 입자형뚜껍은 점차 출토된 예가 증가하는데 Ia기와 같이 드림부 1형과 보주형 꼭지가 유행한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높이 24cm 이하의 소형(E형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 (2) II기

II기는 인화문이 발생하는 것, 대각단부가 'd' 형으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대부병이 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IIa기 : 인화문이 발생하는 것이 이 기의 특징이다. 초기의 인화문은 삼각집선문과 원문류의 조합에서 원문류만 짙은 것으로 변화한다(宮川禎一, 1988). 단각고배가 유행하는데 아직 d형 굽은 보이지 않는다. 유개식고배 중 2단투창고배(IA)는 전기와 비슷하나 투창이 작아진다(A5형식). 1단투창고배(IB)는 배부가 납작해져서 대각높이가 배부 높이보다 커진다(B5형식). 무개식고배 소형은 대각상부가 넓어진 F형식이 출현하는데 이 형식부터 1단 투창으로 통일된다. 구형병은 D형식으로 구단부가 살짝 꺾여 올라간 구연형(2a형)이 출현하며 바닥이 둥글고 동체형이 타원형이 되었다. 대부병도 이때 처음 출현하는데, 동체형이 구형병 D형식과 유사하다. 특히 대부병 A형식의 구연형은 2b형인데 이는 구형병 D형식의 2a 구연형에서 발전한 형태다. 구형병에서 대부병이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병 A형식의 어깨에는 그 은 삼각집선문과 짙은 원문류가 나타난다. 굽단부는 아직 b형이다. B형식 중 굽단부형이 b형인 B1형식도 이때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완은 아직까지 수량이 많지 않다. 특히 이번에 대상으로 한 매납동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덤에서는 그 출토량이 매우 적다. 아직 자료가 없지만 이 시기에는 직립구연에 인화문이 시문된 대부완(D형식)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초기형태는 구연 아래에 원점문이 찍히는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 내리 93-12호나 23호의 대부완이 이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복자형뚜껑은 계속 e형 꼭지가 많이 사용된다. 입자형뚜껑은 여전히 드림부 1형인데<sup>22</sup> 굽도치형꼭지(d형)가 붙은 것이 보인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목의 비율이 더욱 커진 F형식이 유행한다. 이 시기부터 서악리석실분 출토품과 같이 부가구연이 아닌 단순한 외반 구연에 낮은 굽형 대각이 붙으며 인화문이 시문되는 새로운 형식의 대부장경호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 IIb기: 대각단부 d형이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현상은 여러 기종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즉 단각고배, 대부병, 대부완에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중기양식에서 새롭게 출현하여 주요 기종으로 자리잡는 것들이다. 인화문은 짙은 원문류와 그은 삼각집선문의 조합(IB단계)과 모두 짙은 문양(IC단계)이 공존한다. 심지어는 모두 그은 문양인 IA단계도 뚜껑류에서 일부 확인된다.

단각고배는 d형의 대각단부와 함께 여전히 b, c형도 보인다. 유돌대고배는 전기와 같다. 무개식고배 중·대형은 구연부가 살짝 외반하기 시작하며(D형식) 배신 중위에 원점문이 시문되기도 한다. 대부병도 B2형식에서 d형의 굽단부가 출현하고 구연형태는 2c형과 2e형이 보이며 동체형도 조금 납작해지기 시작한다(C형식). 구형병은 E형식과 F형식이 보이는데 모두 대부병과 동체부 모양이 유사하다. E형식은 대부병과 같은 2c형 구연형이고 F형

---

22 그러나 입자형뚜껑 소형의 경우는 다른 양상이다. 소형은 구경 11cm이하로 소형의 대부직구호와 소형의 대부장경호와 주로 결합한다(尹相惠, 2001, p.28). 중형구과는 변화양상이 다른데 달성 설화리고분(達城 舌化里古墳) 24호묘에서는 지름 10.1cm의 소형이며 4형 드림을 가진 입자형뚜껑이 구형병과 함께 출토되었다(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도면53). 구형병은 구연이 결실되었으나 D형식, 또는 E형식으로 추정되어 소형인 경우 4형 드림이 이미 IIa기에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식은 대부병의 2e와 유사한 2d형 구연이다. 대부병과 구형병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부완은 이전 시기와 같이 직립구연에 인화문이 시문된 D형이 제작된다.

복자형뚜껑은 이제 d형 꼭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e형 꼭지만이 보이며 표면에 찍은 삼각집선문이 시문된다. 이 시기에 입자형뚜껑 드림부 2형이 출현하는데 e형 꼭지와 결합한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구연과 경부가 강조된 F형식이 보이나 거의 소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 시기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대부장경호는 인화문과 결합하여 계속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3) III기

III기는 인화문 중에서 수적형문이 유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부완과 대부병, 입자형뚜껑이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이전 시기에 유행했던 고배류와 구형병, 복자형뚜껑을 점차 대체한다.

- IIIa기 : 수적형문(II단계)이 시문된다. 그러나 여전히 찍은 원문류와 그 은 삼각집선문(II단계) 및 모두 찍은 문양(IC단계)의 시문이 확인된다. 모두 그은 문양(IA단계)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단각고배는 d형 단부형만이 보인다. 유개식고배 중 2단투창고배는 대각상단이 넓어져서 대각이 기울지 않고 거의 수직인 느낌을 준다(A6형식). 투공이 1단만 뚫리거나 없는 경우도 생기는 등 퇴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느낌이다. 고배의 수량도 줄어든다. 무개식고배 대형은 구연이 많이 외반된 E형식이 보인다. 대부병은 동체부가 납작해지기 시작하고 목 중위에 가로로 침선이 생긴다(D형식). 대부완과 대부병 모두 d형 굽단부형이다. 대부완은 구연부 안쪽이 깎인 형태인 E형식이 출현하는데, 구연이 단순하게 직립한 것도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자형뚜껑은 e형 꼭지 중에 꼭지 지름이 좁아진 e2형이 보이기 시작한

다. 입자형뚜껍은 드림부 2형 외에 3, 4, 5형이 보이고 e2형 꼭지가 출현한다. 드림부 1형은 d형 꼭지와 결합한다. e2형 꼭지는 드림부 2, 3, 4, 5형과 결합한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는 보이지 않는다.

- Ⅲb기 : Ⅲb기 이후는 매납동시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단각고배는 이전 시기와 같이 d형 단부형만이 보인다. 유돌대고배는 수량이 매우 줄었는데 기형은 전 시기와 같다. 퇴화기에 접어들면서 양식변화가 느려진 것으로 이해된다. 무개식고배는 자료가 없으나 전기의 형식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더욱 납작해지고 수적형문과 삼각집선문이 시문된다(E형식). 이 기의 후반에 원문류를 전면에 시문하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2~3개의 동일문양을 시문구에 새겨서 기형 전면을 채우는 종장연속문 초기형(1, 2형)도 출현한다. 대부분은 전 시기의 E형식이 계속 유행하며 침선이 구연부에만 있는 F형식도 출현한다. F형식은 인화문이 전면에 시문되면서 출현한 형식이다. 복자형뚜껍은 e2형 꼭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나 많지 않다. 입자형뚜껍은 전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드림부 1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 3) 후기양식

중기양식과 구별되는 후기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적인 종장연속문이 출현하면서 표면 전체에 화려한 인화문이 시문되는 것이다. 토기 전면에 인화문이 시문되는 것은 중기양식의 마지막 단계(Ⅲb)에 시작되나 이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본격적으로 전면에 연속문이 시문되는 것을 후기의 시작으로 한다. 기중에서도 고배류와 복자형뚜껍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대부분, 그리고 입자형뚜껍이 크게 유행한다.

## (1) I기

-Ia기 : 매장동시성을 확보한 자료가 급감하여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인화문은 종장연속문의 문양이 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며 5~8개의 문양을 한 시문구에 새겨서 종방향으로 찍는 본격적인 종장연속문(3, 4형)이 유행한다.

유돌대고배를 비롯해서 고배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단투창고배 마지막 형인 A7형식이 보이는데, 이 기형은 구순의 높이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대부분은 동체부가 더욱 납작해지고 목 저경이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F형식). 동최대경이 위치한 곳이 바둑알 모양으로 뽕족해진 것이 많다. 인화문이 전면 시문되면서 목에도 시문되고, 이런 영향으로 목에 있던 횡침선이 사라지기도 한다. 대부분은 외반구연은 출현하지 않았고 여전히 안쪽이 살짝 꺾이는 형태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입지형뚜껍의 드림부는 3형과 4형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e2형 꼭지와 결합한다. 고배와 같이 복자형뚜껍도 사라진다.

## IV. 절대편년

### 1. 절대연대 자료 검토

#### 1) 복천동 65호분 출토 유개식고배

洪潛植(2001년)은 부산 북천동 65호 황구석석실묘 출토 유개식고배(그림 17-①)의 연대를 함께 출토된 중국제 청자(그림 17-②)의 연대를 통해 7세기 초로 편년하고, 이 고배의 뚜껑에 보이는 그은 문양을 근거로 인화문의 출현시기를 이보다 늦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 자기를 馮先銘의 隨靑瓷 III형 완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하북 자현 매벽촌 수청자요지(河北 磁縣 賈壁村 隨靑瓷窯址) 출토품을 들었다. 그리고 신라가 중국에 유사(遺使)한 기록을 검토한 후 진평왕 16년(595년)에 책봉을 받는 기사를 근거로 7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이 청자가 신라에 반입된 과정은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문헌에 나타난 공식적인 유사의 기록을 유물 편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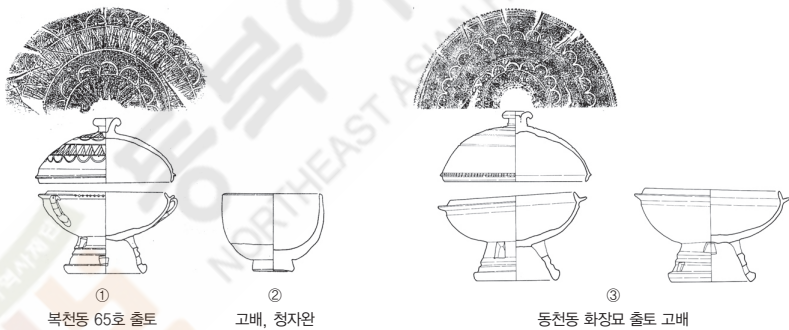


그림 17 북천동 65호와 동천동 화장묘 출토 고배의 비교

한편, 이와 유사한 청자가 중국에서 수(隨)대가 아닌 좀 더 이른 시기인 동위(東魏)에 해당하는 무덤에서 출토되어 북천동 65호묘 출토품의 연대추정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하북성 찬황현 남형촌 이희종 부부묘(河北省 贊皇縣 南邢村 李希宗 夫婦墓) 출토품으로 이 무덤은 묘지석이 있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sup>23</sup> 보고문에는 사진 외에 도면이 없으나 2007년 '中國국보전'에 출품되었다.<sup>24</sup> 총 16점이 출토되었고 높이는 7.5~8.8cm, 지름은 10~12.8cm이다. 복천동 65호 출토 중국청자와 특징 및 형태는 거의 같고, 규격은 복천동 65호 출토품보다



그림 18 이희종묘 출토 청자완

조금 크다(그림 18 참조). 앞서 홍보식이 비교한 하북 자현 매벽촌 수청자요지(河北 磁縣 買壁村 隨青瓷窯址) 출토품과는 크기가 거의 같은데 기형은 하북성 출토품보다 복천동 65호묘에 더욱 가깝다. 이희종은 동위의 귀족으로 501년 출생하여 540년에 사망하였다. 한편 부인 최씨(崔氏)는 묘지명으로는 사망연대를 알 수 없지만, 보고자는 북제(北齊; 550~557년)시기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유물이 이희종의 부장품으로 매납되었는지, 또는 부인 최씨의 장례품이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유물 매장의 하한은 540년, 또는 540년에서 557년의 어느 한 시기이다. 이는 복천동 65호 출토 청자완의 연대를 홍보식(洪漣植)의 추정보다 올려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복천동 65호에서 함께 출토된 유개식고배는 <그림 17>과 같이 동천동 화장묘 출토품과 동시기로 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를 유개식고배 IA류의 3형식으로 설정하였다. IA3형식의 유개식고배는 전기양식 마지막 기의 유개식고배를 계승한 것으로 중기양식의 첫번째 기인 Ia기에 속한다. 이를 통해 중기양식 Ia기에 6세기 중엽의 연대를 부여하고자 한다.

23 石家莊地區革委會文化局文物發掘組(1977), 「河北贊皇東魏李希宗墓」, 『考古』6, 382~390쪽.

24 매일신문사 등(2007), 『中國국보전』, 103쪽.

## 2) 아차산성 성벽 다짐층 출토품

아차산성은 1997년<sup>25</sup>과 1999년<sup>26</sup>에 성벽에 대한 시굴조사가 있었다. 산성의 축조주체와 시기, 성벽 구조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7m 높이의 성벽을 완전히 절개하여 성벽 축조방법을 조사하던 중에 체성 내부 및 성벽 축조와 동시에 내벽 안쪽에 흙을 다져 넣은 층에서 목탄과 토기편 수 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 성의 성격을 알려주는 명문기와도 출토되었다. 『北漢〇』, 『漢山〇』이 양각된 기와가 그것인데, 이는 『北漢山〇』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짐층의 목탄을 방사성탄소연대분석한 결과 중심연대는 AD 540년이며, 시료의 실제연대가 AD 535~620년, AD 630~640년 사이에 위치할 확률은 68.2%로 나왔다(任孝宰·尹相惠, 2002). 아차산성 성벽에서 얻은 이러한 자료는 성벽연대뿐만 아니라 성벽 축조와 동시에 들어간 토기의 연대 추정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아래에서 이 자료를 토기편년의 절대연대 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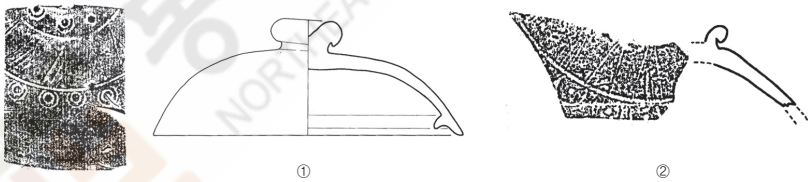


그림 19 아차산성 성벽 다짐층 출토 토기

성벽 다짐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극히 소량인데 편년과 관련해서 주목할

- 2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1998), 「아차산성 - '96보수구간내 실측 및 수습발굴 조사보고서」, 광진구.
- 26 임효재·최종택·윤상덕·장은정(2000), 『아차산성 -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유물은 두 점의 뚜껑 편이다. <그림 19 - ①>은 1997년도 조사의 체성내부에서 출토되었는데 입자형뚜껑 1형으로 d형 꼭지이다. 꼭지 주위에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먼저 침선을 그어 3단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위로부터 짙은 이중원문 - 그은 삼각집선문 - 짙은 이중원문을 차례로 시문하였다. 필자의 인화문 시문 IB단계로 중기양식 IIa기 또는 IIb기에 해당한다. <그림 19 - ②>는 뚜껑편으로 1999년도 조사의 A지구 성벽트렌치 최하 다짐층(지표하 3m)에서 출토된 토기이다. 뚜껑에 삼각집선문과 원점문이 조합되었는데 인화문이 아닌 모두 그은문(IA단계)이다. 이 두 유물은 인화문이 발생하는 IIa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은 아차산성 성벽이 축조될 당시에 성벽에 들어간 것으로 성벽의 축조연대가 유물의 하한이 된다. 앞서 명문기와를 근거로 이 성이 북한산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먼저 고구려 본기 제8 영양왕 14년조(高句麗本紀 第8 嬰陽王14年條(603))에 북한산성에서 신라와 고구려가 전투한 기사가 나온다.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을 쳤다. 신라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는 북 치고 소리 지르며 서로 호응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열전 제 2 김유신조(列傳第2 金庾信條) 661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군대를 동원하여 수륙으로 진군시켜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는데 고구려는 그 서쪽에, 말갈은 그 동쪽에 주둔하여 공격이 수십 일에 이르니…” 라고 하였다. 문헌상 ‘북한산성’에서의 최초의 전투기록은 7세기 초(603)로 그 이전에 이미 성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은 북한산성의 위치가 한강 이북으로 한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아차산성의 위치와 일치한다. 다짐층에서 수습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두 유물은 늦어도 6세기 말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인화문이 발생하는 중기양식 IIa기를 6세기 말로 설정하고자 한다.

### 3) 정림사지 연지와 능산리사지 출토품

정림사지 연지(定林寺址 蓮池) 출토품<sup>27</sup>의 인화문 구성은 수적형문과 아직 'U' 자형이 아닌 원점문 형태를 가진 종장연속문(Ⅲ단계 1, 2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종장연속문은 모두 3개를 한 단위로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출토품<sup>28</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적형문이 시문된 것 2점<sup>29</sup>과 2~3개를 한 단위로 한 종장연속문이 시문된 것 5점 등이 보고되었다.

두 유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수적형문이 660년 전후의 시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수적형문이 이 시기에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洪潛植(2001년, 79쪽)의 안(案)과 같이 수적형문의 출현시기를 660년 이후로 늦추는 것은 어렵다. 앞서 대부병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수적형문이 단기간 유행한 것이 아니라 최소 두 기(중기양식 Ⅲa기와 Ⅲb)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자는 적어도 이 시기의 앞 단계에는 수적형문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종장연속문의 발생에 대한 것이다. 두 유적의 보고자는 모두 종장연속문의 원점문 문양 구성에 주목하여 원문류에서 마제형으로의 변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李熙濬, 1994년, 126쪽; 金賢晶, 2002년, 85쪽). 또한 2~3개를 한 단위로 한 도장을 사용하여 기면 전체에 시문하였는데 종방향으로 정연하게 정렬하지 않아서 단체(單體)의 원문류를 전면 시문한 것

27 李熙濬(1994),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韓國考古學報』31.

28 金賢晶(2002), 「陵山里寺址 出土 印花紋土器에 대한 檢討」, 『공주박물관 紀要』第15輯.

29 金賢晶은 수적형문이 1점 출토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필자는 보고문의 도면 1-⑤도 수적형문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Ⅲ단계)과 구별하기 힘든 것이 많다. 李東憲은 이를 밀집시문에서 종장연속문의 과도기로 보았는데<sup>30</sup>,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정립사지 연지와 능산리사지 출토품은 전형적인 종장연속문이 출현하기 직전 단계의 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유물 매납시기를 660년 직후, 또는 7세기 후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이 유물의 양상은 중기양식 마지막 단계인 Ⅲb 단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Ⅲb기는 7세기 3/4분기로 설정할 수 있다.

#### 4) 황성동 석실분 자료의 해석

황성동 석실분(隍城洞 石室墳)은 토용의 복식형태가 7세기 후반초의 중국 당 복식을 채용하는 과도기(649~664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李康承·李熙濬, 1993년). 또한 이러한 연대추정을 출토된 인화문토기의 편년에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洪潛植(2001년)은 토용 복식을 통한 무덤의 조영연대에 대한 보고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봉토와 매토에서 출토된 토기가 다양함을 들어 몇 차례의 추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중 가장 이른 삼각집선문의 연대가 이 석실분의 조영시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짙은 삼각집선문+원문(洪潛植의 i형)의 연대를 640~660년으로 두었다. 그러나 洪潛植의 이러한 추정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추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작 연대추정 자료인 토용이 몇 번째로 추가된 유물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의 추론이 맞으려면, 토용은 첫 번째 매장 에 매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발굴 전에 이미 굴착기 작업으로 토용

30 李東憲(2008), 95쪽.

은 물론이거니와 시상석까지 교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용이 언제 추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또 하나는 그의 견해대로 몇 번의 주장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봉토와 매토 출토 토기는 의미가 다르다 할 것이다. 묘도 매토의 토기는 가장 늦은 형식의 토기가 최종 매장의 상한을 알려준다. 봉토 출토 토기는 주장할 때 마다 매번 봉토를 다시 올리지 않는다면, 봉토 중 가장 빠른 토기가 석실분의 최초 조영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은 토기가 최초 조영시기와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sup>31</sup>

## 2. 단계별 절대연대 부여

앞에서 절대편년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대편년 안에 연대를 부여하고자 한다.

중기양식토기의 첫 번째인 Ia기의 연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세기 중엽의 연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전기에서 중기양식(기존의 ‘후기양식’)으로의 전환기를 6세기 중엽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IIa기는 인화문토기가 처음 시문되는 단계로, 아차산성 성벽 출토 토기를 통해 보면 늦어도 6세기 말에는 출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무덤을 단위로 한 공반관계 분석을 한 결과(표 6) IIa기에 해당하는 유구 수가 다

31 李東憲(2008, 92쪽)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그는 석실분 축조 연대의 상한을 암시하는 문양 구성이 봉토 유물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삼각집선문+원호문류라 하고 이들의 연대를 649~664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봉토유물을 가지고 석실분 축조 연대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빈도의 유물이 아니고 역시 가장 늦은 단계의 유물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른 기에 비해 적어 존속기간이 다른 기에 비해 짧았을 가능성이 크다. IIa기는 6세기 말로 설정한다.

중기양식토기의 마지막 단계인 IIIb기는 정림사지 연지 및 능산리사지 출토품과 평행한 시기로 7세기 3/4분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Ib기는 7세기 1/4분기, IIIa기는 7세기 2/4분기의 연대를 부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양식토기에 대해서는 중기양식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여기서는 IV기만을 다루었다. 필자는 천마총의 연대를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보는데, IV기는 천마총보다 조금 늦은 것으로 생각한다. 6세기 초의 상황은 후고에서 별도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IV기의 시작을 6세기 초로 보고자 한다.

## V. 맺음말

이 시기의 고고학 자료는 생활유적이 많고, 무덤인 경우도 석실분의 비중이 높아 편년에 어려움이 많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납동 시성이 확보된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6~7세기의 토기 편년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성이 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주중심지역의 유적 및 경주와 교통로로 연결되어 경주 중심의 양식변화를 시간차 없이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형산강 하구 인근의 유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년을 진행하여 그동안 병행관계나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유물과 인화문의 편년을 일부 진전시킬 수 있었다. 몇 가지 주목

할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서로 다른 인화문의 문양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대부병의 분석을 통해 공존 양상 및 시간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화문의 존속기간이 길어 다른 종류가 서로 공존했을 가능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李熙濬, 1994; 尹相憲, 2001; 洪潛植, 2004). 또한 필자는 문양만으로 편년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다(尹相憲, 2004년, 106쪽). 대부병의 분류에서 이런 부분이 훨씬 명확해졌다. 대부병은 A형~F형까지 6개의 형식으로 분류되었는데 대부병의 기형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 아래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인화문의 경우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여러 형에서 중복해서 나타난다. 즉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원문류’는 A형에서 C형까지 계속 나타나며, D형식에서도 1점 확인된다. 삼각집선문과 원문류를 모두 찍은 문양(IC단계)도 B~E형까지 보인다. 수적형문(II단계)은 D형과 E형에서 나타나며 찍은 삼각집선문류 단계(IC)와 함께 사용된다. 또한 A형(6세기 말) - B, C형(7세기 1/4분기) - D형(7세기 2/4분기) - E형(7세기 3/4분기) - F형(7세기 4/4분기)으로 편년되는데 이를 통해 문양의 존속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원문류’는 6세기말에서 7세기 2/4분기의 이른시기까지 사용되어 약 50년 정도의 존속기간을 보인다. 또한 찍은 삼각집선문과 원문류는 7세기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마지막으로 수적형문은 7세기 2/4분기부터 7세기 3/4분기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각 문양들이 적어도 5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화문만을 이용한 편년시에 반드시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절대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인화문의 출현시기와 관련해서 아차산성 성벽 다짐층 출토 인화문토기로 6세기 말에는 인화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인화문 출현시기를 늦춰보는 근거로

사용된 복천동 65호묘 출토품의 해석에서 자기의 한반도 이입 과정을 단순히 문헌의 공식적인 유사의 시기에 한정에서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중국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6세기 중엽의 하북성 남형촌 이회중 부부묘에서 출토되었음을 소개하고 65호 출토품의 연대가 상향조정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660년의 백제 멸망 후에 부여 지역에 유입된 자료를 재해석하여 정림사지 연지와 능산리사지 출토 토기에 보이는 수적형문이 당시에 유행했던 문양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두 유적에서 출토된 종장연속문은 전형적인 종장연속문의 바로 앞 단계로, 수적형문과 동시에 공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그동안 학계에서 편년에 많이 사용되던 황성동 석실분 출토품의 연대추정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토기 시기구분안을 제안하였다. 시기구분은 단계별 토기양식과 고고학적 양상을 토대로 전기-중기-후기-말기로 구분하였다. 이 글의 편년대상인 6~7세기는 전기양식의 마지막 시기에서부터 중기양식을 거쳐 후기양식의 첫 번째 시기를 포함한다. 중기양식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3/4분기까지의 시기로 설정하였고 그 특징으로 단각고배가 출현하고 인화문이 발생한 것을 들었다. 올바른 용어의 사용은 관련 연구의 진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 6세기 중엽에서 통일신라까지를 '신라후기양식토기'로 정의하는 것은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기구분 용어를 비롯해서 각 시기의 정의와 고고학적인 내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표 7 분석대상유적 일람표

지역	유적명	보고서명	약칭
경주	월성로 고분군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國立慶州博物館	가, 나
	인왕동 유적	『慶州 仁旺洞 遺蹟－협성주유소 부지』, 2003, 國立慶州博物館	협성
	인왕동	『慶州仁旺洞古墳群』,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인왕
	황남동 106-3	『慶州 皇南洞 106-3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황남106-3
	경마장 C지구	『慶州市 競馬場 豫定敷地 C-1 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199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경마C
	경마장 A지구	『慶州蒜谷洞·勿川里遺蹟』, 200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경마A
	월산리 유적	『慶州 月山里遺蹟』, 200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월산A
	울동 고분군	『慶州市 栗洞 1108番地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200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울동
	방내리 고분군	『慶州芳内里古墳群』, 199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방내68-1
		『乾川休憩所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1995, 慶州文化財研究所	방내93-1
		『慶州 芳内·棗田里 古墳群』, 1998,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Ⅲ,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방내96-1
	경주 덕천리 유적	『慶州 德泉里遺蹟』, 200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덕천
	사라리 525 유적	『慶州 舍羅里 525番地遺蹟』, 2005, 嶺南文化財研究院	사라
	동천동 화장묘	『慶州 東川洞 收拾調査 報告』, 1994, 『국립경주박물관연보』, 국립경주박물관	동천골
신당리 유적	『慶州 神堂里 遺蹟』, 200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신당	
포항	학천리 유적	『浦項 鶴川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Ⅱ, Ⅲ』, 2002,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학천
	인덕동 고분군	『浦項 仁德洞 遺蹟』, 200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인덕
	냉수리 고분	『冷水里 古墳』, 1995, 國立慶州博物館	냉수리
	용흥동 신라묘	『浦項 龍興洞 新羅墓』, 2007, 國立慶州博物館	용흥
	강사리 유적	『浦項 江沙里 遺蹟』, 200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강사
	우복리 유적	『浦項 牛伏·南城里遺蹟』, 2005, 嶺南文化財研究院	우복
	오도리 고분	『浦項 烏島里 新羅墓群』, 2008, 聖林文化財研究院	오도
	화산리 고분	『蔚州華山里古墳群』, 1983, 釜山大學校博物館	화산
	다운동 유적	『蔚山茶雲東436-5遺蹟』, 2008, (財)蔚山文化財研究院	다운동
	다운동(마) 유적	『蔚山 茶雲洞 마 地域 遺蹟』, 2003,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다운마
기타	기장 교리 유적	『機張 校里遺蹟』, 2006, 福泉博物館	기장
	저포리 D지구	『陝川苧浦里D地區遺蹟』, 1987,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	저D
	저포리 E지구	『陝川苧浦里E地區遺蹟』, 1987, 釜山大學校博物館	저E
	삼가고분	『陝川三嘉古墳群』, 1982, 東亞大學校博物館	삼가
	지산동 고분	『大伽倻 歷史館 新築敷地内 高靈池山同古墳群』, 2000,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지산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2002), 「考察-土器」,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 金元龍(1985),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 15, 國史編纂委員會.
- 金賢晶(2002), 「陵山里寺址 出土 印花文土器에 대한 檢討」, 『공주박물관 紀要』 第15輯.
- 朴淳發(1998), 「遺物에 대한 考察-土器·磁器」, 『聖住寺』, 忠南大學校博物館.
- 尹相惠(2000), 「고찰-토기」,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서울大學校博物館.
- 尹相惠(2001a), 『6~7世紀 新羅土器 相對編年 試論』,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尹相惠(2001b), 「6~7世紀 新羅土器 相對編年 試論」, 『韓國考古學報』 45.
- 尹相惠(2004),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연구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李康承·李熙濬(1993), 『慶州 隍城洞 石室墳』, 國立慶州博物館.
- 李東憲(2008), 『印花文 有蓋盃 研究-慶州地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李盛周(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 李熙濬(1994),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韓國考古學報』 31.
- 李熙濬(1998), 「토기에 의한 新羅 高분의 分期와 年년」, 『韓國考古學報』 36.
- 任孝宰·尹相惠(2002), 「峨嵯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悠山姜仁求教授 停年紀念 東北亞古文化論叢』, 清溪史學 16·17輯.
- 崔秉鉉(1987),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一志社.
- 崔秉鉉(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洪潛植(2001),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洪潛植(2004),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嶺南考古學報』 34
- 山本孝文(2001), 「古墳資料로 본 新羅勢力的 湖西地方 進出」, 湖西考古學 第4·5合輯, 湖西考古學會.
- 山本孝文(2007), 「印花文土器의 發生과 系譜에 대한 試論」, 『嶺南考古學報』 41.
- 宮川禎一(1988a),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 宮川禎一(1988b), 「新羅陶質土器研究の一視點-7世紀代お中心として」, 『古代文化』 40-6.

宮川禎一(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30 - 中, 九州古文化研究會.  
重見泰(2005), 「7世紀前後における新羅土器『有蓋高杯』の形態變化」, 『考古學研究』, 第51卷 第4号.  
石家庄地區革委會文化局文物發掘組(1977), 「河北贊皇東魏李希宗墓」, 『考古』 6.



## The Tomb Culture and Silla Pottery of Ulleung-Do

Lee Sung-joo

(Professor, Kangneung National University)

A large number of mounded tombs of considerable size were built in Ulleung - Do for around 400 years, from the late Three Kingdoms to Unified Silla Period. In addition, Silla control over the island led to the use of pottery, both in everyday life and as grave goods; prior to this, not a single piece of pottery had been used by the island population. Fragments of bronze crowns and horse gear have also been identified, albeit limitedly. Such evidence of material culture makes it possible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a small number of Silla elite settled on the island following its annexation by the Silla state and, in association with the indigenous population, formed a ranked society. Second, Silla residents established regular routes of exchange between the mainland and island from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to early Goryeo Period, through which pottery and other goods were supplied to Ulleung-Do. Third, the settlement of, and continuous exchange with, Ulleung-Do was driven by the need of Silla (be it for local products and tribute, or due to the island's strategic location in dealing with Goguryeo, Balhae and Wa). Fourth, during the late Three Kingdoms to Unified Silla Period, Ulleung-Do was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island by mainlanders in a way it had not been previously, or has not been since.

# The Chronology of 6~7th Century Silla Pottery from the Gyeongju Region

Yoon Sang-deok  
(Curator, Gyeongju National Museum)

Silla pottery chronology for this period has been difficult to establish, since much of the ceramic material comes from non-burial contexts, and because tomb structure allows the additional deposition of bodies and grave good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alysis was carried out on pottery from contexts in which the contemporaneity of deposits could be assured (such as stone lined burials) in constructing a chronology for Silla pottery of the 6~7th century AD. In addition, as stylistic regional variation can inadvertently influence pottery chronology, analysis was limited to pottery from the central Gyeongju region and the mouth of the Hyeongsan River, a key route of movement leading out of Gyeongju.

Results of the analysis shed light on the changing nature of pottery form, and artifact association helped further refine artifact and pottery decoration chronology. With regard to the co-existence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stamped decoration, analysis of the mounted bottle provided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nature of this co-existence, as well as its time scope. The discovery of stamped decoration pottery from the foundation layer of Mt. Acha Fortress was taken as evidence illustrating that stamped decoration came into use from the late 6th

century AD. In addition, stamped decoration pottery from the site of Neungsan Temple and from the pond at the site of Jeonglim Temple, Buyeo, was considered to represent a stylistic phase which preceded the typical 'vertical continuous decoration' phase, and which was contemporary to the water drop mark pattern. Finally, a general chronology of Silla pottery was presented.



# Investigating Ceramic Production Technology and Exchange through Petrography from Ulleung-Do

Cho Dae-youn

(Assista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aspects of ceram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from the late Silla (AD 562–675) to Unified Silla Period (AD 676–935) in Ulleung-Do. By adopting petrographic analysis, firstly, this paper looks at the exchange of Ulleung-Do pottery. It also attempts to consider, diachronically,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ottery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final produc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research issues, 64 ceramic samples from four archaeological sites on the island (Namseo -ri artifact scatter, Chenbu -dong tombs, Hyunpo -ri tombs, Sadong -ri tombs) were analysed. The results suggest that, while reddish - brown earthenware was possibly produced and exchanged among local communities in Ulleung -Do, bluish - grey stoneware was distributed from the mainland. In addition, the continuation of production techniques through time, such as clay manipulation (tempering practice), was notable with regard to production technology. These results will shed new light on how potter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ay have been associated with social transformation in this remote island.

## 찾아보기

### | ㄱ |

강릉 28, 29  
계성 고분군(桂城 古墳群) 53  
고급 도질토기 63, 65  
고배(高杯) 103  
고분군 24, 32, 33  
공반관계 105, 136  
광학암석학 79  
광학적 활동상태 79  
구형병(球形瓶) 114  
금동관 42, 43, 45

### | ㄴ |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 28  
남서동(南西洞) 고분군 37  
남서리 유물산포지 73  
남양동(南陽洞) 고분군 38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149

### | ㄷ |

단각고배(短脚高杯) 33, 62, 122, 124  
대관(帶冠) 40  
대부병(臺附瓶) 103, 111, 114, 117  
대부완(臺附盥) 110, 128  
대부장경호 62  
도질토기 47, 52  
동관(銅冠) 39, 41, 44  
동령(銅鈴) 39  
동천동 화장묘(東川洞 火葬墓) 106  
동판(銅板) 39

### | ㄹ |

매남동시성(埋納同時性) 103, 105, 136  
명목속성 107  
명주(溟洲) 30  
무개식고배(無蓋式高杯) 126  
무돌대고배 122, 124  
미량원소 80  
미세구조(Microstructure) 81

### | ㅁ |

마이모달 82  
바탕흙 79  
바탕흙(Groundmass) 81  
방내리 고분군(芳內里 古墳群) 53, 106  
변성암 96  
병성동(屏城洞) 고분군 38  
복자형(卜字形)무경 131  
북천동 65호분 144  
봉석식실분 25  
부가구연대부장경호(附加口緣臺附長頸壺)  
132  
북한산성(北漢山城) 147  
비율척도(比率尺度) 107  
비(非)점토 물질 82

### | ㅂ |

사동리 고분군 73  
산지분석 80  
삼각집선문류 112  
상대편년 111  
생산분배체계 73  
생태지리 모델 26, 27  
샤머니즘 45  
석곽묘(石槨墓) 103

석실묘(石室墓) 104  
 성벽 다짐층 147  
 소성온도 79  
 손곡동·물천리 유적(孫谷洞·勿川里 遺蹟) 106  
 수적형문 149  
 수적형문류 113  
 수지형입화식대관(樹枝型立華飾帶冠) 41  
 수혈식석곽(竪穴式石槨) 32  
 순서배열 107, 136  
 승문토기(繩文土器) 20  
 시기구분 108  
 신라말기양식 110  
 신라전기양식토기-신라후기양식토기 108  
 신라중기양식토기 104, 106  
 신라토기 46  
 신라후기양식토기 73  
 실직국(悉直國) 28  
 실직주(悉直州) 29

| ○ |

아슬라 28  
 아슬라주 29  
 아차산성 107, 147  
 안압지(雁鳴池) 48  
 왕경유적 63  
 우산국(于山國) 30  
 원문류 112  
 월산리 유적(月山里 遺蹟) 106  
 월성로 고분군(月城路 古墳群) 105  
 위세품 43  
 유개식고배(有蓋式高杯) 122  
 유니모달 82  
 유돌대고배 122  
 울동 1108번지 고분군(栗洞 1108番地 古墳群)  
 106  
 이사부(異斯夫) 23, 29, 30, 31

이식(耳飾) 39  
 이희종 부부묘(李希宗 夫婦墓) 107, 145  
 인덕동 유적(仁德洞 遺蹟) 106  
 인왕동 유적(仁旺洞 遺蹟) 105  
 인화문(印花文) 103, 104  
 인화문토기(印花文土器) 20, 47  
 입자(Inclusions) 81  
 입자형(入字形)뚜껑 131

| ✕ |

적갈색 토기 75  
 적색연질토기 48  
 적석봉분(積石封墳) 37  
 정림사지 연지(定林寺址 蓮池) 149  
 조면안산암 76  
 조면암질 집괴암 76  
 조탑동(造塔洞) 고분군 38  
 종장연속문 149  
 종장연속문류 113  
 중심고분군(中心古墳群) 42  
 지동(枝洞) 42  
 지방고분군 24, 35  
 지석묘(支石墓) 21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31

| ✕ |

천부동 고분군(天府洞 古墳群) 22, 37, 62, 73  
 추가장(追加葬) 34, 103, 105  
 추암동 고분 44  
 총적층 76

| ✕ |

칼데라 퇴적층 76

| ㅍ |

- 타날구(打捺具) 20
- 토기암석학 73
- 토기암석학 분석 78
- 통일신라 토기 47
- 통일신라양식 토기 73

| ㅊ |

-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8
- 편광현미경 78
- 편마암 96
- 포항 106
- 포항 학천리 유적(浦項 鶴川里 遺蹟) 106

| ㅎ |

- 하리(下里) 42, 44
- 향토사료관 39, 62
- 현무암 92
- 현무암질 집괴암 76
- 현포동(玄圃洞) 고분군 34
- 현포동(玄圃洞) 유적 23
- 현포리 고분군 73
- 형산강 106
- 형식분류 107
- 화산쇄설성 퇴적암 95
- 황남동 106-3번지 고분군 105
- 황룡사 창건기(皇龍寺 創建期) 52
- 황성동 석실분 108, 150
- 회청색 경질토기 75
- 횡구식(橫口式) 34
- 횡구식석실 34, 35, 38
- 횡혈식석실 35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7

##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초판1쇄 인쇄 2010년 11월 17일

초판1쇄 발행 2010년 11월 22일

지은이 이성주, 조대연, 윤상덕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193-8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든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期	有蓋式高杯 有突帶高杯 短脚高杯		無蓋式高杯	球形瓶	臺附瓶	臺附盃	卜字形平底	入字形平底	附加口緣	文樣						出土遺蹟
	IA	IB	IC	II	III	IV										
전기양식	IV a														刻三角圓	월성로 가8: ①25⑩⑫ 협성14: ③ 황남106-3 6: ④ 강서32: ⑥ 울동10: ⑦8⑨ CI-1-12: ⑩
	IV b														刻三角圓	반내68-23: ①3⑨⑩ 월산B-3: ② 경마CI-1-2: ④ 방수리 축살: ⑤ 오도2살: ⑥ 울동34: ⑧ 경마CI-1-15: ⑦
중기양식	I a														刻三角圓	동천화장: ①2⑤ 인덕7: ③ 울동75: ④⑩ 경마CI-1-6: ⑤ 반내68-46: ⑥ 경마CI-2-7: ⑦8 경마CI-1-19: ⑩ 반내68-55: ⑫
	I b								刻三角圓						刻三角圓	신당35수혈: ①24⑤ ⑧⑨ 학천6과: ⑩ 경마CI-1-14: ⑥ 반내96-10: ⑦ 경마CI-1-20: ⑩ 반내68-14: ⑫
	II a									刻三角圓					刻三角圓	경마A-28: ① 학천68과: ② 경마CI-1-9: ③4⑩ 반내68-36: ⑤ 경마CI-1-20: ⑥⑫⑩ 반내96-7: ⑦/39: ⑨ 반내93-23: ⑧
	II b									刻三角圓	印三角圓				刻三角圓	사리살: ① 월산A-55: ② 반내93-46: ③⑩ 경마CI-1-16: ④ 반내93-45: ⑤⑫/12⑩ 오도9살: ⑥ 반내68-12: ⑦/8: ⑧ 반내93-39: ⑩/10: ⑩
	III a														印三角水滴	사리3과: ①7 학천65-1과: ② 월산B-25: ③8 월산B-2: ④ 반내93-28: ⑤ 반내93-7: ⑥ 반내93-53: ⑦⑩
	III b														印三角水滴全面	경마CI-12-9: ①4 반내93-21: ② 반내93-38: ③6⑧ 반내93-22: ⑤ 학천과30: ⑦
후기양식	I a													連續印全面水滴	학115과: ①4⑤ 다음 016: ② 사리3살: ③	

그림 16. 6~7 世紀 廣州地域 新羅土器 編年